

隔日發刊

로써, 시를 평하고, 기건조하고  
한제간, 일자양으로 하여야, 이

조는, 감고, 처할조는, 처하야

향후야, 진군향야갓더라,  
니할이오.

▲그리도賴의近情

보의주고 오래

戰國野燭  
卷之五

### ●叙任及辭令

交通宮修理特別監費

上李容九、全韓在鎮（

太僕司長、從二品金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

五〇九

한글서체

المجلة الدولية لدراسات الطفولة

어디잇스리오네가집을비번

국가에 베풀어  
밀<sup>을</sup>어<sup>지</sup>고<sup>을</sup>노

을기을미지니하거날 그조부선

를을곳치고 그조부를위로하고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illegible]

어디 또 사리 오구 충신 어 효조

五十五

편을맛치미, 일사은그조부또병이

고도스

1.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 problem is to recognize that a problem exists. This is often done by comparing current performance with a desired state or goal.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 problem is identified.

세영치하여 다시신을기선(新)비슬호

○ ○ ○ ○ ○

이공을 섬기 난 거사 올흔 일인 주 이

쓰미나야삼세라, 어스그얼한야달

[illegible]

五言古詩

죽되와  
소신나  
가문이  
불행하  
와

三才圖會

부녀백제, 어련히 자을도아, 국초

[illegible]

10.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for your information only. It is not to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명제가 헛되고, 쉬오니, 삼가  
 하도다. 이르러나, 간정을, 성을  
 지연정, 마음은, 벗가지 아니리라  
 고, 술이, 수수지나미, 춘풍의, 추월  
 을, 띠와요, 알으니, 오늘날, 천리  
 의, 상봉하와, 이렇듯, 줄가니, 아  
 조흔인연이라, 네말과처, 학년을  
 의, 처치, 지디면, 언저, 술상의, 괴  
 할, 연분이아나리오, 그러하나, 날  
 조흔, 사름, 이, 육인의, 아름다운,  
 비필이아니오, 두, 이번, 나가, 이곳  
 에오미, 다만, 장수만, 위함도, 아  
 요, 강산유람을, 위함도, 아니라, 심  
 중에, 큰, 영이, 잠서, 잠서, 단, 가  
 주, 한일이더니, 나, 조흔가인을, 만  
 나, 이, 몇, 상의하와, 줄가물, 어드  
 니, 언저, 서로, 조리요, 맛당이, 영  
 일, 회정하와, 스, 언을, 성, 취하후, 곳  
 나, 려와, 서로, 맞날, 괴악이, 잇스리  
 나, 모로미, 조곰도, 차별할비, 하  
 라, 금일, 나가, 네집에, 오미, 네정을,  
 츠마, 저, 버리지, 못하와, 후괴를, 머  
 물고즈, 하미나, 잠시, 떠나를, 앓가  
 지말나, 추월이, 그말을, 듯고, 해오  
 띠, 이, 늙이, 임의, 나, 자중, 에, 드러와  
 거, 이, 제, 락, 신크, 조하, 나, 가소, 를  
 도다, 하고, 시를, 지와, 할소비, 우연, 한  
 정을, 이, 괴, 못하와, 설, 진, 심, 중, 무, 한, 스  
 를, 망, 영, 도이, 발, 하, 었, 술, 더니, 스, 만  
 님, 게, 서, 언저, 알, 으, 시고, 그러, 리, 말, 스  
 , 하, 시, 는, 지, 모, 로, 오리, 천, 한, 창, 가, 라,  
 더, 러, 이, 너, 이, 시고, 진, 정을, 저, 버, 리  
 라, 하, 시나, 일, 편, 심, 이, 아, 언저, 귀, 천, 이  
 , 잇, 스, 오리, 잇가, 그, 옥, 이, 붓, 그, 럽, 습,  
 거, 니, 와, 괴, 왕, 누, 실, 에, 육, 남, 하, 었, 스, 오  
 니, 오, 날, 이, 나, 놀, 고, 가, 시, 기, 무, 습, 현  
 의, , 잇, 스, 오리, 잇가, 하고, 옥, 안, 에, 츠  
 창, 한, 빗, 을, 띄, 와, 술, 을, 권, 하, 나, 춘, 풍  
 이, 언저, 을, 언하와, 일, 비, 일, 배, 부, 일, 배  
 하, 와, 학, 일, 이, 서, 참, 한, 를, 세, 닷, 지, 모  
 하, 더, 라  
 二 題之亂矣 작야에, 북부, 청, 등, 스, 나  
 , 박, 창, 석, 이, 가, 술, 을, 먹고, 진, 후, 갖, 치  
 최, 하, 야, 그, 아, 비, 을, 물, 나, 보고, 휘, 오  
 이, 무, 상, 하, 나, 그, 아, 비, 가, 그, 분, 을, 이  
 괴, 지, 못, 하, 야, 그, 교, 번, 소, 에, 가, 고, 하  
 습, 김, 이, 그, 아, 들, 을, 포, 송, 으, 로, 결, 단  
 하, 야, 잡, 야, 다, 가, 교, 번, 소, 에, 설, 이, 고  
 달, 야, 하, 도, 록, 옥, 을, 보, 나, 창, 석, 이  
 이, 별, 이, 살, 가, 을, 구, 하, 야, 글, 으, 띠, 과  
 술, 이, 글, 하, 언저, 스, 를, 의, 혼, 이,

莫成新報社編輯部

漢城新報社編輯部

不念一人乎讀不可如是 國受其  
金資資 永壽氏亦た耳讀 其任に勝へず

四 右の式に準じ假屋を建築するは從來のものに比し多額の費用を要し漢城の面

四 右の式に準じ、借屋を建築するに必要のものに比し多額の費用を要し、漢城の面積を五倍に増すの今日、曩々其散漫を

は其管内に百餘名の暴徒闖入せしを見其危難を免かれんが爲の一計を案出し大に酒肴を備

●當  
留地在勳英





日本郵船  
汽船  
仁川  
株式會社  
出帆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路會社 瀛船仁川出廣告

大坂商  
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正重丸

京城莊司回漕店

切ニ勉強仕候間倍舊御愛顧幸願候

上等圓  
中等圓  
下等圓

一下等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旅 館  
京 路  
減 洞  
東 京 館  
位 置 便 利

蒙リ日ニ月ニ繁榮仕候段事深謝候間  
 今設客室其他百事改良テ施シ御待遇ハ  
 申スニ及バズ御料理等モ衛生上注意ナ  
 注意ヲ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意ヲ  
 注ギ又タ宿泊料ニ至ツテハ精々低廉ナ  
 旨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モ  
 尚ホ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當ニ  
 格シ強儀御宿泊ノ程奉願上候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金拾貳圓

恒室内御執覽ノ上御相談ニ應テ

藥局方和漢洋藥廣賣

日本大分  
東區道修  
町壹丁目

成尾安五郎

諸雜貨買入  
委託販賣業  
井出清造

薩摩煙草卸賣  
(刻捲井)

感御愛顧諸藩ノ御引立ニ依リ日増シニ繁昌  
 リ難有御禮申上候趣ツテ今般一層勉強品賣  
 更且ツ荷違等へ至極丁寧ニ早速送附仕候間  
 少ニ拘ヘラズ未嘗々々御注文奉願上候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車商渡邊出賣店  
 川畑勇吉

廣告

卸小賣

陶器商 河村支店

風味最佳品位高尚紙捲簾吸口付十本入  
 ピーコンク 金四錢  
 朝鮮一手販賣 京城泥硯 龜 屋

當銀行ハ客月廿五日ヲ以ツテ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藏  
大臣ノ認可ヲ得テ翌廿六日ヨリ株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十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間此段廣告  
致候也

明治二十九年十月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首 小  
● 袖  
● 綳  
● 肩  
● 手  
● 巾

高帽子子シヤツ類

●  
ゴ  
ム  
靴  
●  
半  
靴

●柳行 ●李 ●支那革命

外二建築用布海言

右ハ今殺背着仕リ候ニ就テハ特別廉價ニ以テ  
販賣致シ候間舊ニ倍シ御愛求ノ程奉願上候  
京城泥唄

鈴木大阪堂

10

大前年  
西區  
販賣  
雜貨  
井  
開主貨  
業主舊  
任御來注  
御御文店  
御當  
井  
京城  
南大  
門通

愈店弊  
堀町京  
ヒ扱取  
買 賃  
毛 依  
實 篤  
目 利  
口 立  
北 下  
度 係  
ル 越  
シ  
出 方

次買打  
販賣  
店商

目通ニ賣  
申以奉至  
シ候テ願急  
大坂  
京町

美  
付  
候上  
奏退

一石由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數荷着相成リ候間多少ニ限ラズ  
街購求ノ程偏ヘニ奉願上候也

慶田出張店

慶田組

石油大販賣

오니 多少間에 來購하야 주시믄 천 단 밋  
타옴

泥  
慶田出張店

仁  
慶川  
田  
組

[illegible]

田組  
大阪  
第五十八國立銀行

宇治新茶  
 御玉露製一斤金壹圓五拾錢ニテ五圓迄  
 御煎茶一斤金拾六錢ニテ壹圓迄  
 御薄茶極細廣葉上別裝  
 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テ六第三運  
 晚上テ御注文ニ應テ申候  
 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諸彥倍舊ノ如受テ  
 京城泥規  
 河村至誠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廣告料  
 錢伍十行銀及圓銀にテヨリ關引  
 料金は悉皆資金にて再取受候  
 發行兼印刷人 莊林 實  
 編輯人 島田 國  
 朝鮮國京城南區會賢坊路獨製



森羅萬物 造化동사는, 옛날사람을 모로며,  
 유부녀의 마음을 꺾어서, 어둡디밤  
 나, 자연유기  
 의을가름으로, 더부러, 등간하  
 존못하거던

2010. 10. 25.

과밤  
니 자연유리지경이 되어, 종스를 보  
관호 존못호거던, 호를며나라이야, 알너 착만

우계하리라 하니, 군중에 엄숙한

卷丙 申八月二十八日  
 (庚寅)

적하여 머리올버여을 지잇과





백절헌 자라 미월이 갖튼 계집은 흥

이러한 고종으로 말미암아

卷之六

秋夜讀書

秋夜讀書

文 之 如 此

詩草評定甲乙以大

寄贈以本新報一朔

投稿者須及期愼者

稿本必以楷字寫之

投標者必須明認

品調不效  
神效

溥圻新

社

10

第一寶 誠

一、期間：先給

三朔間 先給

六  
方  
讀  
者

買  
は  
た  
た  
か  
し  
め  
る

10. 04. 2008

三才圖會

1000

西人

● 中の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仁川港商況 (仁川商會所調查要領)



# 日本郵船株式會社 瀧船仁川廣告

**豐島丸** 十月五日日出帆(四日入港)  
釜山、下津浦、神戶、大坂行

**玄海丸** 十月六日出帆(五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薩摩丸** 十月六日出帆(五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肥後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長門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兵庫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神戶、馬尾、釜山、仁川、大坂行

**明石丸** 十月四日出帆(三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筑後丸** 十月四日出帆(三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信濃丸** 十月四日出帆(三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木曾丸** 十月四日出帆(三日入港)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龍仁瀧船龍山出帆廣告**  
大坂、神戶、馬尾、釜山、仁川、大坂行

**正重丸** 十月三日 正午出帆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住ノ江丸** 十月四日 午後三時出帆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京城 莊司回漕店**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一等 壹圓**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二等 七十錢**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三等 五十錢**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下等 三十五錢**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田原旅館**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東京館**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館**  
釜山、長崎、馬尾、神戶、大坂行

#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埠船客地

本館從前營業在仁川各埠船客地  
今因客室其他事務改換其地  
申ス及、本館料理等モ衛生上注意  
注意ヲ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意  
注シ又、宿泊料ニ至テハ極々低廉  
言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  
間ハ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  
當シ建候御宿泊ノ程幸願上候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低室内御覽ノ上御相談ニ應ス

**成尾安五郎**

日本大坂

町堂丁目

委託販賣業

井出清造

薩摩煙草卸賣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川畑勇吉

廣告

一打綿製造

卸小賣

河村支店

金四錢

金四錢

# 廣告

客月廿五日ヲ以テ國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十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間此段廣告  
致候也

明治二十九年十月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小袖綿肩掛

首環卷絹手巾

高帽子シヤツ類

ゴム靴半靴

柳行李支那革判

馬具其他種々

外ニ建築用布海苔

右ハ今般荷着仕候ニ就テハ特別廉價ヲ以テ  
販賣致仕候間當ニ倍ニ御愛求ノ程幸願上候

京風泥親

鈴木大阪堂

雜貨買并

次賣販托依并

一石油

大販賣

慶田出張店

慶田組

大販賣

慶田組



漢城新報

○ 卷三 雜 報

將軍이 본국에서 具申 稟議하시니

종무과을회설하나(과장일인)주  
인(과)류스이인을두고(이삼일안  
에)합조을하(과과장일인)오영일씨  
과장다의하

[illegible]

貨物, 貨物들이 天庫(천고)로, 못된 기는 白  
 河(백하)강은, 월전부터, 물이, 퍼만  
 지고 泥沙(니사)가, 노출한 것은, 도, 시방  
 은, 石(석)가, 그물을 자나 되얏으므로  
 船(선)과 舟(주) 輪船(륜선)이, 수일만에, 던진

① 在對軍總督의 命 將軍을 고, 그 때 敵將의  
 將軍이, 본국으로, 회국하기를 일제  
 ② 將軍을 내든 편자를 보니, 「오산대  
 ③ 將軍을 命 將軍을 고, 그 때 敵將의

한편, 서로 칼을 빼야, 싸우려더니  
몇몇 하층들이, 그스이에 드려서, 그  
판이니 하얏다라, 이일이긴 꼭 절은  
심수인로다. 「백발」 총독이가 오사  
다. 「악주」 하층들을 불러서, 그 판도

로 禮遇하얏다 고, 신문을 보니, 그  
 時에, 李 鴻 章, 李 鴻 章, 李 鴻 章, 「웨런」 조  
 署官, 李 鴻 章, 그 리고 고 李 鴻 章, 李 鴻 章  
 이 李 鴻 章, 그 리고 아 李 鴻 章, 李 鴻 章  
 이 李 鴻 章, 李 鴻 章, 李 鴻 章, 그

충화은(忠化恩)은 본국을 잊지, 육별충을 가지  
고자한나(我爾忠獨은 아모기(阿莫奇)는  
重稱을아려서죽었다라고公議했다라  
한이러한단고산다(장군은)하와나  
를당으로나와서, 이리할사정을아

고, 분홍야, 곧 웨컬」 총독을 차자가  
서, 쪽하를, 그리향양든 국절을 諸國  
물야, 그것게되얏든 거신타, 오산더

[illegible]

中郭廢西郭지방은고(古) 석판아병적은(續)  
 韓城의대왕하(河)의남쪽십리(十里)에되려문은  
 齊를향미약한곳모양이로되,석판  
 하근은,은곳일을물위에놓으면

호가 열 마흔다섯 일흔 스물본말  
 디라온녀  
 小笠原海  
 릿페르, 선제벨게「란  
 사름은, 조고마호빅를 두고 태평양(동)

에, 일본精靈을 떠나 갔더니, 수일이  
다가 天候가, 사오날게 되야, 풍파가  
대단히 나려났스므로, 호섬에, 피  
하야 잇다가, 떠났더니, 또 다시 暴風

업스므로, 사할도란 섬에 가서, 피난  
을 하고, 뜻대며, 기다리마련을 하야  
일본 북히도(函館)으로, 화로 가서, 커다  
선 아 주 태평양을 간다고, 횡빈에 이

●英提末路 지난날은 보름 개월 법궁에서  
一世拿破崙之舊邸를公費로 샀는데, 그  
밖에 유령을 부자 「호우리」란 사람을  
아, 오만월으로 샀더라. 동씨는 그

정조를 슈리하시니 법국왕에게  
과부헌다는디 그점조는「조세헌」을  
들가, 가지서든거시 만히 있고, 또 거  
과잇는 寶藏은, 몹시, 상하야잇스되  
故拿帝가, 가지서든거시 막, 미국사를

다 죽을 유람하야 된기난 벼를 밍드

위하야, 지방영무관廳을써를, 면관  
식며서, 崔아를, 영무관으로시키려  
고하야, 그조를수명은, 지난날, 이  
실구일에, 잡아서, 옥에갇혔다단말  
은, 일편신문에, 미지하얏거니와, 그

후에 崔賢翰씨도 찾아다가 인천영무  
서에 가두고 심문을 하야 지나간  
일에, 문안으로 覆送하야왔다라, 7세  
하, 노닐은 때에 金顯禧의 弟兄을 말  
하 金顯新書를 가져로, 방북했다 노닐

은, 이 외에, 업은 일이고, 그 최진한  
씨는, 크게 물망이 있고, 또 처식 높은  
사람이니, 그題又에, 최씨에, 물망이  
있는 일과, 지식이 높은 일을 써서, 남

잇더니, 곧 이 밖의 명이 조를 하여, 의  
논을 하여 잇는식, 거기 술금에 보고,  
그 원又편지를 써서 金鎔務官에게 보  
고하였더니 金鎔무관은, 내버슬을

아셔 그 主權을 諸國을 占領한 거시라  
나, 公明正대한, 裁判을 하시면, 김  
가가, 무식한 일과, 최가, 이하의 사  
람이, 죄업을 짓지, 분명히야, 무죄

● 萬民呈辭 ○ 관청판에 건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중의 원며 명의 남은  
뒤에 회군슈와 상지하는일이어서  
송도가 처음으로 와서 군슈를 열거

정호였다니, 허균슈을, 고창, 암살할자로, 숨김이 날려 갔다 하고, 숨쉬고 슈는 무슨 일인지, 아전벽, 맷사람이 서울을 나와서, 지관소에, 정호였다니, 다시 저서 할하여 기록

何以報恩  
아라스가서 실역 변이

中華民國十年十月  
 十五日  
 圖書館  
 藏

李洪萬、任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李昭凡

말이다 리  
다지 계 도

본진으로  
하여 조처  
되닷 난지  
라와 진압  
고이 동을

장종현 장  
비현 지  
여갈아티  
지조부족

고창창은  
나의 크게  
카예상스  
아히을

라 십 여 한  
점 나 인  
니 라고 할  
장 슈 하나 단

이 단



원슈이 경광을보고 군사를급거두  
이 난 흉년에 장슈마옥이라자연

二月△任咸鏡南道觀察府主事  
（別任五等）十月三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陸 大 三 十 日 (壬辰)

기무관학도, 식로모

그런데 요, 죽은 스승이, 일명이라 하

소복을 입고 난 후에 편증되고 자식비

스하나, 산

醉仙窟志 序

스 합쳐, 형남정세, 명의, 여적, 고, 오시는, 향여석, 술이, 되 취향여석, 길가의, 서서, 뒤향하는, 형인을, 보고, 무단의, 욕을, 하며, 광언망설을, 하니, 금술이, 그모양을, 보고되되, 금지하고저, 한즉, 그것들의, 도로, 술금을, 욕하는지라, 술금이, 인하여, 김스협의, 집이, 를들어가서, 주인을, 권하여, 그향인을, 금지하여, 한즉, 주인도, 또한술이, 되 취향, 광언망설이, 되 단한지라, 술금이, 그모양을, 보고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인하여, 그주인과, 하인세명을, 다잡아가지고, 경무중서로, 갖다, 향다라

●男盜女傑

이제, 춘풍의 안하박씨, 남궁을 보되  
고, 두어 달이 되막, 소식을 물나, 주야  
로, 기다리더니, 일일은, 종편에 드르  
니, 춘풍이, 샅고 간, 물화를, 물수이,  
추월이라 하니, 기성에 게, 아나고,  
진되 무로 하여, 인하여, 고공이가,  
되였다 하거늘, 박씨 이 말을 듣고, 홀  
격어, 막히어, 엇지 할 줄 몰나, 반향을  
괴절하였다가, 정신을, 수습하여,  
설분할 계교를, 빅반으로, 생각하니  
너 의 몸이 되여, 엇지 할 길, 업는  
지라, 심중에, 헤오되, 나가, 갖가 온  
천척이 업고, 다 만아는 비, 겨장한  
김판서 닥셀이라, 그 뒤에 가, 호소하  
하하니, 소나히, 오입이여, 폐집에

불빛치빛최고인적이엿서수군개

리근소리, 잇스물, 고이혀녀, 사  
비로, 향여곰, 가마니, 엿보라후니,  
시비, 당, 멧히, 숨어, 엿보며, 드르니  
, 춘종의 안희, 장독뒤에, 축을받기  
고, 정화수를, 소반에, 받쳐, 놓코, 스  
면을, 소해하고, 정할웃술, 입고, 무  
슈비레후며, 암축후노말이, 이우턴,  
김판서더감, 평안감스, 향시개후여  
달나후거늘, 시비듯고, 다라와, 그  
연유를, 낫았치, 고후니, 정경부인이  
, 반산반의향여, 시비를다리고, 찬  
히, 가, 구시향죽, 과연, 시비의전설  
과, 오거늘, 심중에, 외아후여, 그이  
흔날, 시비를, 보되여, 춘종의, 처를,  
를니오라후여, 그구절을, 무른지, 박

차, 그리지 못하여 전후 수말을 고  
쳐, 향모, 누워도 우하거늘, 정경부의인  
한인, 일변, 그성의를, 그후 이년의  
도일변, 그정세를, 가궁이 되며, 조  
말노, 위로알, 만일, 해, 정성이, 지극  
하여, 평안감을, 후실전되, 님, 맛  
당이, 구녕하여, 주선하리라고고, 앞  
간전곡을, 주어보이니라, 그후, 박씨  
일정지심으로, 밤마다, 도축하더니  
병현의, 감동하사, 김판서가, 과연  
평안감을, 할지라, 박씨, 기부를  
이기지 못하여, 죽시, 김판서집에가  
정경부의인게, 현하하니, 정경부의인  
과, 일가상하, 다, 박씨의 정성으로,  
하느, 주선되라하며, 충찬하더라

(未完)

(未完)

● 龍眼老樹

청국복병에서

[illegible]

懸賞募詩

本社茲出題募詩本欲以扶詩教之廢而導治化之  
萬一登徒鬪綺靡競才華之具云哉大方君子等勿  
吝授寄

一  
秋夜讀書

一七言律體 投稿者須將題目  
一詩事評定甲乙以次錄於本報  
者題以本報  
一投稿者須及期想者不採  
一稿本必以楷字寫之  
一投稿者必須明誌氏名別號居地及  
記別說者不採

漢城新報社編輯部

社  
告

|        |        |        |        |          |          |
|--------|--------|--------|--------|----------|----------|
| 新開紙價目  | 一錢三分   | 一兩二錢五分 | 三兩五錢   | 六兩七錢五分   | 每月郵費七錢五分 |
| 新開紙一張價 | 一兩二錢五分 | 三兩五錢   | 六兩七錢五分 | 每月郵費七錢五分 |          |
| 一朔間    | 先給     |        |        |          |          |
| 二朔間    | 先給     |        |        |          |          |
| 六朔間    | 先給     |        |        |          |          |
| 地方諸讀者  |        |        |        |          |          |
| 廣告價    |        |        |        |          |          |

이 요 榮致及回數로 주쳐서  
슬덜 밋고 此 讀者 告 白 王 前 金 一



野津陸軍大 ありんと云ふ  
ルビツキ氏 ●疑心暗鬼 一昨日原公使の出發が龍山出  
船の都合を以つて夜分を爲りしと疑心榮々論

よて人に對しては決して譽を加ふることも  
なし蓋し虎にも能く靈智ありて聲上げ類  
不するときは啗に其餌を得る能きものの  
人の世に類はら  
方に擲る所あり

彈丸所及ニ

湖の霧雲探偵... 往來に便あり...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霧雲に著る...

輸入特別調査... 這是其前より依頼により當地我商會... 附いて調査報告せしもの、要領を左に掲げて、以て營業者の參考に資す。

燐寸

三年間輸入額... 燐寸の輸入... 燐寸の輸入... 燐寸の輸入... 燐寸の輸入...

洋傘

三年間輸入額... 洋傘の輸入... 洋傘の輸入... 洋傘の輸入... 洋傘の輸入...

縫紉糸

三年間輸入額... 縫紉糸の輸入... 縫紉糸の輸入... 縫紉糸の輸入... 縫紉糸の輸入...

佛壇

三年間輸入額... 佛壇の輸入... 佛壇の輸入... 佛壇の輸入... 佛壇の輸入...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佛壇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縫紉糸

縫紉糸の用途... 縫紉糸の用途... 縫紉糸の用途... 縫紉糸の用途... 縫紉糸の用途...

洋傘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洋傘の用途...

佛壇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佛壇の用途...

### 日本郵船株式會社 廣告

支海丸 十月六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薩摩丸 十月六日出帆 五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肥後丸 十月八日出帆 七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長門丸 十月八日出帆 即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兵庫丸 十月八日出帆 即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豐島丸 十月八日出帆 即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廣告

明石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筑後川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信濃川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木曾川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正重丸 十月八日出帆 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京城 莊司回漕店

一等 壹圓

二等 七十錢

三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東京館

和便

和便

和便

和便

和便

和便

和便

### 御旅神戶屋 廣告

第一 貳拾六號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拾貳圓

但室內御熱覽ノ上御相談ニ應ズ

○藥局方和漢洋藥廣告

各位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御用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商等厚謝意

### 廣告

客月廿五日ヲ以テ國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藏

大臣ノ認可ヲ得テ翌廿六日ヨリ株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間此段廣告

致候也

明治二十九年十月

第一國立銀行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小袖綿肩掛

首環卷絹手巾

高帽子シヤツ類

ゴム靴半靴

柳行李支那革判

馬具其他種々

外ニ建築用布海苔

右ハ今般着仕候ニ就テハ特別廉價ヲ以テ

販賣致仕候間諸君ニ御愛顧ノ程幸願上候

京城泥現

鈴木大阪堂

雜貨買并

大販賣

慶田出張店

慶田出張店

慶田出張店

慶田出張店

當銀行ハ本

前特別區分

三株式會社

出資有之御

相成度此

財目本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紙幣消却



田  
組

大阪 第五十八國立銀行

新荷着仕り候間大

一肥後  
名產

朝鮮鮎

抑毛此ノ朝鮮鮎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味ノ美好ナル速ク他品ノ及バ所ニアラズ且ツ幾日デ堅レシ雖モ腐敗ノ患無タ兼テ一箱ヲ蓋ヘ置ケバ坐石ノ茶葉子トシ最土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テ試用サ玉ヘソコトヲ冀フ

朝鮮國京城泥現

小林菓子製造所

一山城御玉製一斤金壹圓五拾錢ヨリ五圓迄御玉煎茶一斤金拾六錢ヨリ壹圓迄御濯茶極摘。廣葉。上別儀。

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送シ次第早速挽上メ御注文ニ應ル申儀

石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諸彦倍喜ノ御愛求ナ

英フ

茶店 京城泥現

河村至誠堂

商品爲仕入日本へ渡航仕候遠京坂地方へ於て購求ノ御用多少ニ不限本月限御申込被爲在候

九月七日 京城力武 石丸鹿太郎

旅留へ大阪信濃菊西詰西へ入。瀬川駒三郎方々セメント 著荷勉強大販賣

新聞定價

一 月 貳 拾 五 錢  
三 箇 月 七 十 五 錢  
六 箇 月 一 百 二 十 五 錢  
五 箇 年 式 拾 字 附 電 報 掛 金 十 兩  
紙 目 行 費 及 同 郵 費 金 十 兩  
料 金 以 悉 舊 割 金 以 テ 刊 中 受 取 事

發行所 漢城新報社

發行兼印刷人 莊日發 鄭昌

編輯人 島田 繼 博

朝鮮國京城南馬會街峰崎契







韓城시씨의 사직소비답은, 別項과 지  
 호야거니와, 도예의 소문을 들으니,  
 동씨는 지작일 淸驪야, 원우상씨를  
 南星관찰스스요, 니쳐연씨를, 하  
 성부관윤이요, 니용의씨를, 농쌍공을  
 부첩관으로, 임명하시게 하야 늦고  
 兎別項에, 귀직한 사직소를 받치고  
 淸安을 나가서, 본국으로, 도라가  
 다더라

에 지방관더러, 허공스 일행이 가니  
드, 잘보와주고, 左便官 啓言 주어  
라고, 훈령내였다더라

● 申氏 辭去 작일에, 신씨선씨가,  
시골집으로, 도라간즉, 성균관학도  
다리, 하즉차로와서, 말승되당초에  
, 학도드리 입학호듯진즉, 전혀되  
감만맛고, 입학하여맛참니, 호함의  
잇슬출아라드니, 불의에되감, 啓  
귀하여, 시골노가시니, 우라우리를  
, 이되부처, 장차쓰리오할며, 호호  
누도할며, 호조치아닌빛치있서, 그

韓의 諸將은 이 「을」 에는 사방 사방  
 아군 뒤가 주둔하니 「하와나」 읍을  
 防禦하는 병정은 포병인 砲圍수십  
 군의에 砲臺를 지었고, 기둥 「물러  
 와」 브린닷브 「하와나」 의, 각각  
 구하번은 砲臺 砲臺를 지었고, 근처에는  
 廣大하야, 일백삼십사년 팔월 때, 여  
 국 諸將가 하와나를, 격파 하얏을 때 후  
 陷치 못하든 곳이라 하니, 사방, 잘 보  
 건디, 그 견고함 미, 비할지 업더라  
 ▲西班牙軍之狀況  
 西班牙兵인 지라, 그사독은, 처치, 병전

제 되면, 규  
로, 규구  
천거호야  
야국셔을  
덕, 우리  
말의야마  
간을, 조  
지안케는  
얏는지라  
버서나려  
국에부터

핀영준씨는, 저작일에, 문안드리외  
서, 표등집에 드려논디, 동씨가入來  
은, 그저, 차례를참예하러, 그러다  
하되, 락부주대선을흔다더라는말  
이果然하야, 남듯더라

방관르리, 극히 민망하더라  
● 法廷刑罰 金宗煥等, 支判을  
의, 罪단하야, 선고서을, 어적게, 정  
사하였다고 하며, 읍이 병과, 니제  
은, 표변이 불신하야, 맛당이 증여하  
지되고, 사무던 신중계, 고호하니

와 모음이 忠勇호야, 도공도, 불평케안  
 너거, 각자 화합하느니라, 그러하나  
 公邦 驍勇, 정두공미, 서반아 국에는  
 不遠征 公天候가, 사나와서, 공  
 패되는거 신자라, 서방, 찬히, 서방  
 아군의형상을, 잘보고, 또이야기를

하야 달나  
정부는  
員은 작  
그 일 절  
하야 정  
이 사 안

혼씨의 계명 조서는 **처분** 계시되  
어찌에, 가히 되보치 못할 듯으로, 별  
처분 계신 고로, **장차**, 들어와, **향공**  
홍대이라

모수가 잇난고로, 다만유형을시행하고, 피고형제인은, 다장찰방면하고하며, 당초모함준거선, 극히참고하다하드라

● 擅發大行 부산에녀는, 근리, 두

하야, 그心事며, 가라 법절을, 무려로  
니, 감히, 불평케 내기든 모양이 업스  
므로, 나단, 크게, 감동하얏슬 비라,  
또 그 법절은, 몸이, 과히크자니 하  
되, 후히 聖健 하고, 성품이, 민첩하야

미국회성  
의, 전년에  
말이더니  
으로, 도마  
웃고時機나

티신은, 니 율용씨가, 장차 할 다 하고  
일설은, 궁니 티신, 니 지순씨가,  
할다 할요, 궁니 부티신은, 민영환씨,  
가나들의 의서, 곳 할다 할라

여이, 퍼流行을 다더라

● 羈寇惡行 최룡스난, 박승지기야.

씨, 친손이, 목천오동촌이라하난

곳, 애잇난디, 그근처에, 화척이

치하야, 치단일제, 목천오동촌으로

그 艱苦 穴호인을 잘 참아 견디고,  
 炎天 赫灼한 날에도, 보병은, 무거운 鎗  
 彈藥을 가지고, 날마다 鎗을 싣고 길을  
 行軍해야 된기나, 참감동한 옛날 벼라  
 들으니, 전에 國과, 國과 서반아

命하야, 나  
므쇼 몇, 아  
불너서, 국  
엘」이란 공  
에 叛賊를,

동장공부첩관李木淵씨는, 한성부윤으로轉任되셨더라. 그리하고, 니용의씨가, 그첩관을흔다는, 소문이니, 이첩관은, 이첩관이다.

이 그 찬손을 파서, 머리를 버혀가고  
방을 부치되, 돈 십오만 냥을, 가지고  
와서, 머치를 차자가 लाख 여천 박스  
지집에서, 그 머치를 차지 않고, 돈을

내가, 데얼과이니 기고, 감동하든거  
는 꾀뵤인디, 그 꾀뵤은, 날 마당, 아 무  
썩을 떠 나셔, 일 뵤 꾀 심 리 나, 근 이 뵤  
리 기 뵤을 마 나, 나 뵤, 볼 꾀 사 뵤 뵤 뵤을

바(남초)  
서데일되  
나라버리  
국정부를

其 피스경을 보고 호령나온다  
 그 장들은 지나온 그 문에 神戶港々  
 지드러 보니 여 두엇다가 本월 초하  
 른날에 神호를 떠날 肥後丸 比를 두들  
 려하니 구박가豫定호대 로薩日  
 에 인천으로 나오게 드면 本日은 부  
 歸着호실터이니라

● 兪牽一室 廣元도、보상셔유신이  
라 송는사름이、함경도원산、가셔  
을화、수천량의치를、스서、가치고  
거월이십삼일밤에、삼방권유집에  
들어자다가、회덕수삼언을、만나、  
가치고오든물전、수천의치를、다일

뒤셔, 물도 먹지 안코, 미일, 그리하  
 논거시니라  
 ▲東立臺之狀 兎 幸臣韓民이, 판난을  
 짓든근 본은敵地新聞紙等에서, 낫든말  
 은信僞가, 분명치아니하되, 죄괴호  
 두가지일로, 낫든거시리라  
 초치는지작년 ㄹ을며 亞弗利加 ㄹ나

고 그 판나  
신문지로  
「亂」戰亂  
리 「규곡」  
형으로 중  
리 광고를

에, 그 지향야 곧, 아라사 황제지  
 만례를, 참에 케 帶派와 얹는, 도선공  
 사 민영환씨 일행은, 그 典禮거행 후에  
 유공의, 각 처를 다 巡幸야 있

의오민동곡을더라더라

●圭田嶺征討記

西國領圭田嶺叛亂의모양은전보며,  
잡포세, 자주, 괴록을얏거나와,  
率兵討伐한것을, 이알고자한다.

리야」翺와亞弗利加沿岸에 잇는, 서반아  
국, 부속 땅에, 날나났다고 하야, 본  
국 정부는 잔정개「구구」구구를 보되  
고「구구」金鵬에, 불과 병정 오천 명을  
남겨留守시키든 일과, 들지는亞弗利

▲獨立軍所在  
세워내었다

에셔나(亞細亞)의 국경을 보았을 때, 하공대 일행은 아사(亞沙)와 관원(官員) 허덴(許登)氏하고, 함기(咸基), 육노로西比利亞를 경유하여, 회국(回國)케티야(凱提亞)나라 사난부대선(沙難夫大船)은 沿道各地

일전야, 도라왔든 사람의게, 바로  
뜻는西班牙軍及獨立軍의 실정을  
각을을니오

▲하의나 府에잇는西軍隊

戶口

加浮岸西班牙領영에, 날나니, 진저  
하러, 병정을 보나케 가면, 그國費가,  
허다하들고, 그돈은, 千兩 緡에서, 내  
라고 할라 한즉, 2만히, 잇글수 업는  
대스, 라 본리샤 방내는 租稅라고, 담

규범, 모든  
스승의 품  
袍를 입고  
와나옴

시방, 서반 당하기 어리운 데, 다시重稅를 과부  
과나, 음을 캐 되면, 규곡島 사룬은, 살지 못하므  
로, 규곡島 각 고을에서, 한 명씩 委員을  
출, 물러, 천거 하야, 본국, 「미더릴더」(서반  
의, 각 항 야국 서을) 노보 되고, 원청 하야, 판난을  
할 때, 영 말의 야마重稅를 과부케 되야, 십칠 년  
간을, 조심 하고, 본국 명을, 오기,  
자한 케느려 왔스되, 형 세어 례게 되  
얏는 지라, 그러 하되, 서반 아屬領을  
버서 나려고 하느거 시 안코, 서반 아  
국에 부터 잇서서 本國自治制를 쓰게 許可  
하야 달나를, 청원 하얏더니, 서반 아  
정부는 허가치 안히다고 하야, 그 委  
員은 작년 정월에, 도라와서 船人에게,  
그 일 절범 스를 보고 하니, 인심이 驕然  
하야 졌더라

을, 무려 보  
 양이 업스  
 았슬비라  
 지아니하  
 민첩하야  
 권되고,  
 무거운統  
 심리길을  
 았슬비라  
 파서반아  
 行重을 하  
 었다하되,  
 이단, 이단  
 이단, 이단  
 미국화성돈으로亡命하야, 가있는  
 딕, 전년에叛亂이났슬때, 그판도參謀  
 官이더니, 일을성공치못하야, 미국  
 으로, 도망하야지니는석, 이과별을  
 두고,時機나왔더라고, 전년판난때亡  
 命하야, 남미국에잇는前叛將, 무기사  
 득, 샐몹, 안도니, 무세오, 란사람을  
 불러서, 규부鶴로보내고, 그고함, 비  
 엘이란곳히서, 작년이월이십스일  
 에叛亂을, 세워내켓더라, 그후에는  
 全鶴로蔓延하야, 전답에잇는, 사탕이  
 다, 남초(사탕과, 담바가, 규부鶴에

동하는거  
당, 아모  
근이백  
십분間을  
그식, 가온  
그리하  
판난을  
서, 나든말  
죄과호  
加, 나  
서반아  
군영으로, 환송하겔노라운하

▲獨立軍所在地并戰數  
작년 이월이  
심사일에 「빅엘」이란 곳히서 叛旗를  
세워내엿더니 그후에, 츠츄全島로  
蔓延하되, 지방은 다와나, 산지은 硯  
、구브, 구단자스, 유회썬스, 갈데는  
스」등의各島은, 서반아군이, 견고할  
絶對를민드려서, 른새게적기나. 「하  
와나」島又는되는, 종보와도, 종용  
스를보니  
오천명을  
지는亞弗利  
니, 전쟁  
그國費가,  
船에서, 내  
슬수업는  
라도, 담  
와나」島又는되는, 종보와도, 종용





死の中に一生と  
所て韓人一同  
巡檢等にハット  
及び其門客郭某等の捕縛せられて地獄の警務  
署に送られたることは已に本紙に記せしが在  
郭某が發に仁川及び其附近の人民に發したる  
政の如し巡檢一  
連れ差向ひし  
がに詳易し最初  
木の葉の散る  
へて二十六日午  
●警務署と警察  
は僅か十四五  
は悉く前日来  
十四五名の巡  
し居たりしが  
追ひ拂ひつゝ  
加し日本領事  
各處に群集す  
の壯漢あり援  
に一人の額を  
力敵せしめて  
入るもあり或  
多くは支那居  
一人は捕へら  
る所なく殆ん  
に海關長の故  
那居留地海岸  
を今に見出し  
通るゝ處を  
海中に飛び  
雨風の投石は  
しく弱死を遂  
るものありと  
一を潰ぎ出し  
にて衆徒に捕  
八人及びし  
取り保護しけ  
警務署の帽子  
に荒れて一  
夜元山街にお  
巡檢の住居敷  
地内にあり朝  
しも後の難儀  
彼等の言ふ所  
警務官の餘り  
とせし署長  
に出訴せしが  
より彼等は終  
日本居留地商  
商業を停止し  
追まら終には  
至れり而して  
同署長は總巡  
如く賭博犯人  
を以て本官を  
得る留地との  
めより留地の  
ゆるき埠頭警務  
に當る警務人  
の病院に入り

治政中より云ふ  
●自由民衆の聲  
仁川ある前警務官崔某  
及び其門客郭某等の捕縛せられて地獄の警務  
署に送られたることは已に本紙に記せしが在  
郭某が發に仁川及び其附近の人民に發したる  
政の如し巡檢一  
連れ差向ひし  
がに詳易し最初  
木の葉の散る  
へて二十六日午  
●警務署と警察  
は僅か十四五  
は悉く前日来  
十四五名の巡  
し居たりしが  
追ひ拂ひつゝ  
加し日本領事  
各處に群集す  
の壯漢あり援  
に一人の額を  
力敵せしめて  
入るもあり或  
多くは支那居  
一人は捕へら  
る所なく殆ん  
に海關長の故  
那居留地海岸  
を今に見出し  
通るゝ處を  
海中に飛び  
雨風の投石は  
しく弱死を遂  
るものありと  
一を潰ぎ出し  
にて衆徒に捕  
八人及びし  
取り保護しけ  
警務署の帽子  
に荒れて一  
夜元山街にお  
巡檢の住居敷  
地内にあり朝  
しも後の難儀  
彼等の言ふ所  
警務官の餘り  
とせし署長  
に出訴せしが  
より彼等は終  
日本居留地商  
商業を停止し  
追まら終には  
至れり而して  
同署長は總巡  
如く賭博犯人  
を以て本官を  
得る留地との  
めより留地の  
ゆるき埠頭警務  
に當る警務人  
の病院に入り

此微の一たび飛ぶや忽にして應ずるもの二百  
餘名同地居る釜山人殊に多かりと云ふ是  
れ之が主謀者郭某の釜山人なると釜山人は他  
朝鮮人より此れに就て外國の事情に通ず  
るもの多きに因るからんか  
●警務官と交番所廢止  
當邦の警務官  
の職其前に行はれ居る趣は通の紙に記  
せしが警務官の職を廢止し巡檢の定員を四  
百名に減じ之れと同時に現在の六署を十二署  
に増し各署の警務官を廢止して巡檢三名を置  
き又交番所は悉く之れを廢止し各巡檢をして  
晝夜を分たず巡行せしむべしとの議を唱へ居  
るものありと  
●警務署使丁の減員  
警務署にて警務官の  
數を減すると同時に同署市中各署及び監獄署  
の使丁をも減する由にて之が爲めにや一昨日  
以上各署の使丁都合百三十五ばかりが警務署  
に召喚し人物等の審査を爲せやと云ふ  
●定州郵遞支司の開設  
去る五日より平安  
北道定州郡に郵遞支司を開設し京城及び定州  
間に毎日一度づゝ双方より郵便物の郵遞を爲  
すこととあり  
●醫學經緯の取返し  
醫學經緯と申筆善氏  
の著は學相たりし時成均館の生徒は勿論各  
部の高等官へも配付し或は其他の人々へ發賣  
せしむるも少からざりし由あるが頃日來政府  
よりは右の人々に付さ之が販賣しを爲さしめ  
居れりとの傳あり

●民衆選言せんとす  
今春咸鏡道利原郡の  
人民騒擾せしとき同郡守と番官連通せしを以  
て其の隣郡である端川郡守一時同郡守を兼ね  
騒擾の事實取調への爲め同地に赴きしに人民  
百餘名は夜も乘して之れを襲撃せんとせし  
うば端川郡守亦其任地に逃げ歸り更に同郡  
の壯丁を派して民衆の巨魁三名を捕へ來ら  
め之れを嚴刑に處せし其餘數名端川郡守  
の處置を不當なりとし此始末を内部に上申せ  
んとて再昨日入京せりと云ふ  
●水原原州に入る  
一昨日江原道原州郡より來りたる者の語る所と聞くに此の郡内五  
十餘名清風忠州等の地方に暴行し其の被害  
に及ぼし夜半民衆を劫掠し民三十名を擄  
二名と殺害し許多の殺戮を遂行して立ち去  
たりと云ふ

●木川の地獄  
忠清南道木川地方にも亦た  
頃來三群の火賊來受し到民民衆を劫掠し居る  
と聞く  
●見送人諸氏の歸京  
原公使見送の爲め仁  
川に赴きたる日置書記官一昨夜急遽京東  
にて歸京國分山吉の二氏は水路を取り昨夜  
歸京したるがなり  
●明治生命保險會社  
の中濱醫學博士が小  
松坂太郎の二氏は一昨日入京巴城館に投宿  
●大日本私立衛生會支部  
仁川に於ては大  
日本私立衛生會評議員中濱醫學博士が今回明  
治生命保險會社被保險人診査醫として來韓せ  
しと聞く該衛生會支部を設立するの發起  
去る三日其協議會を開き遂に創立委員として  
孫源順事代理の指名を以て居留地の重たつ者  
十名を決定せり

●朝鮮學生軍艦を見る  
釜山開成學校の生  
徒三十餘名は同校教師を引率せり去る月三十  
日同港に碇泊し居る帝國軍艦と一瞥し  
艦員より武器其他艦内の裝置を付き懇切なる  
説明を聞き且つ茶菓の饗應をも受けたりと猶  
は學生生徒の父兄其他朝鮮警官等二十名は  
かりも同行せし由  
●天然痘の流行  
釜山に於ては近頃天然痘流  
行し居れりと云ふ  
●九月中の郵遞物數  
去月中漢城郵遞司に  
て取扱ひたる郵遞物數左の如し  
集信 六、七〇五 分傳 四、二二四  
發達 六、七〇一 到着 三、九七六  
計 二一、五〇六  
之と前月に比すれば總數に於て九百五十九個  
を増せり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儒學經緯の要領  
(承前)  
吾人は是より進んで更に各篇に就き略々大  
意を抄録し併せて批評を試みんとす  
理氣 此れ書の首篇なり著述の意本と新道  
の無を變り學者の蒙を啓かんとするに在れば  
其の言を立つる必らず大源頭の上より説く  
ざるべからず是れ此一篇なる所以然なり  
申氏以爲は  
見理與神、非聖賢不能識之、是故聖人罕言  
性命、而今之儒者開口便說理氣、高談大言  
以爲問學之大端、斯文之能事、縱使億中、  
猶無益於實學、而徒長其外自勝之習、初學  
只當略識其名目、而徐使自得可也  
と此の篇の説く所難く名目を示すに止る  
と致へて高遠の論をさるる首に理と略説し大  
次に太極、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心、次に性、次に氣、次に神、次に性、次に  
天地四象八卦を引き次に河圖、洛書、河圖四  
象八卦圖を説き次に理、氣、形、神、性、心、性、  
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心、性、  
の二面にわがが如し  
理、氣、形、神、性、心、性、心、性、心、性、  
之所流、理亦漸而變焉、萬物之生、稟氣各  
異、清濁分焉、美惡衆寡

### 日本郵船株式會社 廣告

**肥後丸** 十月八日出帆(七日入港) 芝罘、太沽、牛莊行 保

**長門丸** 十月八日入港即日出帆 長崎、釜山、元山、浦項行 保

**玄海丸** 十月十一日出帆(同廿一日入港) 芝罘、天津、大連、青島、神戶、大坂行 保

**仙臺丸** 十一月三日出帆(二日入港) 長崎、香港行 保

**兵庫丸** 十月十四日出帆(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保

**豐島丸** 十月十四日出帆(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保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廣告**

**隆盛丸** 十月十一日入港(同十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明石丸** 十月十一日入港(同十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筑後川丸** 十月十一日入港(同十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信濃川丸** 十月十一日入港(同十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木曾川丸** 十月十一日入港(同十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坂行 保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佳ノ江丸** 十月八日 午前六時出帆

**正重丸** 十月九日 午前六時半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旅 東京館**  
上等 壹圓  
中等 七角  
下等 五十錢  
三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 御旅神戶屋 廣告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但室內如欲寬ノ上御相談ニ應ス

**和漢洋藥廣賣**  
藥局方和漢洋藥廣賣  
各埠、御愛顧ニ依テ、盛商等厚謝  
一、番強壯候間不相變多少ニ限御注文  
御用ノ利便ヲ希望仕候  
日本大坂  
東區  
町丁目  
成尾安五郎

**一打綿製造 卸小賣 廣告**  
右ハ今般弊店ニ於テ開業致シ得別廉價ヲ以テ  
販賣可仕候間多少ニ不拘御注文ノ程奉希上候  
京、城、長、河、村、支、店

**薩摩煙草卸賣 (刻捲共)**  
弊店ノ煙草ハ從來御地各店ニ於テ賣別キ居  
候、御愛顧諸君ノ御引立ニ依リ、日増シニ繁昌  
仕、難有御禮申上候、御引立今般一層強壯品立  
改、更且、荷、荷、等、至、極、可、得、早、速、送、附、仕、候、間  
多少ニ拘ヘテ、未、當、々、御、注、文、奉、願、上、候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煙草商渡邊出帆店 川畑勇吉

**諸非常直下廣告**  
小生、醫、術、精、進、爲、平、壤、地、方、ハ、出、張、致  
居、テ、候、處、今、般、御、宅、仕、候、ニ、就、テ、ハ、一、層、工、業、ノ  
進、歩、致、御、宅、非、常、ノ、直、下、日、本、同、價、從、來、ノ  
凡、以、半、格、ニ、御、用、ニ、應、上、等、ノ、影、刻、仕、候、間  
御、々、御、注、文、ア、ラ、ン、コ、ト、也、

**追テ印材等** 同業者知費全機極々安價ニテ  
賣別キ且、雜貨ハ前價ヨリ割引販賣致候也  
東京 印刷師 小林好文堂

**第一國立銀行**  
客月廿五日ヲ以ツテ國  
立銀行ノ營業滿期ニ付大藏  
大臣ノ認可ヲ得テ  
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  
シ資本金ヲ四百五十拾萬  
圓ニ増加シ營業繼續仕候、此、段、廣、告  
致候也  
明治二十九年十月

**新荷到着**  
夜着布團座布團  
小袖綿肩掛  
首環卷絹手巾  
高帽子シヤツ類  
ゴム靴半靴  
柳行李支那革判  
馬具其他種々  
外ニ建築用布雜貨  
右ハ今般弊店ニ於テハ特別廉價ヲ以テ  
販賣致シ候間、御愛顧ニ應、御、注、文、奉、願、上、候  
京、城、長、河、村、支、店 鈴木大阪堂

**雜貨并 買取 業**  
弊店ノ雜貨ハ從來御地各店ニ於テ賣別キ居  
候、御愛顧諸君ノ御引立ニ依リ、日増シニ繁昌  
仕、難有御禮申上候、御引立今般一層強壯品立  
改、更且、荷、荷、等、至、極、可、得、早、速、送、附、仕、候、間  
多少ニ拘ヘテ、未、當、々、御、注、文、奉、願、上、候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煙草商渡邊出帆店 川畑勇吉

**生命保險 醫學博士中**  
今般東京本社診察醫、醫學博士中  
濱東一郎 社員小松敏太郎ノ兩氏出張  
本日ヨリ來ル十月十一日マデ五日間、每日午前  
八時ヨリ午後六時マデ當地ニ出張、診察ニテ  
体格診査ノ上、直ニニ契約致候間有志ノ御方ハ  
至急御申込被下度候  
規則書御入用ノ御方ハ一通呈可仕候  
明治二十九年十月七日

**第一銀行**  
追テ中濱博士ハ御診察ニ乞ハント欲スル  
患者ハ一應當店ニ御來談アレ

營業用什器 金銀有高 明治二十九年 大阪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布團 革判 靴類 巾掛

布團 革判 靴類 巾掛

布團 革判 靴類 巾掛

阪堂 種々 井出 店商

阪堂 種々 井出 店商

阪堂 種々 井出 店商

士中 館 井出 店商

士中 館 井出 店商

士中 館 井出 店商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銀行 拾萬改稱株 此段廣告

新到荷蘭着御披露

● 鮮魚佃煮 ● 海苔大和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ぶ ● 小鳥大和煮

● 船來ビスケツト ● 瓶入洋菓子數種

● 東京カル、ス煎餅 ● 月見

● 京都泥鰌 ● 京城泥鰌

第六會正風集

題菊夜寒

豐秋園瑞穂宗匠樂撰

十月十日限●預定全月

十一月翌日漢城新報

揭載詠草ハ居處推察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投込所 漢城新報 正風會

朝鮮鮮鮎

鏡眼種各銀金

賣販手一國鮮朝

店支辻 峴泥 ● 店商辻 洞貞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新茶

小林菓子製造所

河村至誠堂

發行所 漢城新報社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 此他第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ト候ニ付



漢城新報

刑發日隔

德源府奇禍

(陽曆九月三十日通信)

德源府으로 오니 사림이 있어, 함고하고...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차씨족인을, 막고보지아난소문을... (Continuation of the article)

러더자고아다지심하니, 그슈일후... (Continuation of the article)

內府特 主 任 道觀察 常 (以上勅) (Bottom section with official titles)

시여 서, 고사하고, 무죄훈군수를 상을 거 삼니  
로, 한, 후군을 기다려, 뒤적 후난 거 시 가  
잇스, 홀가 후 나이다, 또 과 원슈난, 하날  
혹질, 라 닌사람이라, 석문과 지리를, 선을  
혹홀그, 에서, 비호고, 괴력과 용명이, 당호

(5)

세상에 사람이, 무릇 덕소사하고, 시  
지나 불니와, 세지득실을, 헤아린 연  
후에, 형한 난거 시을 커날, 아즉 일시  
철과 지용으로, 전후을 생각지 아니  
하고, 싸호기만, 일삼으면, 득실은  
고사하고, 우죄 혼군수를 상할거 사니  
, 후군을 기다려, 뒤적한 난거 시  
홀가흔 나이다, 또 광원슈난, 하날  
러난 사람이라, 천문과 지리를, 선유  
에서, 비호고, 기력과 용명이, 당호

피왔거날 허여사되, 총번에 군스십  
만과, 망장벽여원이, 지금이 골을에  
와서, 성을앗고 명일은, 일즉 화성을  
번을거사니, 군스를조발하야, 적세  
을막으라 하섯거날, 이 곳은 화성이

○陰曆丙申九月 小 初四日 (丙申)

거판월십스일에 불의역 화가일어

난, 모양이 있거늘, 마음의 외로움  
그갓가온곳에 가서, 보랴고 한줄  
그사름이, 머리을둘쳐, 외면하거늘  
잠깐유서하와, 그사름에, 형용을  
본줄, 진실노여수한, 사름은아니  
라, 수죽이급고, 살이분거거늘  
안마암으로, 반상간필사, 호식난의  
하든사름이라, 자서이알니라하고  
비회호즈음에, 서로점면한줄  
에친분이난사름이라, 이두사름이,  
본디후표아문원역으로, 고당화  
에, 수십년을, 의식을걱정아니하  
외에, 가난한거사, 무심물건이

[illegible]

지, 아 자 못하더니, 지금의 서반, 한  
형, 을 하야, 사 립도 아 니 요, 귀 산 도 아  
니 어 날, 웃 자 말 야 아 니 하 리 오, 들 리  
여, 말 요 드 러, 손 을 잡 고 일 으 디, 그  
가, 평 일 에 부 요 하 더 니, 지금 웃 지  
요, 이 지 역 의 이 르 려 나 요 하 리, 그

● 妻妾可憫  
거울보예  
진영하야  
에) 탁지  
슈무일품

양인이, 수괴하며, 탁식하며 글은  
간오년 이후로, 후토로며든 구실을  
다 일코, 가게가 할수을난지 경을과  
니, 처자가 고히며, 일신인용난  
하기, 어려운코로, 사중구신지도로  
양인이 서로의 논하고, 간신이 청중  
을하야, 역소에 드려와서, 하로품  
을뻔미식밧다, 서호구하의, 그담부  
자식이, 우마와 갖디며, 압흔거설치  
일흔지가 지금숨일예, 뵈히구하

사찰이 짐  
등은 물줄, 다  
하고 저하  
사천의 천  
마, 다년 하  
●王蒸家聞  
수, 서  
도적이, 등  
히 취할 만

이라, 지금 잠간 쉬노라고, 장하에 안  
 젖노라, 전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  
 어지니, 이것을 지라하니, 김모가 그  
 말을 듣고, 비감하여, 술을 두어 잔식  
 바다 먹이고, 위로하고 도라와서, 그  
 이, 본디 실립현사람이 만커날, 하를  
 며 지금이야, 전제서 심비나 되니, 죽  
 차이 후로 난, 아스 할지, 부지기 수  
 라하더라더라

북서학지동계 한양

한나히, 이  
염치하고,  
에, 나아가  
라, 혼가가  
못하고, 배  
열어식솔  
등으로, 이  
치하더라,  
●家奴盜物  
가에서, 나  
관동 금의사

반에집이잇스되집이 지반무의형야  
거외스경에이르러, 양식을으드면  
남기울고남기잇스면, 양식아읍서  
그스남모양의, 참후하며, 그집모  
양을볼작시면, 셋가리가니들. 며,  
장원은하나 토읍시며, 벽이 다잡혀  
저, 도모되. 저지형수읍안지다, 자갈

슈일을, 스  
든상노비  
에, 상노  
보냈었다  
● 男  
박사, 영  
오선거  
선하시



그대시 / 소원 / 가, 밤 / 주 수장 / 수로이, 아니요, 관가모 / 리한식 / 하야, 비부를삼아더니, 을며를며, / 그중남녀가, 도유하야, 부자거처라 / 니씨가스면으로, 광람을죽, 그비 / 부동이, 본단중으로, 다시속이니, / 되리라, 그스승을이, 그들을불니, / 되여갈오리, 네가본지, 나에제자라 / 이제나에야달이되미무방호지라, / 하고, 다리고갔다가, 일전에그스승 / 중의, 불일의셔서을왔더니, 니씨가 / 그중에입성하느니미를알고, 경무 / 청으로고하야, 그중을잡아가두고 / 제집중을일천니박양을, 시가동봉 / 하라, 니, 그중의중함을받쳐서일 / 노릇과, 니씨의집이가는를면하 / 앓다하더라

●妻妾可憐 / 계동스느, 김스찬이가 / 거월분예, 공전일만삼천여양을, / 집용하야, 주석잡기예, 다쓰고작일 / 에, 락지부에서, 공전을죽죽하니, / 슈무일품하야, 가히관남할슈가, 업 / 서서, 안하야, 도유하고, 순검이, 김 / 사찬이집의소가를, 예외싸고, 가장 / 등물을, 다슈해하야, 공전을, 충슈 / 하고저하되, 허반이나, 부족하고로 / 사천의처와첩이, 일야에, 통곡하 / 며, 다달할처스, 하고저하다라

●王孫聞之亦然 / 북부, 계동, / 스느, 서군필가에서, 지자일밤에, / 도적이, 들어와서, 여간짐을을, 가 / 히취할만하거시, 읊고로, 다만 / 하나하, 이는데, 이도적놈이, 불고 / 업치하고, 솟털, 베풀거늘, 아츰 / 에, 나아가보니, 솟치, 간곳업는지 / 라, 혼가가당황하야, 조반을, 짓지 / 못하고, 밥전에, 나와국밥을사다가 / 열어식술이, 난화하고, 자일에, 스 / 등으로, 이스하야가니, 그정상이, 금 / 치할다라고, 하더라

우선조와, 되에, 이권경식, 잇스 / 오니, 관촉하고, 소녀의, 지원을, / 맛조미라, 비라간되, 소녀의, 저세 / 를, 어엿비, 니이스, 원하느바를, 주 / 처시면, 그은단이, 백을난망이라, / 결초보은, 하오리이다하거늘, 정 / 부인이, 무르되, 내일을, 임의, 아 / 비라, 나, 맛당의, 설치하야, 주려니 / 와, 무슨다른말이, 잇는지, 소회를, / 말하라, 박시되와, 소네, 오라비, / 니이, 이슬눈의, 위인이, 당리하느고 / 문산이, 잇스와, 막비하느느, 거 / 함을, 하오니, 비장하느를, 시 / 주시면, 소녀의, 신중스를, 임의로, / 결쳐하느스오니, 특별의, 살피심을, / 브라느이다, 정경부인이, 그정 / 을, 그특이녀와, 하라하고, 판서를, / 되하야, 전후슈말을, 고하니, 판 / 현하, 그성의를, 감동하야, 박모로, / 병방바장을, 시가니, 박시, 대회를 / 여, 정경부인과, 빈비처사하고, 주 / 시, 그오라비를, 청하야, 제사할말 / 를, 다알고, 약속하후, 김판서, / 현신하니, 판서보리, 용되, 제누의 / 와, 여인일관하야, 조공도, 다름이, / 업스니, 가위, 난형난데라, 속하, / 처하야, 처나을일고, 턱일드정 / 할시, 박시, 미리, 천전에, 가노라하 / 고, 집을, 신실하스름에게, 맛기고, / 당일, 비장복식을, 의착하니, 아모도 / 알지, 업다라, 갑스를, 박하하야, 여 / 러날만에, 평양에, 일으라, 도입한 / 주, 삼일에, 공스를, 맛치고, 기성을, / 점고하야, 각각수청을들서, 병방 / 비장이, 주월을, 불니, 수청을, 당하 / 니, 주월이, 만심환희하야, 고리를 / 부리니, 병방이, 심니에, 우으늘, 이 / 러지, 못하더라, 잇흔날, 주월이, 제 / 집을, 소개하고, 주호를, 성비하후 / 병방을, 청하니, 병방이, 마지못하 / 여, 하라하고, 들을라, 주월의집에가 / 니, 주월이, 당에느려, 반기며, 손을 / 잡고, 드러가, 죄정하후, 좌우를, 돌 / 너보니, 제구의, 화려함과, 주월의, / 교연하느라, 사름으로, 하야, 마요 / 파, 눈이, 취하느듯하니, 남의, 의종 / 정에, 소혼단장하거, 고이치, 아니 / 하더라, 이윽고, 주호를드리니, 그성 / 비하느, 눈에, 넘치느비, 만흔지라, / 술을, 마지못하느라, 스양하고, 다 / 른음식을조공식하져, 며, 거죽, 주

●家奴盜物 / 나들스느, 박과양씨, / 가에서, 거월이, 십스일에, 가장을 / 천여금의치를, 다도적하야가거로, / 슈일을, 스면람지호죽, 그집에불이 / 든상노비가, 글이, 하였거로, 지자일 / 에, 상노몹들을, 잡아, 영무청으로, / 보되였다다라

●男姦女傑 (承前) / 박시, 엿조오리, 티감, 평안갑스 / 오선거시, 엿지, 소녀의, 성의로, 갑 / 천사시라, 하오리링가, 마느, 천

월을, 다리고, 최을하야, 거동호, 살 / 피더니, 이제, 춘동이, 주월의집에 / 서, 고공이되여, 의복이, 남두하고, / 용의, 초희하니, 뒤아니, 추은이, / 이리요, 맛초, 당하져서, 스환호스 / 음에, 병방이, 잠간보니, 이곳, 나 / 이라, 처음보리, 비감을, 아다 / 못하야, 추루를, 먹음고, 기리, 호승 / 지더라 (未完)

詞藻

中秋 米溪居士 山寺 盛義  
溪河咫尺欲還。我與群星工會。四西四  
歲半夜。一年一度月中秋。團圓天女願頭盆。  
約約雲龍掌上球。却逐溪光不到。滿江  
使人愁。

懸賞詩

中秋 蟻生 龜江  
客路年光入夢流。天涯此夜又中秋。真秋桂樹  
香生座。月照蕉窗影滿樓。願見江山盡清國。  
心思忠義干城侯。清涼殿古人無影。徒使外臣  
抱憾憂。

中秋

西風颯颯雨連天。待得幽懷轉惘然。遠里元  
不較。一輪今夕最堪憐。但言秋景多今夜。  
莫度良辰及隔年。安得萬金天上。以看  
無邊。

懸賞募詩

本社茲出題募詩本欲以快秋之興而裨治化之  
萬一登徒爾諸君才華之具云微大方君子幸  
垂鑒焉

一秋夜讀書

七言律 投稿期陽曆十月十日  
一詩草評定甲乙以次錄載于本新報其得甲  
者題以本報報一  
一投稿者須及期毋不探  
一稿本必以楷字寫之  
一溫柔敦厚言之無罪聞之足戒詩人之旨也  
日動爾意怒罵後世則有之矣竟非本旨  
言涉穢者雖工不採  
一投稿者必須明識氏名別號居地籍家鄉  
記別號者不採

漢城新報社編輯部

社告

新聞紙價目  
新開紙一張價 一錢三分  
一週價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週價 先給 三兩七錢五分  
六週價 先給 六兩七錢五分  
地方報者 先給 三兩七錢五分  
廣告價  
一 廣告及回數均按次  
一 告白及回數均按次  
一 告白及回數均按次

疑獄遂に決す

久し決せんとして容易に決せし金春無  
對田南等諸氏の獄は去る八月十四日に於ける  
裁判官より五十八日と閱したる日とを以て  
遂に終るに至りし高等裁判所に於ける判決  
廷は昨午午後二時過ぎより公開し先づ被告人  
一同と法廷に召喚し大で首席判事權在衛氏は  
裁判官の席に、其他の法官は各法官席に着席  
し裁判官の宣告文を朗讀せし其要旨は被告人  
人より多少の差異ありにあらざるも何れも  
終る一紙に出で被告人が亡命者と結託し王  
室を顛覆せんとする陰謀を企てしと李世鎮、  
尹履炳等の告發は同裁判所に於て審理を遂げ  
しに、一も確證あり故に各被告を無罪と認  
め放免す云ふに在り 之により放免  
せられたるは左の十二氏なり  
●李世鎮、李履炳、李鍾一、金鶴柱、洪在舜  
●趙東升以上監獄署に監留せられ居たる者  
●金春熙、方漢運、具完喜、鄭鳳林、李運承  
●柳志淵(以上高等裁判所内に監留せられ居  
たる者)  
而して右の諸氏と同時に捕縛せられたる金弘  
南、趙履夏の二名及び告發者李世鎮、尹履炳  
の判決は昨日此稿を奉る迄は未だ之れ有ら  
ざるも聞くが如くは金弘南は右捕縛當時の  
紙上に記せしが如く前の監獄義兵の將たり  
又右趙履夏は就中主謀者の一人にして  
之が謀議は常に尹履炳等と共に李世鎮の家に  
會して爲し趙履夏は初より告發に關係あらざ  
りし獄中に於て金弘南の説かれ終に其黨に  
與ふしたるものなり其眞偽は吾人之を保全  
するも免に角以上四名は結局流刑に處せらる  
とあらんと云へり又金春熙、方漢運等とは多く  
見受けざるなり

放免す

せられたるは左の十二氏なり  
●李世鎮、李履炳、李鍾一、金鶴柱、洪在舜  
●趙東升以上監獄署に監留せられ居たる者  
●金春熙、方漢運、具完喜、鄭鳳林、李運承  
●柳志淵(以上高等裁判所内に監留せられ居  
たる者)  
而して右の諸氏と同時に捕縛せられたる金弘  
南、趙履夏の二名及び告發者李世鎮、尹履炳  
の判決は昨日此稿を奉る迄は未だ之れ有ら  
ざるも聞くが如くは金弘南は右捕縛當時の  
紙上に記せしが如く前の監獄義兵の將たり  
又右趙履夏は就中主謀者の一人にして  
之が謀議は常に尹履炳等と共に李世鎮の家に  
會して爲し趙履夏は初より告發に關係あらざ  
りし獄中に於て金弘南の説かれ終に其黨に  
與ふしたるものなり其眞偽は吾人之を保全  
するも免に角以上四名は結局流刑に處せらる  
とあらんと云へり又金春熙、方漢運等とは多く  
見受けざるなり

面白き風説

●面白き風説 曰く昔邦には某國より宮中  
の顧問官として婦人三名來るべしと固より例  
の韓人の風説は過ぎざるべきが知らず何物の  
好事家此の如きの風説を傳ふるや  
●鎮魂碑建設の計畫(時馬) 我對馬にては  
今般同島人歌野詮二外七氏の發起にて二十  
八年戦役忠死者の爲めに同島籌備警察管内に鎮  
魂碑を建設せんとする計畫を爲し同島人にして  
當地居留の者へも應分の義捐ありたる旨照會  
し來りたりと云ふ

日本留學生親睦會年報

●日本留學生親睦會年報 日本に留學中の朝鮮學生にて組織せる日本留  
學生親睦會此程年報一巻を發兌せり其一は  
百十頁より成り他は二百五十七頁の多きに三  
共朝鮮國文を以て之を記し筆首には義和  
官殿下及び同會長、副會長の肖像畫并に會員  
の寫眞等々俱く体裁整頓する美觀なり又た初葉に  
は同會の目的を記せし中に言へるあり  
苟も生を今世紀に享くる我が朝鮮國民たる  
もの此處に留學中其貴重なる光陰を學科以  
外の事に空費せざらんが爲には各自の心  
中に堅忍不拔の精神を固執し又異日我故國  
に於ける進歩發達の途途者たり先導者たら  
んが爲めには今に方つて吾人の思想を擴充  
し世界各國の智識を習得せざるべからず  
又曰く

身異域に在る吾人同胞は互に相助け相成り

身異域に在る吾人同胞は互に相助け相成り  
ざるべからず敢て日本に於ける朝鮮學生諸  
子として其神聖なる責任を實行せしめんが  
爲に茲に本會の目的を告白す  
其地負や大なりと云ふべし諸子と冀くは今日  
代宣言を述べたる勿れ中又留學生諸氏に論  
文を發兌す其論題の一二を擧げれば曰く故國  
の憂思、曰く朝鮮問題、曰く今日の一大疑問、  
曰く修文と漢文孰れか便なり、曰く修學の目  
的、曰く人間として喜ばしむ又悲しむしむるも  
の何ぞ等其論する所悉く正調を得たるもの  
よあらざるも新空氣を呼吸したる丈け頑固  
ならざる所あり吾人は此會の益々隆盛ならん  
こと祈ふ

西學黨起る

●西學黨起る 近來風變りの多き西學黨  
徒ありと自稱する一家あり自ら教誨徒たり  
と呼ぶ一群の號旗をふることは通日の紙上に  
記せしが今又東學黨徒ありと西學黨徒ありと稱す  
る一家の號旗を掲げ、全羅道慶州の地方に起り  
諸を煽り居たりと云ふ  
●白雲復五十萬兩 南浦居前發科朴齊儀氏  
は名に負ふ金兩家あるが兩三日昔年素交際親  
しき泥眠の我が日本商人某氏の家に來たり急  
に金の入用に付き幾何たりと在るたけの金  
を一時借用去たしとの相談に某氏は訝かりて  
其の不第を尋ねたるに朴氏は浩嘆して語るや  
自分の郷里は元と思清道木川にして祖先代  
々より親の墳墓まで皆此地に在りしに先月  
一群の愚徒來りて悉く其の墳墓を掘りて白  
骨を露くし木を削りて墓前に立て題書して  
曰く要銀五十萬兩と出さる白雲を返さん然  
るに朴氏は、族の父及び祖先の白骨は皆を號  
すべしと三千不孝中祖先の墳墓を失するより  
大なる不孝なし一朝にして五十萬兩と奪つて  
さらざるにあらざるも生く此の大不孝の子  
と爲るを欲せずと遂にに數千圓代金を借り之  
を已れたの所持金に加へ再び夜木川を指して  
出發したりと云ふ昔は燕の昭王千金を以て死  
馬の骨を購ふ今は韓の朴參判五十萬兩を出し  
て祖先の白骨を買はんとす古今一轍の奇話と  
云ふべし

慈惠院設立の計畫

●慈惠院設立の計畫 漢城病院安田院長氏  
之會地に於て慈惠病院を設立し朝鮮貧家の病  
者と救済し同時に同院附屬として一の速成醫  
學校を設けて韓人二十名宛位を入十六ヶ月  
位にて卒業せしめ以て文明の醫術の大要を授  
け韓人一般の利便を圖らんとの考を起し過般  
來運動中なりしと氏は又此計畫に就き中韓醫  
學博士の意見と叩きしに博士も頗る同意を表  
せられしと云ふ至極の計畫と謂ふべし  
●衛生演説 昨日午後三時より我居留地小  
學校に於て中韓醫學博士の通俗衛生談話會あ  
りたり詳細は次號

常地第一銀行の祝宴

●常地第一銀行の祝宴 同銀行は客月二十  
五日を以て國立銀行營業滿期とすより更に私  
立銀行として營業を繼續するに付し祝宴を表  
す爲め本日午後六時より羅洞南山亭に於て  
盛大なる宴會を開く  
●狂犬の害 全羅道羅州、南原等の地に之  
三月來犬の猖狂流行し其害延びて人畜に及  
び狂犬人を噛めば人亦狂し犬の吠ゆるが如き  
叫聲を發して即死し一たび狂犬に噛まれたる  
もの之を百藥を投するも皆て効驗なく狂犬を  
咬れば半亦狂狂して餘れ狂犬各地に轉戦頭  
其害甚めて大なりしが村民等之を遂に齊しく  
起て之を絶し之を絶し此類に至り其患漸く滅  
絶せりと云ふ  
●畫家李曉華氏 是城內北部莊園と寶洞と  
の間ある丘上の一椽屋に住り年既に七十餘  
其眉雪白之を望むに神仙の如き家寶にして依  
るかし我を驚て活となす其の梅花は則ち朝鮮  
第一と稱せらる

第一と稱せらる

●第一と稱せらる 第一と稱せらるる  
一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同黨付、福

●同黨付、福 同黨付、福  
付、五十并  
六寸深井、  
太白七寸尿  
五分、七寸  
種)等尾州  
地三寸、  
出、同小出  
産出地、肥  
需用者の用  
需用者の嗜好  
乙とし  
欠點及び長所  
と云ふるを以て  
衆土の精密なる  
需用の程度及  
業に限りし總べ  
其價格に於て本  
其本品の如き亦  
價値し今や全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三、新發明

●三、新發明 三、新發明  
一二に止まらるる  
用せば其利益  
之を讀者  
考案に成り  
事實特許を得  
合資會社收買  
て煉化製造  
て足り從來  
煮炭の時間  
の利益あり十  
倍し火災の  
ありと云ふ想  
にも此法を用  
利すること大  
金山里の温  
敷三十餘、人  
同地には一の  
今同地より諸  
は同地の後方  
ありの建物に  
記したる額面  
一を外國人  
の浴室には釜  
原好助なる人  
爲さしめ居り  
入浴料は一人  
には韓人の旅

其思漸々滅  
衆士の精密なるを宜しとす  
需用の程度及將來  
業に限りて發達せざるを以て一として  
其價格に於て本邦の製品と競争し得るものす  
既に七十餘  
貨にして依  
は則ち朝鮮  
壓倒し今や全國の六分通は本邦製品の跋扈

[illegible]

三年間の輸入額、最近三年間に當地居住の外人の輸入せし額約を五千五百八十五圓あり輸入品の種族、其重なるもの硝子板、ラテ、コップ、皿類あり

輸出地、硝子板は英獨製にして其地は何れも本邦製なり

用途、需用の程度及將來、本國の用途は其種類により各差異あれども今茲之を記すに必要あり各種の本品何れも近年其販路を益々廣くする有るが就中ラシアの如き已に地方より歩りたる所より本邦來亦充分其類

年間輸入額 最近三年間に當地居留本邦  
 高人の輸入せし額は約三千七百六十八疋なり  
 本品の種類 其重なるものは甲斐絹（絹）  
 は龍用（すし）萌浪玉、打梅、淺黄玉、灰色  
 玉、水色、綠玉、青鼠色、薄紅梅、淺黄  
 玉、濃茶、黒、白等あり  
 出地 八王子、西京、上州、甲州

[illegible]





明治生命保險株式會社  
被保人募集廣告  
今發東京本社診查醫長醫學博士中濱東一郎 社員小松兼太郎・兩氏出張

本日ヨリ來ル十月十一日曜迄五日間は日午  
八時ヨリ午後六時マデ當地巴城館ニテ  
体格診査ノ上直チニ契約致候間有志ノ御方ハ  
至急御申込被下度候  
規則書御入用ノ御方ハ邊呈可仕候  
明治二十九年十月七日

京畿代運店 第一銀行  
追ッテ中濱博士へ御診察ヲ乞ハント欲スル  
患者 ハ一應當店へ御來談アレ

◎藥局方和漢洋藥廣賣  
職工用  
各位ノ御愛顧ニ依テ増々盛裕幸厚謝儀  
一將勉強仕候間不相變多少ニ不限御注文  
御用ノ程快テ希望仕候  
日本大坂  
東區道修  
町堂丁目  
成尾安五郎

廣告

一打綿製造  
卸小賣

陶器商 河村支店

石油大販賣

仁川 泥岷  
慶田出張店  
田組

一石油大販賣

泥 規  
仁 川  
慶 田  
慶 田  
出 張  
店 組

[illegible]

銀行

露披御着到荷新

● 東京 風月 ● 船來ビスケツト ● 瓶入洋菓子數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ぶ ● 小鳥大和煮

外二

|    |    |    |    |     |     |
|----|----|----|----|-----|-----|
| ●茶 | ●福 | ●竹 | ●松 | ●海苔 | ●鮫魚 |
| ●神 | ●の | ●子 | ●茸 | ●大  | ●魚  |
| ●演 | ●演 | ●豆 | ●推 | ●和  | ●煮  |
| ●辛 | ●子 | ●演 | ●煮 | ●煮  | ●煮  |

京城泥鰌

龜屋

告  
 廣  
 着  
 荷  
 銃  
 獵  
 二  
 元  
 西  
 日本村田式  
 連込  
 新式  
 銃  
 銃  
 銃  
 品  
 屬  
 附  
 銃  
 獵  
 會  
 商  
 泉  
 和  
 帽  
 西  
 長  
 護  
 漢  
 子  
 服  
 履  
 履  
 各種

●第六會正風集

題菊夜寒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寄限  
十月十日限 ●撰定全月  
十一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投込所  
漢城新報  
社裡僑設  
正風會

新荷寺別兼賣販賣

アサヒビール  
キリン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佛國名産  
葡萄美酒

白砂糖數品

プランドー ● ウキスギ ● ベニ  
 ● 利休酒 ● 西洋菓子 ● 果物、鮮  
 ● 菜罐詰各種 ● 佛國製優等香水  
 ● 男女娼婦傘 ● 麥藁帽子 ● 和洋  
 ● 雜貨 ● 和洋紙捲煙草 ● 洋食器類

泥  
規  
龜

肥後産朝鮮餚  
大方入諸産一傾試用シ玉ハソコヲ糞  
朝鮮國京城泥規

小林菓子製造所

發行所 漢城新報社

茶店 京媛泥親  
河村至誠堂

新開定價

|                 |        |
|-----------------|--------|
| 一箇月             | 貳拾五錢   |
| 三箇月             | 七拾錢    |
| 六箇月             | 壹圓參拾五錢 |
| 五雙活字式拾字諸堂行登閱金六錢 |        |
| 發印及行數及四版以上者例另議  |        |

廣告料

漢城新報

刊發隔

儒學經緯要領

(續于前號)

人道 人道教이라 하는 말을 본...

人受天地之氣以生人也...

心也이라

用(心)을 분해하기를 형(體)이라 하고...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形氣心之說而論於形氣心之中이라

惟聖人得其氣之清且粹者盡心全性而率此道...

아마 본성의 신즉 氣氣天地形體의 두...

말을 바다서, 아래의 氣氣의 氣氣을...

세우코저하니, 우회말을, 년속함이...

近思錄에 道體가 이 있는 것과 같은지라...

이러한디, 그말을하니, 좀, 저세치...

못하고, 또 氣氣의 氣氣, 그말이, 좀...

미비하니, 앞잡더라, 또, 한 氣氣의 말...

도, 근본이 흐미한 말이 업고, 뜻을...

아니치 못하니 氣氣의 氣氣에 一定之見識이...

업스므로, 저연히, 그뜻을, 잘...

지못하니, 도로 氣氣의 氣氣이 있더라...

라, 또 氣氣의 氣氣에, 힘만드려서, 저연...

히 지못한디, 아, 마시적더라, 사...

무슨사득으로, 사름의 氣氣를, 다...

못하니, 무슨사득이라 도聖人之地位로...

요가 있나, 요衆人이라 도聖人之地位로...

는슈잇는 나고, 한말은 氣氣의 氣氣이...

도, 어려운거시니라, 길게, 말을...

거시니라, 본성은, 氣氣의 氣氣을, 아...

다하지 못하니, 저연히, 또 氣氣의 氣氣이...

心性의 네히를가지고 氣氣의 氣氣로...

말을하니, 氣氣의 氣氣을, 아...

宗旨 (正學) 孔孟以下程朱李...

光緒 (正義) 以下程朱李...

成功 (一) 大賢 (二) 聖人...

本公의 異端을, 논설하니, 氣氣의 氣氣을...

立言之順序의 에는, 잘되얏스되, 그 氣氣...

을, 논설하니, 아, 그 氣氣의 氣氣을...

고, 氣氣의 氣氣을, 아, 그 氣氣의 氣氣을...

도, 저미업는지라, 아, 그 氣氣의 氣氣을...

말을하니, 그 氣氣의 氣氣을, 아...

설하니, 그 氣氣의 氣氣을, 아...

나, 그 氣氣의 氣氣을, 아...

서, 그 氣氣의 氣氣을, 아...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科學之文又文之排優也...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필등가사... (一) 依願免本...



여씨다르니, 밤이 종이고요하고, 스  
스잠이 다갈피 드렸거날, 문밖에서  
와, 천군을 본즉, 티극성이, 운무에 싸

◎ 無禮必受辱  
지작일 남부성명방

신니거등을보고,셔로말하되、아거

크게 해와 같아 뒤 미완  
陰曆丙申九月 小 初六日 (戊戌)

議長退職

新任中樞院議長開張氏... 議長退職

金明圭氏復進

去三日宮內府秘書院卿에서... 金明圭氏復進

沈相繼氏... 沈相繼氏

安顯齋氏... 安顯齋氏

疑獄判決續錄

오라로록, 受치나려다가... 疑獄判決續錄

大疑獄誣告者

宣告執行

이번에여러사람을두고... 宣告執行

서윤이병리제전의교축...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지작일에...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정주관찰소니용이씨... 宣告執行

유복명이 될노라야금, 짐을보라하고 갔더니, 유가 소년이, 그집에, 그집이나 만있 난줄알고, 그집에 가서, 그집에 하 성드려 하고 화를먹고, 유손을가지고, 작난 하다가, 유손자루로, 그집에 하 면상을질것거날, 피가나며, 잠간스 데, 궁디 아예, 싸하엿다지며, 인호여 죽난지 라, 유가 들리니, 도망하여 도라가 거날, 그아웃계집나히본즉, 유가 그계집아하집에서, 이윽히노다 가, 문으로급피나가난, 모양이, 심이 당황하거날, 심중에피하여엿드니, 안식하야, 그모친이, 놀기를다하고 집으로도라온즉, 그설이, 싸하엿 더져죽엇난지라, 통곡하며, 그설을 은연코을루니, 그이웃계집이, 주 가가, 황하이가든말을, 낮치전하 니, 그모가말을듣고, 즉시유가에집 에가서, 유가다려, 그곡절을무룬되 유가가말하되, 서로작난을, 유손 을가지고, 엿차하야하엿다가, 그 모양되얏노라하고, 조곰도피이지 아니하고, 말하니, 그모가통곡하며 갈아타, 사자난불가부싱이라일시 회소로그리하엿느니, 웃지일노관 정에고하리오하고, 인호야관과을 갖초고, 장소를잡지니고, 그시집에 이말되로전하니, 그시집에서도, 그 회소로돌이고그만두더라드라

여서 男塾女塾 (承前)

맛찰, 병방이, 주월다려, 무려알, 저, 스환 넘어, 엿다사람이, 엿다사람이노, 주월 디알, 본디, 서을사람으로, 유리 표박하야, 다나다가, 이곳에, 왔기 로, 소내, 불상이너며, 집에, 고공으 로, 두엇노이다하거날, 병방이, 심 중에, 주월의, 요악하를, 통분하나, 수석에, 낮타니지, 아니하고, 친히 불나, 엿다음식을, 물너주며, 먹으 라하니, 춘풍이, 피갈이, 조심하든, 초성비하음식을, 바드리, 감격하를 이, 피지못하야, 무유비스고, 물 나와, 먹으며, 혼조말노, 일노, 이 리음식을, 쳐조로, 더부러, 상디하 여, 먹었스면, 조호련마노, 죽엇노 지스랴만지, 일조제, 성나스별후 후, 서로소식을, 모로니, 날코흔스름이 스라, 무엇하리오하야, 체취중형하 거날, 병방이, 이모양을보미, 더욱 비회를, 금치못하야, 조연, 피석이, 불평하나, 주월이, 엿하잇다가, 병 방의, 피석이, 덩달음을보고, 춘풍

을, 무지드되, 음식을, 주시거든, 먹기나, 출거시지, 무슴잠말을, 호 노고하야, 밤비, 물너가라하니, 춘 풍이,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국충하 여, 죄를듯, 물너가다라, 병방이, 죽 서, 초소로, 도라와, 밤을지니고, 이 일게, 초소를, 분부하야, 주월을, 잡 아들이라하니, 관죽들이, 그연고를 아지못하나, 비장의영이, 그러하 니, 엿지거여호지, 잇스리요, 스령 들이, 일시에, 주월의, 집에, 다라드 러, 병방나오리, 분부하야, 밤, 비 가즈하니, 주월이, 생각간되, 병방나 오리노, 곳, 재, 남, 편이라, 일야지 간에, 이러하니, 만무하나, 세상일 을, 알길업스미, 거여호지, 업노지 라, 일계를, 생각하노, 슈심낭을, 니여, 초소를, 노나주고, 하노, 말 이, 그디등은, 도라가, 죽도록, 하라 하니, 스령들이, 인정받고, 그저드 러와, 령전출타하노고, 고하니, 병방 이, 디로하야, 나갔든, 관죽를, 뒤장 삼십도, 여, 뒤거하노, 다른스령을 갈회여, 임죽하야, 성화갓치, 잡아 오라하니, 스령들이, 엿자, 일문스정 이, 잇스리요, 살디갓치, 나야가서, 주월을, 압노하야, 뒤령하니, 병방 이, 정담에, 좌피하노, 주월을, 나인 하야, 형틀에, 올리미고, 엿하야, 왈, 너코흔, 요악하년은, 세상에, 욕 남지못하리라, 호미에, 물고를, 을 나라하니, 주월이, 막지기고하야, 만단의결하더라 (未完)

西洋大勢略記

기월이십팔일, 영국서을을문서, 전 보하앗스되, 아라사병함아, 보스부 라스란, 바다어귀에, 제임이, 심이 엿하다하고

또노되, 도이기나라서을문스란정 보에서, 인심이, 의구하하하야, 소 요하미, 화하교하하하하하하하, 구가 속을, 먼곳으로, 보되여, 피란하노 지, 만다하고

또노되, 디에루비시당사를을이, 크 게제산하야, 오무슈루만이란영이 로, 말아나타하고

지나날, 열흘날영국서을정함군의 급히, 피별하기를문스란정보, 신 문스보고에, 하기를, 도이기, 나라 화제하단일이문, 전일게, 무단하하 문이라하하하하하하, 오날하, 그일이, 실스가, 된지라, 장차엿어나라히,

서로의, 논하야, 황제를데출한다

고

▲기월이십구일, 은문전보에, 노되 마다별후란황의, 날리가, 임의평정 하엿스나, 그사후에, 영국사관유공, 스노즈가, 이복삼십이인하되, 일복 삼십팔인은, 반도의게, 죽은바되고 그나마지, 구십여인은상하만하 엿다라

### 詞藻

中秋 月夜 李 興祖  
 碧落秋高玉露清。空樓深夜旅魂驚。窓間梧葉聲。江上蘆花送雁聲。歲月無邊代序。男兒何必肯求名。黃梁紫蟹夢應驚。曉曉開州賦遠征。

中秋 丹石 李 香木  
 其氣清明其日中。蕭然短髮苦吟呻。風霜打屋三重冷。雪劍殘名百感新。一編晴天新烈士。客散中江所懷人。韓歌浩浩誰同志。壯義文章子是真。

中秋 海釣 金 相勉  
 薄海蕭瑟又陰晴。凡卉長知曉曉生。金鈴一夜無端哭。白鶴他鄉不勝聲。遊人見月悲歌賦。劍士倚星今古情。會看秋深霜落後。夜花曉最自然馨。

米溪曰早秀晚成任人所擇而予則聚來于後焉 (完)

### 社告

本社茲出題募詩本欲以扶時教之廢而裨治化之萬一豈徒開綺羅才華之具云哉大方君子幸勿吝投寄

一九日登南山 七言律詩

一詩草評定甲乙以本錄錄于本新報

一投稿者以本月十日(陰曆九月十二日)爲期

投稿須及期

一稿本必以楷字寫之

一溫柔敦厚言之無罪開之足戒詩人之旨也來日動履於意欲寓後世則有之矣竟非本旨凡語涉纖纖者雖工不採

一投稿者須明識氏名別號以備錄

### 漢城新報社編輯部

新聞紙價目

新聞紙一張價 錢三分

一週閱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週閱 先給 三兩五錢

六週閱 先給 六兩七錢五分

地方郵費者 每份郵費校七錢五分

廣告價

一、普通廣告每行一日 錢五分

二、重要廣告每行一日 錢一分

三、長期廣告每行一日 錢五分

四、特別廣告每行一日 錢五分

五、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六、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七、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八、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九、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十、以上各廣告及同數均含稅費





● 運々臺親の強盜 近來木原の運々臺親に  
は強盜の徘徊するもの多く現に此程も八十餘  
圓代銀貨を携帯し居たり一韓人其處を通行せ  
し際強盜に出會ひたるが容易に其金を彼等に  
渡さざりしを以て遂に打殺され金は奪ひ去ら  
れたりと

二時頃に至  
人道 人、道、教、是れ本篇論する所の問題なり  
申氏以爲る

屯中の官兵  
 其の後同地  
 只管已れの  
 を備ふべし  
 を命じ人民  
 徴發を爲  
 端は情に屬するものとす、次ぎに道を説明じ  
 て曰く

不此純粹總代  
 具申し且つ  
 つたるが軍部  
 主する戒飭を  
 冠嶽山に於て  
 知め一隊は暴  
 か、正の半  
 へに看守すべ  
 ゑども迷惑の  
 のは後にて如  
 こて村民一同  
 奔ぎ村民交る  
 づざりしに敵  
 兵とも言はせ  
 一同は痛く打  
 普後策を講せ  
 定に時を過ご  
 の暴徒歸り來  
 置也者事物所當然之則也、循性理之本然、  
 行之於日用之間、則事物々々、皆有當行之  
 路、以其當路也、故謂之道、  
 依りて之を分ちて人倫之道(信、義、別、序、  
 信)、踐形之道(恭、從、明、聰、容)、應事接物之  
 道(親親、仁民、愛物)の三とし又た從ふて之を  
 補説して空間に於ては「莫不存」、時間に於て  
 は「未嘗息」ものとせり(按ずるに莫不存は即  
 ち無外にして未嘗息は即ち無始無終なり是れ  
 理氣篇に只く是れ無外無始四字解説すべから  
 ずと云へるものと扞格す)是に於て性、道、  
 心を總説して遂ひに教の由りて興る所に論及  
 す曰く  
 性所以然也、道所當然也、性與道無爲、而心  
 有爲、心也者、配性揆道而命形氣者也、心本  
 善、性與道通乎善者也、  
 形氣之所爲、有善、獨美惡之不齊、此所謂氣質  
 之異也、獨與惡者爲不善、氣質之不善、心與  
 性亦隨而變焉、隨ふて變ずと云ふは「蔽之

五に違ひとを得べきものなるか等の問題は反  
駁誦讀するも茫乎として要領を得ず要するに  
篇は著作の目的を達せざるものと謂ふべし  
又人を説き形、氣、心、性を以て形、氣、神、理  
配するは可なり遂に形を以て天地、日月、西  
五行に象ならし喋々之が説とすは則ち

爲股と爲手、  
爲股と「未可知也」とし、「以象配之、似當鼻爲  
手、」  
爲手と曰ふに至りては全た立象の義  
説傳乾爲首一節は反對を以つて象を取ら  
ず、三動而在下者足也、止而待於上者手也、  
（下肢而伏者股也、三趾竝而見者口也）に暗  
知らずして意説（良禽鼻は荀氏逸象に見ゆ  
然れども孟長卿以下誤爲手と説くものなし又  
乾爲首云々と云ふべくして首爲乾云々と云  
べからず）を爲すに近かく性字の義を説き  
今之不同、湖洛の相異を辯するは則ち又社  
矣、

本篇を卷二の一の現る。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十九、二十、二十一、二十二、二十三、二十四、二十五、二十六、二十七、二十八、二十九、三十、三十一、三十二、三十三、三十四、三十五、三十六、三十七、三十八、三十九、四十、四十一、四十二、四十三、四十四、四十五、四十六、四十七、四十八、四十九、五十、五十一、五十二、五十三、五十四、五十五、五十六、五十七、五十八、五十九、六十、六十一、六十二、六十三、六十四、六十五、六十六、六十七、六十八、六十九、七十、七十一、七十二、七十三、七十四、七十五、七十六、七十七、七十八、七十九、八十、八十一、八十二、八十三、八十四、八十五、八十六、八十七、八十八、八十九、九十、九十一、九十二、九十三、九十四、九十五、九十六、九十七、九十八、九十九、一百。

第一篇を概括して圖を伴はば左の如し  
 定義……………知而行之之謂也  
 目的……………將以盡人道也  
 發程……………（爲人者、職在盡人之道、宜具於一身而氣私欲之、故無以自盡、必學而能盡之）  
 綱領……………一居敬……………敬……………所以爲知行之基也  
 ………………二窮理……………致知……………所以知道也  
 ………………三力行……………誠意……………所以行道也  
 ………………（三者略有次序而其實齊頭並進無先後之可言）  
 成效……………一大賢……………道備於身、德充於內而光輝著于外者  
 ………………二聖人……………天而不思、從容中道、大而化之不見其迹者  
 先務……………義利之辨……………（正學）孔孟以下程朱、李珣  
 宗旨……………老……………玄虛……………君子必調之  
 ………………佛……………寂滅……………窮理賤安、不足與辨  
 ………………耶……………耶穌……………小學、四書、五經  
 方法……………讀書……………史……………古今之文  
 篇は異端を論する兩節を除けば立言の煩瑣外、大体に於て間然すべきもの無し其の異端を排斥するものは則ち未だ嘗て其の書を讀まざりて妄言し、若し猶ほ其の他に於て小疵を求めば學を説くに専ら成效の上より説き工夫の上より説かざるを以て終に親切を欠了するの憾なき能はす其の科擧の文を論じて  
 科擧の文、又文之俳優也、讀者不得已而爲

のふ

非 遭 正風會寄稿(續)

○五 聖

左れ之迎零暖もあらし雨の月 貉洞殊月  
言の葉よ尽さぬ詠めや月今雪 仁川加遊  
土の葉にさけし月や風代の戀 全

(完結)

世に絶つる月よと愛さる世哉  
 訝りある月よと雲の憂さ世哉  
 一月二心と千とよ碎たけり  
 一〇三才  
 茶の水と月よと富かり草の庵  
 霜つかはぬ主人と玉と月の庵  
 怠たりの月よと恥つけし庭の壺  
 追加  
 動るき無き御代の例えと月の光  
 判者 瑞穂  
 ○賞與披露  
 會の成績も依り賞與する左の如し  
 ●新報二箇月及賞花三組 半馬伯●新報一  
 箇月及賞花三組 加遊伯●賞花一組 素水

て發起者に於て取懸り領事の手を廻して  
縣へ發送したる海嘯罹災者救恤金に對し  
て嚴事縣知事より於今回左の挨拶状を寄  
れたるに付茲に發捐者諸氏に謹告す

明治二十九年十月十一日

發起者

和 田 常 一  
中 村 再 登  
松 田 行 藏  
漢 城 新 報 社  
啓陳者三陸海嘯罹災者恤救の爲り金百六拾圓五拾參錢御寄附の趣内務省賑治局長より誤有之御厚志の段深謝の至りに候に候に御へこ一々挨拶状不差出候間貴下より御寄附謝之類去度先は御挨拶迄如し候也  
明治二十九年九月廿九日  
巖手縣知事 服 部 一 三 郎  
朝鮮國京城日本居留地  
和 田 常 一 殿

###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廣告

**豐島丸** 十月十四日 出帆 二十三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下關 門司

**肥後丸** 十月十九日 出帆 十八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玄海丸** 十月廿二日 出帆 同廿一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仙臺丸** 十一月三日 出帆 二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兵庫丸** 十月廿四日 出帆 同廿三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長門丸** 十月廿七日 出帆 同廿六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隆盛丸** 十月十三日 出帆 同十三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筑後川丸** 十月十四日 出帆 同十五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明石丸** 十月十五日 出帆 同十六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信濃川丸** 十月十六日 出帆 同十七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本會川丸** 十月十七日 出帆 同十八日 入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 橫濱 東京 下關 門司 下關 門司

**仁川荷客取扱所**

**龍仁瀛船龍山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十二日 出帆 午前八時半出帆

**正重丸** 十月十三日 出帆 午前九時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旅 東京 館**

**館 一等 壹圓**

**二等 七角**

**三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田原旅館**

**田原旅館**

**田原旅館**

###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埠留地

館 貳拾六號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金拾貳圓

### 諸非常直下廣告

小生儀印刻技術廣長ノ爲ノ平壤地方へ出張

居リ候處今般寄宅仕リ候ニ就テハ一層工業ニ

勉強致シ向ホ非常ノ直下日本同價從來ノ

凡ソ半格ニテ御用ニ應ジ上等ノ彫刻仕リ候間

諸々御注文アラソコト乞フ

追テ印材等々同業諸御資全様極々安價ニテ

賈割キ且ツ難貨ハ前價ヨリ割引販賣致候ニテ

東京 印刻師 小林好文堂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スコット乳

### 朝鮮并二

右ハ萬國可致候間

大坂市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 朝鮮并二

右ハ萬國可致候間

大坂市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被明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加  
庄野嘉久藏

明治生命保險株式會社  
被保人募集延期廣告

十月十一日迄ノ處申込人多數ニ付明十三日迄延期致シ候間有志ノ御方ハ至急御申込被下度此致廣告ス

明治二十九年十月十二日

第一銀行

藥局方和漢洋藥廣賣  
職工用  
各社ノ御愛用ニ依テ増々盛銷率厚對當ホ  
一層強力仕候間不相變多クニ限御注文  
御用ノ愉快ヲ希望仕候  
日本大坂  
東區道修  
町番丁目  
成尾安五郎

一打綿製造

卸小賣

右ハ今般弊店ニ於テ開業致シ特別廉價ヲ以テ販賣可仕候間多少ニ不拘御注文ノ程奉希上候

陶器商河村支店

一石油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數荷着相成リ候間多少ニ限テ  
御購求ノ程偏ヘニ奉願上候也

仁川  
慶田組

一石油大販賣

今般弊店으로 石油가 無數히 到着하얏스  
오니 多少間에 來購하야 주시믄 천 만 닢  
라음

泥 規  
仁 川  
慶 田  
慶 田  
出 張  
店 組

大坂西區京町堀  
前年販取  
**雜貨并依託**  
開業主舊店但  
柔御文書當  
仕便引渡申  
萬利立下係越  
實ヲノ便ルシ  
賣買並出井

業次  
賣販  
店商

立銀行

廣 着 荷 銃  
 獵  
 品  
 日本村田式銃  
 二元連込新式銃  
 屬 附 銃  
 和 泉 商 會  
 護 漢 履  
 長 西洋服各種履  
 帽 子

露披御着到荷新。

東京 船來ビスケツト  
風月 カル、ス煎餅  
梨、桃、梅、杏、罐詰  
堅魚、  
小鳥、大和煮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松茸椎茸  
●竹の子豆ハ  
●福神漬御雞ふき  
●菜薹ふき  
●辛子漬  
京坂泥鰌  
龜屋

第七會正風集

題紅葉鹿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十月二十日 ● 撰定全月  
廿一日翌日漢城新報 =

投込所  
漢城新報  
社裡僑設  
正風會

一字山  
治城  
新  
茶

御製一斤金壹圓五拾錢ヨリ五兩計  
御煎茶一斤金拾六錢ヨリ壹圓迄  
御薄茶 極細。廣葉。上別儀。  
此三種御入用ノ面ハ御申越シ次第早速  
晚上ケ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候着仕ノ候間大方ノ諸彦格者ノ御受承ナ  
京 城 泥 規  
茶 店  
河村至誠堂

特別廉價販賣  
 到著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佛國名產  
 純真藥用  
 夏季唯一  
 白砂糖數品  
 プラシデ  
 ウキスキ  
 ベルモツ  
 割休酒  
 西洋菓子  
 果物、鮮魚、  
 野菜罐頭各種  
 佛國製醬上  
 等香水、香  
 油、男女婦孺  
 各宜愛用  
 和洋小間  
 物雜貨、和洋  
 紙捲煙草、洋  
 食器類數品

泥 規 龜 屋

肥後  
名産  
朝鮮  
名産  
一箱  
試  
用  
シ  
玉  
ハ  
ン  
コ  
ト  
チ  
冀  
朝  
鮮  
國  
京  
城  
泥  
甕

小林菓子製造所

發行所 漢城新報社

슈이를수





雜報

●日本兵艦船釜  
山港

일본은 海軍擴張政策及 千代田號(千代田)로 三艘의 兵艦을 建造하고 있다. 그 中 千代田號의 船長은 海軍少將 佐藤 實(佐藤 實)이다. 이 兵艦은 山港에서 建造되고 있다. 이 兵艦은 山港에서 建造되고 있다. 이 兵艦은 山港에서 建造되고 있다.

●金炳始氏陳疏

金炳始氏가 陳疏한 文은 大體로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그 中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그 中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安南省의 政務

安南省의 政務에 關한 文은 大體로 地方의 行政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을 論한 것이다.

●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한가히 政治를 論한 文은 大體로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그 中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그 中 國家의 政治를 論한 것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造夢特許

造夢特許에 關한 文은 大體로 夢의 科學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夢의 科學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夢의 科學을 論한 것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盜侵府庫

盜侵府庫에 關한 文은 大體로 府庫의 盜竊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府庫의 盜竊을 論한 것이다. 그 中 府庫의 盜竊을 論한 것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이 部分은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그 中 地方의 行政에 關한 文이다.



●金炳始氏の妻と辭表

を管守す

職員官制

を管守す

仁川に入港の上は或は同殿下を始め、絞島司令官以下十五六名の將校入京あるべしと聞く

に入る

●英艦の入港　英國軍艦グフテ號は去る十

永平君の辭表　宮内府侍從官永平君は辭  
に落じ長崎に出で轉じて上海に至り去る九日  
二川港に歸着せり

るもの今も猶



建る所なるが此の程同地方より歸來せし人話によれば同地方人民の之れに雪花・手向するもの今も猶は前日の如く引きも切らずと云ふ俗をたる天下義に背き慙を忘るゝもの比類然らざるはなきに獨り同地方人民の能く斯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月中の輸出入統計は  
 參萬六千〇〇七圓二拾六錢  
 内  
 輸入 參萬四千六百六拾六圓拾六錢  
 輸出 千參百四拾壹圓拾錢

參萬六千〇〇七圓二拾六錢  
內  
輸入 參萬四千六百六拾六圓拾六錢  
輸出 千參百四拾壹圓拾錢

第六會正風集 芳聲は紙面の都合に依て  
號より掲載をへし

**特別廣告**

(未完)

て發起者に於て取纏り領事の手を廻て難者  
 照へ發送せたる海難罹災者救恤金に對まて  
 づ嚴手照知事よりは今回左の災撓狀と實  
 れたるに付茲に義捐者諸氏に謹告す

明治二十九年十月十一日

和 田 第 一  
中 村 再 登  
松 田 行 發  
漢 城 新 報 上  
啓陳者三望海關羅漢者恤救の爲り金百拾拾圓五拾參錢御寄贈の趣内務省監治局長より稟有之御厚志の段深謝の至々に御義捐者へ心々挨拶狀不差出候間貴下より御謝を頒去度先は御挨拶迄如仕候也  
明治二十九年九月廿九日  
慶手恩知事 藤 訖 一 三  
朝鮮國京城日本居留地  
和田 常 一 及



銀行

龜屋分店

一肥  
名產  
朝鮮  
小 林 菓子製造所  
發行所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議政府所屬職員分課規程

● 第一條 議政府의 政令 發布에, 外官에 關係하는 事務, 各 官署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二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三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四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五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六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七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八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九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十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一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二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三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四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五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六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七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八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九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十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一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二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三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四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五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六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七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八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九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 第十條 議政府의 事務를 分장케 함이라



雜報

詔申飭將帥字牧

詔曰京兵之出在外道所以錢匪徒而害民生也...

賑恤詔

詔曰賑恤之設所以救災恤鄰而恤貧民也...

●國服 金炳始

●美人 金炳始

●武備 金炳始

●請示

가변에, 법국의 소리라... 도목로와, 원산가...

북과음식을, 음고정려... 천사람으로,...

●再錄 金炳始

전호지장에, 기록을, 선행에서,...

●醫博士談養生

저작일에, 일보... 학교로가서,...

제비만국을... 하야,...

●再錄 金炳始

은아모병이며, 이병을, 치료... 학문이란,...

●再錄 金炳始

은아모병이며, 이병을, 치료... 학문이란,...







今日の上は意外か... 又學部官吏及び同僚の我補佐官、同僚の我... 博士を總長に紹介、且つ同博士を領はせし... 博士の演説中實行すべきものは本人は勿... 論議の家族朋友にも説き勧めて着々實行し... 身體の健康心神の爽快と著せん事を希望... 其の旨を述べ終つて博士は登壇せし其演説... の大意を掲げんに博士は先づ學部大臣閣下... 始め諸君の前に衛生上の談話を爲すを得る... 自らの光榮とする所なりと述べ次に學問... ものは一州一國の智識を得るを以て足れり... せせり世界に亘り萬邦に通じ其智識を得... 研究の材料を集めざるべからざるものにして... 衛生學の如きは近年長足の進歩を爲したる... 雖も亦未だ之れを以て足れりと爲すべからず... 世界各國より其智識と研究の材料を蒐集し以... 新學の進歩發達を圖らざるべからざるもの... 極めて多し自分も此の目的の爲り豫てより... 渡韓の希望を抱きしに今回歸らざる當國に渡... 來するを得たれども匆卒の際學問上の調査研... 究と爲すの時日なく架く自ら儲めんと爲し異日... の再渡來を期す或は再び諸君に此地と相見の... の日有るべしとの旨を述べ夫れより衛生學... は專門的に之を研究せんよと先づ醫學を修め... ざるべからざるものなりと新學は醫學とは異... たり疾病の性質及び之れを治療する方法等... と研究するものなりと疾病を預防し身心の... 健全を博せしむるの方法等と研究するもの... 野にして其手段には個人衛生、公衆衛生の二... 種あり此二種の衛生法を完全に行ふは之を小... 國にしては一家の幸福利益を大にしては富國... 強兵の一原因なりと論じて其必要なる所以を... 示し個人衛生の要は衣食住を清潔にするに在... し公衆衛生の要は道路の掃除汚物糞芥の排泄... 溝渠の浚渫等一個人の力にて爲し能はざる土... 地の清潔を保つに在りて當國人の衣服の白... 色且つ清潔あるは大に衛生の旨意に協ひ衛生... 上の點より云へば此一事は以て世界に誇るべ... しと稱揚し皮膚に接近する肌着は殊に清潔を... 要するべからざるを述べ他的小虫若しくは塵... 芥等の傳染病源を傳播するの危險、傳染病源... は目以て見るべからざる一種の小虫にして其... 汚物糞敗物等に遇ふて繁殖の速かざる事等よ... り食物住居土地の清潔にせざるべからざるを... 説き土地を不潔に放任するは其危險なる事火... の比一隊の紅... 藥を撒布するよりも甚だしく若し火藥にして... 爆發せば忽ちにして多數の人命を奪ひ此上も... 危險の事あるも之が導火の他より飛び来る... の煙より目能く之を見るを得るを以て災と未だ... 目に付くを得べしと雖も傳染病源の他より来る... ものは目之れを見るべからざるを以て其場... 至りて之を防がんとするも遙か之が預防の... 法は只像り土地其他を清潔にするの外なしと... 衛生の急務に付すべからざるを論じ其他細... 目に説き詳論する所あり又傳染病源は人身及... 貨物等に付着して傳染流布するものあれば一... 家一郷の衛生は一國一國の利害に關し一國の... 衛生は之れと通商交往する世界各國の利害に... 關するに傳染病の發生を列國に電報する歐洲... の例を引き將來東洋にも此法を實施したる

以上、教育を受けた諸君より之と實行し以て一家一郡に及ぼし延びて全國に普及せしむる富國強兵の基を啓かれんことを望むと述べて、富國強

|        |     |          |    |          |       |
|--------|-----|----------|----|----------|-------|
| ▲輸出朝鮮産 |     | ▲仁川輸入日本産 |    | ▲仁川輸入日本産 |       |
| 同上外國産  |     | 同上外國産    |    | 同上外國産    |       |
| 品目     | 數量  | 元價       | 品目 | 數量       | 元價    |
| 金      | 二〇〇 | 九二〇      | 金  | 二〇〇      | 九二〇   |
| 銀      | 六〇〇 | 一、六四一    | 銀  | 六〇〇      | 一、六四一 |
| 銅      | 一〇〇 | 二、五九九    | 銅  | 一〇〇      | 二、五九九 |
| 鐵      | 二〇〇 | 三八       | 鐵  | 二〇〇      | 三八    |
| 錫      | 一〇〇 | 二、五九九    | 錫  | 一〇〇      | 二、五九九 |
| 鉛      | 二〇〇 | 八六五      | 鉛  | 二〇〇      | 八六五   |
| 鋅      | 一〇〇 | 二、七〇五    | 鋅  | 一〇〇      | 二、七〇五 |
| 鎳      | 一〇〇 | 一、三五九    | 鎳  | 一〇〇      | 一、三五九 |
| 鉻      | 一〇〇 | 二、七〇五    | 鉻  | 一〇〇      | 二、七〇五 |
| 鈷      | 一〇〇 | 二、七〇五    | 鈷  | 一〇〇      | 二、七〇五 |
| 鎢      | 一〇〇 | 二、七〇五    | 鎢  | 一〇〇      | 二、七〇五 |
| 鉬      | 一〇〇 | 二、七〇五    | 鉬  | 一〇〇      | 二、七〇五 |
| 鈳      | 一〇〇 | 二、七〇五    | 鈳  | 一〇〇      | 二、七〇五 |











李 奎 健  
 警務使 李 奎 健  
 至은야 시니는常時에警察官吏를關東  
 자못스마라는로以는야廳責호  
 ▲根本  
 等이身  
 三祖、慈  
 父認守金  
 本官  
 謹知  
 夏  
 宗  
 夏  
 本題報告書를據호즉警察上錯訪지못함으로  
 로十日罰俸에處호  
 (以上十月十四日內筋)

(以上十月十四日内部)

사람이, 원출이라 하니, 흥번이, 그것  
이 있어서, 잠세기를 기다려, 이윽히  
안저드니, 오뢰감만에, 이러니 거날  
흥번니 그것하가서, 공손이, 절하  
면, 안재날 원출이, 이윽히보다가,  
거날하되, 그웃더호, 사람이 판되, 날가  
는, 사람을 보고, 이다지, 공손니, 되  
심하나 나하니, 흥번이 말하며 갈아  
나난아 모곳스난, 사람으로, 선  
성을 뵈오라고, 이곳에 와서, 오뢰두  
후하야, 지금이야, 선성을, 뵈오니  
이난하날이, 지시함이라, 웃지  
후지, 아니하리오, 흥거날, 원출이,  
거날하되, 날가든 사람을, 드럽다 아니  
치고, 이곳거지, 차자오셨다하오니  
무손일일은 물론모로거니와, 그연고  
를알고자하니이다, 흥번니 다시 절하  
고고, 숙려, 안저, 갈하되, 내가 군스를  
일으키며, 뒤국을 처러갔다, 유심  
만군스를, 반니 넘게 죽이고, 나마저,  
군스난, 각각호터져, 살기를도모하  
야, 도망하얏고, 나노과원슈에게,  
쫓기여오다가, 하모손중에서, 초부  
현사들을 만나, 선성에게, 지시하거  
의, 와서 말함하음년거시니, 웃지  
면, 과원슈를, 스로자바, 나에붓그  
러오거설, 쓰스리호하되, 원출이 우  
어갈하되, 과원슈난, 세상에, 뒤져  
할사람이, 음난지라, 날가든 사람이,  
무손지조로, 그되를도아, 과원슈를  
스로자부리오, 그되난, 이가든말은  
두번도말고, 도라가라하니, 흥번니  
다시갈하되, 선성이, 가라하시니,  
나에소망, 다시음난지라, 뒤무손면  
목으로, 본국에 도라가서, 그부터은  
거설참고, 사라, 잇쓰리오, 뒤차  
리, 선성에 압혀서, 이칼노자문하야  
, 세스칼모로나니만, 갓지못하겔다  
하고, 그칼노자문코자하거날, 원출  
이, 그거등을보고, 크게웃서갈하되  
, 세상에, 사람으로나서, 뜻과갓지못  
호지, 열에아름은되나지라, 웃지

○陰曆丙申九月小十二日（甲辰）

●日本公使謁外部

가등레리공사는, 작일에 露分通譯官을  
타리고, 외부로 신니 환용씨를, 방문  
하야, 무슨 열인지, 상의 하얏다더라

●露初隨軍

의정의, 김공병사씨가, 전일의, 봉  
표와서, 회를을, 열기, 하얏다니,  
우악하진

비자를 무른후의, 또두변재상소하  
도, 되귀하라산, 소을을, 취하야니  
, 하얏다, 그러니, 여향간의서, 서  
로전, 하얏말이, 김공이, 장차일간  
의, 동소문밖, 별저를, 떠느서, 양주  
(驛州) 마셔우, 향제로, 도라가서(愛  
鳳臺) 하얏다, 아말도, 아마준신,  
할슈을실듯, 하더라

●使歸有日(麗永德氏)

알전에, 허삼위, 서지歸着, 하얏다, 전  
보나, 하얏다, 말을, 귀지하얏든, 건아  
, 하신, 민영환씨일형은, 지나간  
四日에, 회지를떠나서, 귀국하  
길에, 있다, 전보가, 나, 하얏다, 금  
명일안에, 당지로, 귀착하리라

●顯入海

전하는, 말하들으니,  
, 궁니, 부고문관니, 선득씨가, 근일의,  
, 장일본으로, 들어가서, 되며, 미국  
으로, 향한다, 참그런일이, 이  
지, 하얏다

●安氏歸來

향자, 못하, 하얏다, 하얏  
안영씨, 일전에, 도라, 하얏다

●告退風聞

경우, 스니, 종근씨가, 상  
소, 리, 露分通譯官, 다, 시드르니, 저, 작일  
에, 정무청으로, 제반스무와, 및, 선  
해청, 적발, 하얏다, 슈정하야, 일일  
이, 각청소장에, 부치고, 곳도, 라가,  
집에, 가서, 이쓰라고, 명일에, 장차, 상  
, 스죽, 하얏다

●告退風聞

경우, 스, 니, 종근씨, 고  
되, 하얏다, 이왕, 본지에, 등지, 하얏  
거니와, 스고, 난자, 하얏다, 아, 지, 못하  
되, 후, 이, 일, 전에, 선, 해청, 에  
서, 절반, 하얏다, 노, 부, 에서, 저, 하얏  
, 경우, 스가, 경우, 에, 절반, 하얏다, 발, 지, 하

니, 하야서, 막, 중국, 고, 에, 절반, 하얏다, 이  
있,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에,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게, 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상, 으로, 관,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근, 슈,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청,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고, 분,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관, 가, 에서,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절,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하, 야, 정,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포,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여, 지,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三級監獄府庫

전, 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관, 가, 에서,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절,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하, 야, 정,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상, 훈,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의, 여,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세,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고,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仁政有端

법, 부,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街衢調運

정, 동,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천, 이,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에, 자,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과, 종,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구, 자,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犯新治罪

각, 처,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전, 보,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停職是罪

니, 근,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市價騰賤

두, 천,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여,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리,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이,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男妓安樂

하,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이,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承前)

하,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이,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얏다, 하





雜報

●加薩代理公使李外訪...  
●金始氏又辭表上る...

●金始氏又辭表上る...  
●批官、省政具悉、朕之待卿、以實不以...

●閔泳煥氏 (滬滬出役)...  
●十四日同地に出役し歸朝の途...

●安福系氏...  
●金山港に於ける我二艦...

●大島慶仁川港に入る...  
●大審院長の更迭...

●金儲辨代進退同...  
●金儲辨代進退同...

●日同議官の辭職...  
●日同議官の辭職...

●大島慶仁川港に入る...  
●大審院長の更迭...

●金儲辨代進退同...  
●金儲辨代進退同...

●日同議官の辭職...  
●日同議官の辭職...

●大島慶仁川港に入る...  
●大審院長の更迭...

●金儲辨代進退同...  
●金儲辨代進退同...

●金儲辨代進退同...  
●金儲辨代進退同...

●元山短信 (七日發)

●電報發 我扶桑、千代田の二區は去三  
日入港し六日に至り投錨せり其の船泊中我  
留地にては國旗を掲げ球燈を吊しあせり工  
船の意を表し五日には該商司官より領事館  
員、中領事館員其他居留民の重立たる者五  
十餘名を招待して盛宴を開けり又英皇三隻は  
前月下旬より入泊中ありしが我々入港の爲  
日何れへか出帆したり

●行商團 當港從來の我内地行商者は團  
体行商の必要を認め此の際元來組織なるもの  
組織せんとすの計畫あるも堅決未だ熟せざる  
の有り其の成立を見るは本月下旬頃よりん  
と云ふ

●中領事館 一行は明十九日出港の豫定  
ある肥後九便にて歸朝する者あり

●東條支配人 郵船會社仁川支店の同支配  
人は一昨日入京巴城館に投宿せしが本日は歸  
仁と云ふ

●米國鐵山技手 ハン氏外一名は一昨日  
の慶賀便にて雲山の鐵山より歸仁せり

●李註日公使の夫人 は我が國の風土、家  
屋の構造生活の模範都て本國とは自然異な  
る所有るが爲め腰航以來心身免角に勝れば  
るより今般愈々歸國すること決し去る九日  
東京に出發し李夏榮氏は神戸より見送たり

●李公使の夫人は數日中に歸來すべく  
の念あり夫人と共に歸來の考へたりしも常務  
政府より未だ何等の指令を與へず且つ今直に  
歸國するの運びに至り兼ねる事情あるやに  
て惜では夫人のみ先づ歸國せしむるに至りし  
と云ふ

●日監、秋月の兩書記官、守備  
隊の將校、長崎日語學校教師等は昨日松波渡  
に騎馬遊足を試みたり

●小學校運動會 當居留地公立小學校生  
徒は既記の如く昨朝八時より同校を出で馬頭  
山に至りて秋季大運動會を催せり演戲は九時  
半より始め正午に至り爆竹の合圖にて一先づ  
休憩し其間に畫辨當の要應あり午後にも亦た  
十數番の演戲あり四時過に至りて散會せり當  
日は宇佐川中佐、新野少佐、若松領事官補其  
他の居留民の觀物人極めて多く韓人の見物人  
之例によりて雲の如くありと云ふ細紙面の都  
合により大略に記す

●警官の病死 當地我警察署在勤の巡查二  
渡武二氏は此來來馬チナス病を患ひ尋たりし  
が不幸にして去る十四日溘然長逝し一昨日本  
頭寺附院にて葬送の式を行へり當日は領事館  
員、警察署員其他居留民無算數十名之れに  
列したり是氏が遺體は昨日日本邦へ送られた  
るよし

●發會式と演說會 私立大日本衛生會仁川  
支部にては既に中領博士の下仁ありたるを  
以つて愈々昨日を下して發會式を舉行し又た  
同支部の發會より博士に請ひ本日本午後五時半  
頃より福田定席に於いて衛生演說會を開く等  
あり

●般におらず賊に苦るしむ者 前哨官某  
は驛州の人より劫掠の爲に對ひ其家財  
擧げて彼等の手に落ち某は辛く身と脱して入

●京せしが不幸にして江原道の某村に  
の姓名の似たりけりあるも其家財擧げて  
に擄縛せられ殆んど一月の間も獄舎に閉じ  
居たるに此程漸く人達するとの判然し露放せ  
られたり

●米價漸く下落 六七日の頃海濱一帶  
りし米は米價著しと騰貴し一井に付常地の  
市價十六錢以上上りたるをへありしが近  
日に至り本年米作豐饒の見込付きたるより大  
に下落し一昨朝驛路の市價は上白米一井に付  
十一錢、中白米十錢なり

●廿九年 京城輸出入月報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商況

●金市 本品は前月より相づ景氣付き騰貴  
引きあがり尤も本邦に於ける取引價格の騰  
貴せむる期前通過等の爲り一井に付價格を新  
上げ求巴圖三三三にて五圓三馬にて貳圓、和  
製銀甲は拾八圓五圓の騰貴をみたり  
其の内求巴圖三馬の二種は品地底する上に望  
手多數ありし爲り益々好況の姿あり之れに  
反し新義源は五圓方の下落する上望手絶無  
なり

●洋紗、白細 本品は期前を過ぎたる爲り取  
引之れあがりのみならず價格も依然前相場に變  
らざりし

●甲斐絹 本品は前月より引き起り取引皆無  
きなり

●製木綿 本品は對馬、三河、河内、筑後  
の別なく景氣益々宜しく從て價格も上向きの  
姿あり

●模製木綿 本品は對馬、三河、河内、筑後  
の別なく景氣益々宜しく從て價格も上向きの  
姿あり

●模製洋紙 本品は時季對非當の好況あり  
然價格を騰貴し上向きの姿あり

●石油 本品は本邦品地底等の結果より自  
然價格を騰貴し上向きの姿あり

●陶器 本品は井、サハル、尿灌、大中反等の  
賣行依然騰貴へき

●其餘板 本品の取引も前月と別に異なる  
と云ふ

●其餘板 本品は危險安全共に益々好況あり  
と云ふ

●金五拾七萬貳千四百五拾四拾錢  
但貨幣及積戻し扣除  
●輸出入比較  
●九月中の金山港貿易  
●輸出入總計(各地へ轉送廻轉共)

●輸出 日本へ廿七萬六千五百九拾四圓九十六錢  
●輸入 金拾九萬七千八百八拾圓貳拾錢  
●日本産 八萬三千三百四拾圓六拾貳錢  
●外國産 拾壹萬四千五百五拾五圓六拾  
●輸出超過 金七萬八千七百拾四圓七拾參錢  
●仁川へ轉送及同地より廻轉比較  
●金參萬四千七百拾圓四拾五錢

●日本産 參萬九千九拾七圓五拾錢  
●外國産 貳萬八千貳百貳拾七圓廿五錢  
●朝鮮産 貳萬八千貳百貳拾七圓廿五錢  
●金壹萬六千八百六拾九圓九拾錢

●日本産 參萬六千五百五拾六圓六錢  
●外國産 壹萬六千五百五拾六圓六錢  
●朝鮮産 壹萬六千五百五拾六圓六錢  
●金壹萬四千參百四圓七拾九錢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日本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外國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朝鮮産 參萬四千四百七拾貳圓  
●金壹萬四千四百七拾貳圓





新荷着廣告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并ニ附屬品種々

適日來冬仕入ノ爲メ日本へ罷越シ候處頃日  
珍柄澤山荷着致シ候間此際諸々御注文ノ程奉  
希望候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并ニ附屬品種々  
適日來冬仕入ノ爲メ日本へ罷越シ候處頃日  
珍柄澤山荷卷致シ候間此際漢々御注文ノ程奉  
希望候

冬洋服用氈並附屬具各種

冬洋服用氈並附屬具各種  
向日來로物貨를사러 日本으로가더니  
回珍品佳物이許多히 到着하였스오니  
來 韓京야주시를천만민라온

力武洋服店

開業御披露

茶碗ちawan 小田卷おだまき 歌哉うた 稻荷いなり 善ぜん 御調ごてう 子哉こ

右之此間より開業仕升たよ就て之精一杯  
勉強致去升併うし風味はナカ／＼に  
御客談の御譽に預る程には出来かね  
升るがホンの熱ひが販得に去て御  
風呂の返へり道に一寸一盃  
内よりも御暖りわれと蕎麥湯の熱釜  
去くも希ふものは

君  
子  
蓄  
麥

一石油大販賣

一石油大販賣

○ 多少間에來購하야주시를천만보  
○ 多少間에來購하야주시를천만보

泥 川  
仁 川  
慶 田  
慶 田  
張 唐

大坂  
雜  
三  
開  
主貨  
來舊  
生蜀  
當但  
門南  
通大  
京城

西京區  
 前取  
 貨  
 并  
 仕業  
 御  
 御  
 文  
 店  
 御  
 出井

揚引々  
 於目丁三通  
 り通候り居  
 業次買  
 賣販  
 シト旨速迅  
 ニ候申可計相  
 テ以意尊御  
 上頭幸偏段  
 急至ハ借此  
 候度下破  
 飛京大  
 通都阪  
 店商

竹

露披御着到荷新

● 東月 ● カル、ス煎飯  
● 舶來ビスケツト  
● 瓶入洋菓子數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ぶ  
● 小鳥、大和煮

●松 ●竹 ●國 ●茶  
●茸 ●子 ●演 ●牌  
●椎 ●豆 ●御 ●ま  
●辛 ●子 ●演

京畿泥鰌

海苔大和煮

龜屋

○第七會正風集

題紅葉鹿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寄限  
十月二十日 ●撰定全月  
廿一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入花壹組（拾句）金六錢  
餘ハ壹組四錢詠草ニ添ニ

漢城新報  
社址僑設  
投込所 正風會

新荷  
辛川  
兼賈反膏

到着特別廉價則買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佛國名產  
 純良藥用  
 夏季唯一  
 白砂糖數品  
 平野礦泉水  
 アラジンデー  
 トリ休酒  
 野菜罐詰各種  
 油男女編編傘  
 物雜貨和洋紙捲煙草  
 ●ウキスギ  
 ●果物、鮮魚、  
 ●佛國製優等香水  
 ●和洋小園  
 ●洋食器類數品

泥  
 瓦  
 龜  
 屋

廣 着 荷 銃  
 日本村田式 二元連 西洋新式  
 銃 銃 銃 銃  
 屬 附 銃  
 會 商 泉 和  
 帽 西洋服各種 長 護  
 子 履 履 履

告  
品

一山城新茶  
 字治  
 御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壹圓迄  
 御煎茶 一斤金拾六錢、壹圓迄  
 御海茶 極摘。廣葉。上別儲。  
 此三種御入用ノ節へ御申越メ次第早速  
 挽上メ御注文ニ應メ申候  
 右新荷着仕ノ候間大方ノ諸差格當ノ御受取  
 茶店 京城泥 觀  
 河村至誠堂

新開定價

|         |        |
|---------|--------|
| 一<br>月  | 貳<br>錢 |
| 二<br>月  | 貳<br>錢 |
| 三<br>月  | 貳<br>錢 |
| 四<br>月  | 貳<br>錢 |
| 五<br>月  | 貳<br>錢 |
| 六<br>月  | 貳<br>錢 |
| 七<br>月  | 貳<br>錢 |
| 八<br>月  | 貳<br>錢 |
| 九<br>月  | 貳<br>錢 |
| 十<br>月  | 貳<br>錢 |
| 十一<br>月 | 貳<br>錢 |
| 十二<br>月 | 貳<br>錢 |

廣告

朝鮮鮎  
治差一兩試用シ玉ハソコトテ其フ  
國京城泥硯

小林菓子製造所

發行所

漢城新報社

朝鮮京城商會黃坊路彌契

島田 權

# 漢城新報

隔日發刊

雜報

●日本公使抵東京

일본총리대신(松方伯爵)이, 지나간 십삼일에, 각 지방관을 회합하여, 施政方針을 연설하셨스니, 그 대要를, 기록하니, 茲의 여하를 본대신의

일본총리대신(松方伯爵)이, 지나간 십삼일에, 각 지방관을 회합하여, 施政方針을 연설하셨스니, 그 대要를, 기록하니, 茲의 여하를 본대신의

## ●日本帝國施政方針

은명을바다다시國務重任을, 보게되얏스니, 시방, 明治後發達經營의일이, 그 뜻치나스되, 아직草創하여, 尙

●本대신의

은명을바다다시國務重任을, 보게되얏스니, 시방, 明治後發達經營의일이, 그 뜻치나스되, 아직草創하여, 尙

작아나흐나라는, 곳곳치나게하 니, 그 요약을 實施準備에 관하여는, 극기마음드려서, 그마련을하되

## 護國軍備

그치, 힘을드려서, 그 徵發치아나 지못할지라, 또국가를, 영원으로, 부국강병케하러면, 그근본된教育

## 財政整理

의서, 힘을드려서, 국가지정을느 러가지고, 國勢增進케할작정인지 라온다

●日、露、土、宋

여송도에, 관안이나타는말은, 일전 신문에, 기재하얏거니와, 히지에를

고, 가니 그로장, 적도, 늘리고, 적드리, 세에, 고

△命停職 親衛第 副尉鄭泰 ▲任副尉 李寅八 ▲尉鄭泰 親衛第五 一聯隊第 第五大隊 衛第一聯 十三日

常時에 國庫典守 頃처못하 (十一)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該觀察府

나니 유용은  
력이 나 취  
히리장관  
야, 임경의  
지휘위가  
유순스관지  
감

자나나  
라, 겸  
비고, 지가  
나, 죽거날  
드니, 이를  
후부림은  
그연고  
역연드니  
일나, 만  
거시니, 만  
하이라  
현화하  
여라하고  
간보화를  
잇난지라  
고, 단장  
그집사  
다니, 과  
의, 돌  
고, 부인  
에, 정화  
을, 보  
니, 그  
가되, 질  
에지물이,  
노와, 면  
드러올세  
화용을보  
로고, 갈  
을방을, 처  
고, 도적  
사나니, 그  
갈아치난  
나를, 구부  
조음에, 그  
에여러번

고, 갓거날, 부인니, 그고문을닷고, 밧  
그로잡우고, 그하예를, 일시의불너  
적도를잡고화를면하니, 그지허가  
늘나고, 또선서에, 지죽은거슨그도  
적드리, 독약을먹여죽이고, 도립할  
세에, 기가짓지못하게한듯드지라

●新任及辭介  
△命啓職 親衛第五大隊副官白南麟 △命休職  
親衛第五大隊中隊長正尉金奎煥 △任正尉  
副尉鄭泰範, 全龜鳳, 全趙復熙, 全申泰根  
△任副尉 參尉金佑基 △任參尉 九品李機榮  
李寅八 △補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正  
尉鄭泰範 △免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中隊長補  
親衛第五大隊中隊長 正尉李恒魯 △補親衛第  
一聯隊第三大隊中隊長 正尉申泰根 △補親衛第  
五大隊中隊長 正尉趙鳳麟, 趙復熙 △補親  
衛第一聯隊第三大隊附 參尉李寅八以上十月  
十三日

度支部出納局長 鄭恒朝  
常時에 管内 稅關과 員役을 監督하고 支拂하  
國庫典守가 稅關을 監督하고 支拂하  
領支處에 支拂하  
領支處에 支拂하

大園郡守 具完喜  
該觀察府報告에 照會出討時任安의 署가 不無  
하나 治民의 政은 可見民狀 留留라 하기는  
로이 하야 罷責함

鐵原郡守 金思謙  
該觀察府報告에 新式의 鎗兵舊規나 老練手段  
을 可以力試으로 備가 實由 多少 抽稅  
가 難免 衆議이라 하기는 로이 하야 罷責함

白川郡守 尹胃榮  
該觀察府報告에 百里 關境이 方領仁治에 數個  
頑民이 胡致 擾亂이라 하기는 로이 하야 罷  
責함

郭御史傳 (續)

郭御史의 안치고, 말이음을위로하고  
을친하며, 서로질거늘서, 흥번이, 제  
군다려갈아되, 하날에도스, 셔원  
출갓튼, 장슈을으다사니, 무슨근심  
홀리오하며, 이렇듯, 질거늘기를,  
슈삼일하다가, 원출노하야금, 뒤차  
을스무니, 원출이슈명하고, 장티에  
노피안져, 제군중의, 영을날며, 갈  
아되, 번군나날노하야금, 상장인슈  
을슈시고, 제군을거나려, 전에제천  
사나니, 그  
보그그러음을, 쓰시라하시기의, 너  
나의무리 제영을날이나니, 너의등  
은, 자셔나듯고, 어귀미음제하라, 전  
에여러번싸움에, 되피하야, 장졸이

종이, 형을다하지못한연고인즉, 지  
금에, 다시군수를, 이르피며, 성고코  
자셔나, 또군중은, 수정에음난지라  
영을어괴난조난참하리니, 너의무  
리난, 죽을형을다하야, 싸호자하니  
제군드리, 영을듯고, 각별조심하  
드라, 원출이의할하야, 힘군중을,  
그군용이, 함속한법아, 참담하지,  
읍살듯하드라, 바로화성로, 갈아할  
서, 비도하야, 여러번니를, 가니, 소  
경열을슈령드리, 흥번에, 군스오난  
소문을듯고, 다도망, 하며, 성를긋  
배지하디, 죽난조도, 잇쓰며, 화성  
으로, 장계하난, 슈령도잇드라, 잇  
되관원슈, 적병을, 물이치고, 한가  
이잇드니, 일일은야식이, 정이명나  
하야, 잠을자지아니하고, 밧배나와  
근일다가, 셔변을본즉, 번군에장  
성이, 점점씩씩하야, 화성을범하거  
날, 이에마암에, 되경하야, 황제  
여짜갈아되, 소신의, 작야에천문을  
보온즉, 셔변이, 다시괴병하야, 황  
성을범할듯하오니, 밧비군수를, 밧  
하야, 막스이다하니, 황제갈아스되  
그딴자성의, 천문을, 보아셔, 그  
병하드라하고, 이리의논할조음에,  
형성근쳐, 고을자사가, 급피장계, 하  
엇거날, 장계에하야쓰되, 자금총변  
에군스, 심여만명의, 비도하야, 열  
읍슈령을, 죽이며오난, 그제가, 당  
홀슈, 읍시니, 뒤군을조발하와, 급  
피막으라하야가날, 관원슈와, 황제  
게셔, 이괴병을보시고, 되경하야, 만  
조빅관도를, 다부루시고, 의논을날  
이시되, 다게척, 읍고, 다만관원슈  
만, 밧난지라, 황제원슈다려, 갈  
아되, 조정에, 신하가마드나, 하  
도병스에, 의지못하야, 뒤적할사  
이읍사니, 그딴집만병을거나려,  
가막으라하시거날, 원슈해아려본  
즉아모리, 읍명아, 이다하를, 저  
러장슈를, 못지당하리요하며, 크게  
근심하드라, 군스와, 제장을다리고  
척을의논하드니, 또괴병잇거날,  
본즉하야쓰되, 아모고죽, 정을앗고  
자스를죽이고, 아즉두류하나, 밧  
되지아셔하야, 화성을, 범하리라,  
하야가날, 이곳지, 화성셔, 밧배리  
밧배, 되지아니난지라, 종아심급하  
야, 장슈빅의원관, 군스심오만을거  
나려, 밧배하셔, 황제원니, 잔을두

시고, 원슈에 제권하야, 갈아되,  
충번니, 다시괴병하야, 밧도화성을  
범하랴하즉, 그형제, 비경호거슨,  
보지아나하야도, 알깃쓰니, 그뒤부  
덕, 경적지말나, 나라홍망이, 이번  
흔번싸움에, 말이였고, 또그되일신  
에, 밧이엿시니, 부되조심하야라하  
고, 문밖집니에나와전송하셔가날,  
위관이다나와, 전송하드라, 원슈,  
명하고, 슈령을갈사, 번진이, 십  
에, 적하야드라원슈그곳에, 처를나  
리고, 주야로군스만, 조리하드니,  
일수는번군중으로, 겨서를, 보되거  
날, 하야쓰되, 뒤전일싸움에, 군스  
를, 뒤반이나죽이고, 본국에도라가  
절치부심하, 마암을의지못하야,  
지금다시, 괴병하야와신중, 이번은  
맛당이, 관원슈를번혀, 그전죽은장  
졸에, 원슈를갑고, 뒤에분함을, 풀  
이라하엿거날, 관원슈, 그글을보고  
되답하야, 갈아되, 네전일도, 천의  
를모로고, 일홍음난, 군스랄일트치  
여, 뒤국을범하다가, 무죄하군조만  
만니죽이고, 네도잔명을, 겨우보  
존하야, 도라갓거날, 또웃지의랄하  
마암을먹고, 여관군스를다리고,  
나를뒤적하하하니, 이번은, 너의무  
리를, 하냐도남기지, 아니하리라,  
하엿거날, 흥번이, 이글을보고, 본  
도도라하니, 원출이, 다른장슈로,  
야금면져싸하하하고, 원출은후하  
이되야, 싸움을도도드라관원슈, 진  
밧배나와, 나난다시갓거날, 적장이  
미쳐, 손을들이지못, 하야, 본진으  
로, 도라실조음에, 원슈, 창으로, 적  
장에머리를치니, 적장이마하에, 날  
여지난지라, 원출이, 이모양을보고  
말을쳐쳐, 달녀들거날, 원슈또호  
원출을취하니, 양장의, 서로어우려  
지미, 손악이, 문어지난것갓고, 바  
다가살난것갓드라, 서로괴운이, 소  
진하야, 양진, 셔, 정을쳐셔, 군스  
를거두니, 삼십여합에, 승부를나노  
지못하야, 날아저물며, 각각본진의  
로, 도라가셔, 날쳐기를, 기다리드라,  
원슈본진에서, 갈아되, 적장원출  
은, 참비범하장슈라웃지근심되지  
아니이로, 미완



報 報

●誕辰發給 本월 삼십일일은, 음력 구월니십오일인디, 이에 의황후, 탄신이라, 드르니, 이날 에, 슈류제를설시하되, 평양도, 함천 군, 하인사에, 평양소찰, 승도드리 크게모이여, 설법승경하되, 참주야 를지천신영의를, 천하니, 의절에 승하거설, 가이성각하니라

我心則降

견노공소, 민영환씨의, 임의희승위, 떠났다느말은, 전하의, 등적하엿거 니와, 그인천하의, 이르기전, 본일의 되고, 영의실일은, 은, 남명했다하되, 동생아오, 민영환씨와, 및그가인등 이, 그의별을듯고, 저작일의, 임의 문저, 인천하의, 가서, 기다리고, 그남어지, 천죽과, 및교우들이, 인 천으로, 마중나가자이, 슈범영인 디, 후유로, 로도나가며, 후유노, 로 도나가니, 슈로의노, 듯되가, 서로 이으며, 유노의노, 거마가, 연락하여, 본처지, 아니하며, 궁니부처신, 나 저술씨도, 또작일의, 인천으로, 영접 하려는가다하되, 가라문과, 가인 비가밋천인천하의, 밋지못한자는, 다주호를, 가지고, 중노의서, 등하 하되, 그입금하는, 남은, 뒤와하는자 이, 반다시, 도로의, 응페하야, 정이 일시의, 승하갓다다라

●大臣更調風聞

근리들으니, 전하 는말의, 말은, 궁니부, 뒤신, 니저술 씨가, 장차상소하되, 스면하고, 견 노공소, 민영환씨가, 그뒤를, 승하단 하되, 영무소, 니종현씨가, 저거번 의, 진소조인, 하엿다가, 우비를, 무 렷더니, 그저과, 또진소, 하엿서, 또 할장차, 스면하고, 파주관찰소, 영무 년저는, 윤치호씨, 부천이라, 아마민 영환씨의, 윤치호씨가, 도라온다는 사달그로, 또하엿서, 하는자들의, 말이지, 저세이, 아저못, 하갓다라

●所謂伊人

전일의, 후이전하는, 말의, 민영환씨, 중도등신, 호바의 하엿서, 민영환씨가, 훈간의, 상하 등지로, 발행하엿서, 곳민영환씨, 유 소로, 하엿서, 동행한다하더니, 저 금들으니, 이번민영환씨, 도라온다 라, 이에 반행하엿서, 도라오지, 아니, 하다하니, 알슈습스니, 전일후자의, 소전할말이, 그른지, 또지금, 소문할

바가, 그른지, 민영환씨의, 거취는, 가히아지못하갓다라

●公州等地方隊廢止

(諭令第六十二號)

제일주, 본년, 충영제사심일일은, 지방의, 편제중, 공주, 춘천, 강계, 지방의와, 충영제 오십구호, 충주, 홍주, 상주, 원주, 지방의단 일병폐지하

●風處有方

작년에 서로설차하, 돌손군은, 전 나도순천군에잇으니, 곳일출이, 방 답이라, 전에첨사를두엇드니, 지금 곳쳐서, 돌손군이, 하야쓰되, 시관 찰스은을열씨, 보고되에, 하지가, 하고도에, 병지하야, 방슈하거만, 어려을별아니라, 그관스와, 공회를 불가불수리하고, 불가불청간할터 이니, 연죽지력만, 허비할싸름이라 움기여수영을설시하야, 순천군 갖가온서, 사면, 방면하명을, 비하 서, 돌손에, 부치면, 불비일하하고, 관영이인고하리라하니, 뒤부뒤신, 박정야씨가하서하갓다다라

●流意備聞

일전에, 평안도유학, 하승원씨등, 상소하일스는, 귀양신 문에, 등적하갓거니와, 지금드르니 소본의와가,

●流意備聞

국부절제역부를, 의논하거신디, 미 장전결복하난일은, 심이불안하미, 맛당이 국장후에, 결복하난거시, 을타하야 장스지되거전, 옷설꽃치자아나하 난거선, 비문에, 분명하고로, 한씨에, 말이, 비제에, 하갓다다라

●流意備聞

학지부뒤신, 스리, 학지부협관김지 중근주, 죽거본부, 미를과 장은호 정, 소보죽, 니위거야, 죽시양에, 적 도십여명이, 각지드금하고, 유장난 일하야, 슈죽관리역속을, 나박구집 하고, 학회지금하야, 임자지고하고

의, 관청, 으로, 감할터이 니하야, 독심인을 의단의, 가령금원 을단은, 단으로, 을니가서 은, 시적 은바, 다

●近來風聞

근이제, 관등으로오단, 지가, 전설하야갈아디, 상는지방에, 갈비도강과하야, 그무리오류빈인의 원주등지로, 간다하고, 영회와, 영덕 근처에비도, 여당드리, 왕후어다 서모이여, 지금거지, 전정어못되갓 다라

●匪徒有日

전하지상에, 귀하얏는 주이공소나하엿서, 부인과息男主 元, 圭福及隨員鄭敬讓, 鄭鶴齡과, 하관에잇 는일인하명을다리고, 지나간구일 에, 동경떠나, 그잇는날에, 신으로 나와서, 그부인과息男두명과하인두 명은, 심이안하, 신호를떠나, 東京九日 두고, 니공소, 일인하고, 그잇는날 심삼일오전하되시와, 화를거두고, 두명도라갓다다라

●航路新聞

일은, 郵船會社에서, 일전에, 횡변과, 미국소이에, 新航 路를내여서, 미국남북철로하고, 연 속케하되, 일본에서, 미국東部를지 나서, 구주각구으로가, 旅客及物貨를 편하게, 便便을내여, 三池丸이란비를 보닛은디, 우선회사에서, 다옥, 필리케크저고, 그철로회사나, 기타 미국에서, 이물들이잇는회사하고, 상 의를하야, 피아회사를두하는, 乘務과 물화 乘務을을게하얏스므로, 그 乘客은, 그乘務을을장만가져쓰면, 미국 에, 하류하야, 그남북철로회사들이 아니라, 다른철로나, 다른회사를을 두고, 가, 便便이잇섯스므로, 길을 섰들은, 乘客은, 금직하, 편하니, 근리 두는, 여의등에, 미국에하류하얏 다가, 다시, 바로, 乘客을을가, 乘務을 사서, 두가, 사들이, 편만하더라

○一六六六 平壤도, 미국으로, 조 치오, 손년의, 말을들으니, 하관 찰부의, 순변의, 원수가본래독심인 하디, 일전의, 지방제도, 지정할씨

정할새  
쌍죽아, 빅우부지라, 그스나 의나

사름이, 금슬아니여든, 비은망의

슬덜<sub>아</sub>뵈고<sub>아</sub> 此國<sub>아</sub>음<sub>아</sub>도<sub>아</sub>선<sub>아</sub>금<sub>아</sub>의<sub>아</sub>

이 요

슬기롭게 고치

슬덜박고 此廣音也 도선 금으

슬덜박고 此國古也 도선 금의

特別廣告

第二九號

居留民一般

近時京城ニ居留セル帝國臣民ノ員數頗ニ増加シ其生業モ亦大ニ發達セシメテ從來ノ制度ヲ増補スルノ必要ヲ認メ茲ニ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ヲ左ノ通改定ス 幸ニ本則ノ下ニ在リテ徒ラニ紛爭ヲ事トスルコトナク和衷協同シテ益帝國臣民ノ公益ヲ増進センコトヲ望ム

公布ス

明治二十九年十月十七日

在京城一等領事加藤増雄

規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則ハ在朝鮮京城帝國居留民ニ施行スルモノトス  
第二條 本則ニ於テ居留民ト稱スルハ帝國臣民ニシテ京城ニ一定ノ住所ヲ有スルモノヲ指ス  
第三條 本則ニ由リ帝國居留民團體ハ一個人ト均シク權利ヲ有シ義務ヲ負擔シ領事ノ監督ヲ受ケ居留民ノ公共事務ヲ自ラ處理スルモノトス

第二章 居留民會

第一節 選舉權及被選舉權

第四條 左記ノ諸項ニ該當スル居留民ハ居留民會議員選舉權及被選舉權ヲ有ス  
一 公權ヲ有スル滿二十五歳以上ノ男子ニシテ治産ノ禁ヲ受ケザル者  
二 六ヶ月以上居留民トナリタル者  
三 地課金年額五圓以上及ハ營業課金年額拾圓以上ヲ納ムル者

第五條 前條ノ資格ヲ有スル者ト雖モ左記諸項ノ一ニ該當スル者ハ選舉權及被選舉權ヲ停止ス  
一 重婚罪ノ爲メ裁判上ノ罰問中若クハ拘禁中ノ者  
二 破産又ハ家資分敗處分中ノ者  
一 居留民會議員及居留民總代ニシテ前第六條 居留民會議員及居留民總代ニシテ前條諸項ノ一ニ該當スル者ハ解任スルモノ

第七條 左ノ諸項ノ一ニ該當スル者ハ居留民會議員タルノ資格ヲ喪失スルモノトス  
一 六ヶ月以上引張京城ニ不在ノ者  
二 永久居留又ハ他ノ地方ヘ轉住ノ目的ヲ以テ京城ヲ去リタル者  
第八條 左ノ諸項ノ一ニ該當スル者ハ居留民會議員タルコトヲ得ズ  
一 京城ニ在勤スル有職ノ官吏

二 有給ノ總代役官吏  
三 神官僧侶及其他諸宗教師  
四 小學校教員

(未完)

本日總第二九號ニ加藤一等領事ヨリ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ヲ頒布セラレタル其ノ結果トシテ來ル 二十三日正午十二時 常設場ニ於テ居留民會議員選舉會ヲ開キ總員十六名ノ議員ヲ撰擧ス

但選舉人名簿ハ本日ヨリ三日間當總代役場ニ於テ公衆ノ縱覽ニ供シ候補異議アル者ハ同期間内ニ申出ラルベシ  
明治二十九年十月十九日  
居留民臨時總代事務取扱 峰尾音三郎

雜報

施政方針

松方總理大臣は去る十三日各地方長官を其官邸に招集し施政の方針を演説ありたり左に其要を摘録す  
本大臣新に恩命を辱けし國務の重任に當たる今や戰後經營の大業僅かに其端を盡さざる事重責に屬す實に非常至難の時なり宜しく内は國民の輿論に考へ外は列國の形勢に察し以て處理の至當を求むるべからず漫に非才を以て任を此際承く或は能く負荷に堪へざらんことを恐る唯誠實以て經營の務を致し鞠躬以て補助の職を盡し而して帝國議會の協賛を全うするを勉め上下一致の效を圖り 至極に對して大政の責に任せんを欲するのみ

列國の交際

權利を伸張

益々其交際を致さんと共に 國家の權利を伸張して貿易の擴張を冀圖せんことを勉め條約改正の未だ終らざるものは速かに之を訂結せんことを期す而して改正條約實施の準備に關しては最も意を用ひて當然收むべき效果をして遺漏からしめんことを勉むべし

護國の軍備

ちて國力の許す限り其の擴張を圖らざるべからず又國家永遠の富強を圖らんと欲せば其の根源たる教育及び農工商の事業を發達せしめざるべからず故に政府は軍備の擴張と共に務めて教育及び實業を奨励するの方針を執りて進行せんと欲す  
言語出版集會等憲法上人民の享有すべき權利自由は政府厚く之を尊重す其保障を固からしめんことを圖るべし

財政の整理

て現今の形勢に適するの策を定め出入の平均を保つことを勉め一方に於ては國家經濟上の擴張發達をして國勢の進退に後らざることを期す

●京尼刺に帝國軍艦を派遣す  
東京ニ刺戟の事ハ已ニ本紙に記する所ありしが同地居留の本邦人も爲りに損害を受けるもの有りしより我政府ハ一方には西班牙語に精通せる三浦龍次郎氏に同地在勤領事代理を命じ本邦人の保護と邦人損害調査の爲め直ちに赴任せしめ一方には邦人保護の爲め去る十三日重慶吉野を派遣せりと

●原公使の東京着 去る四日を以て當地を發し六日豐島丸に搭じて仁川を出發ありたる原公使の一行は七日釜山に着 翌日同地出發 十日午前十時三十分神戶に到着し直に水上警察署の小汽船にて上陸海岸の常盤倉に入り秋山兵衛縣書記官等の來訪を受けられ曉が午後一時四十五分發の汽車にて同地出發 其夜は京都に一泊し翌十一日午後二時四十分發の汽車にて更に東京の途に就き翌十二日午前九時を以て愈々東京に歸着ありたり

●西駐露公使の歸着 露國駐劄本邦公使西郷次郎氏は去る十一日東京に歸着せり  
●大施觀見 來る三十一日(陰曆二十五日)は故 關后の御誕辰に相當するを以て慶尚道陝川郡海印寺にて大施觀見を營み又當日は京城及び地方諸寺の僧徒同寺に參集し三日間觀經を爲すと云ふ

閔泳煥氏と出迎者

遺露公使閔泳煥氏一行は去る十四日を以て浦海を出發せしことは前報に記せしが一行を乗せたる露國軍艦の愈々一昨日釜山に來着せり然れども一行中更に上陸するものなかりしよし而して本日は多分仁川に歸着し明日を以て歸露 歸京する豫定あり右に就き閔泳煥氏の實弟たる泳煥氏及び數名の家人と己に出迎の爲め再昨日仁川に下り其一族知友等四十餘名は亦昨日或は馬に騎し或は轎に乘して下仁川尹教吳氏を始め其他閔公使隨員の家族知友も同じく出迎の爲め一昨日來下仁川し者多く殊に宮廷より慰勞及出迎の爲め一昨日特に宮内大臣李載堧氏と仁川に差遣はれたりと洩れ承はるに左れば右一行の入京は定めて盛觀を極むべく又途中には各所に酒肴を備へて迎接する筈ありと

●閔景植氏 閔泳煥氏の後を逐ふて露國に向ひたりと聞へし夫の閔景植氏等は今回露京の一行と共に歸來せざるべしとの噂有り知らず今日果して那邊に在りや

地方隊の廢止

一方には地方暴徒の猖獗に任せしめ地方には地方不平連を官養し以て亂源を杜絶せんと目的より設置したりと聞へし各地方隊も當初の目的通りの効果を收むる能はざるのみならず公州、洪州兩地方隊の如き却つて暴徒を化し親衛兵を煩はすに至りしもの有りしより政府に於ては地方隊の煩むべからざるを知り發令に各縣邊の地二十餘ヶ所に兵站部を設け一中隊乃至一小隊ばかりの親衛兵を各兵站部に分派し爾來其所在地地方隊は殆んど無用の長物視せられ居りたるを以て吾人は此等の處か

●出征兵士 露國駐劄本邦公使西郷次郎氏の勅令ニ應じて出征兵士は仁川、山、李警務部は重なるに早るものなり

●出納局員 平時に在るの典守を勤

●李公使の朝鮮公使及及員官 午前零時而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李完用氏 臣李完用氏



六と各兵站部に  
示んど無用の長  
人は此等のほか  
徒として交るゝ之を演ぜしめ一回七八  
とし一等より四等まで賞品を與へたり  
二 前垂鬘等 尋常科の女生徒之を演ず

|       |       |       |
|-------|-------|-------|
| 義源    | 井     | 三     |
| 四、七五〇 | 四、四〇〇 | 四、八〇〇 |
| 前期二全ヲ | 全     | 全     |

[illegible]



日本郵船株式會社  
汽船仁川廣告

●玄海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芝罘、天津行

●仙臺丸 十一月三日入港 同廿二日出帆 香港行

●長門丸 十一月五日入港 即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兵庫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豐島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肥後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筑後川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隆盛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明石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信濃川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木曾川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仁川荷客取扱所

●龍仁汽船龍山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正重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二日入港 釜山、元山、浦項行

●京城 莊司回漕店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京城 莊司回漕店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御旅館 東京館



御旅館 朝鮮仁川各居留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スコット乳菓

●レールフル油

●炎癰瘰癧

●弱の小兒

●紐育製藥舖

●日本特約販賣店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順本商行

●薩摩煙草卸賣

●小西儀助

●京城 順本商行

●薩摩煙草卸賣

●小西儀助

●京城 順本商行

●薩摩煙草卸賣

●小西儀助

●京城 順本商行

●薩摩煙草卸賣

●印諸非常直下廣告

●小林好文堂

●茶碗  
●小田卷  
●歌哉句  
●稻荷  
●うんそ  
●善哉  
●御調子

●開業御披露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一石油

●并朝

●冬物

●免許

●私儀

●今般

●通

●私儀

●今般

●通

●私儀

●今般

●通

●私儀

●今般

●通

●私儀

●今般

●通

●私儀

●今般

●通

地方へ出張致  
ハ一層工業ニ  
ト同價從來ノ  
彫刻仕ヲ候間

引販賈致候也

好文堂

急至ハ上借貸ル係ニ店當但  
 候度下被シ越申御  
 堀京大 店商出井 門南京  
 通町阪 店商出井 通大城

并ニ附屬品種々  
過日來冬ニ仕入ノ爲メ日本へ罷越し候處頃日  
珍柄澤山荷着致シ候間此際々々御注文ノ程奉  
希望儀

冬洋服用氈並附屬具各種  
向日來三物質를사러日本으로가더니今  
回珍品佳物이許多히到着方앗소오니來

新荷着廣告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廣告新貨着

冬洋服用靴並附屬具各種  
向日來三物貨를 사러 日本으로 가더니  
回珍品佳物이 許多히 到着을 앞스오니  
來購하야 주시믄 천만만 라옵

京城 長洞

力武洋服店









免轉住廣告

銅砭灸治療所  
許

久田安生堂

胃病・肺病・脚氣・リユウマチス  
瘰癧・疝氣・逆上・麻疹・子宮病  
其他諸症ニ即効アリ

新荷  
到着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鼠葡萄酒  
 佛國名産純良藥用生葡萄酒  
 夏季唯一飲料  
 白砂糖數品  
 平野礦泉水

白砂平野礦泉  
飲 夏 季 離 一 日 一 升

ア  
 ラ  
 ン  
 デ  
 ー  
 ウ  
 ー  
 キ  
 ャ  
 ●  
 ベ  
 ン  
 モ  
 ツ  
 ●  
 ト  
 ●  
 利  
 休  
 酒  
 ●  
 西  
 洋  
 菓  
 子  
 ●  
 果  
 物  
 、  
 鮮  
 魚  
 ●  
 野  
 菜  
 罐  
 詰  
 各  
 種  
 ●  
 佛  
 國  
 製  
 極  
 上  
 等  
 香  
 水  
 、  
 香  
 油  
 ●  
 男  
 女  
 婦  
 孺  
 傘  
 ●  
 姿  
 勢  
 帽  
 子  
 ●  
 和  
 洋  
 小  
 間  
 物  
 雜  
 貨  
 ●  
 和  
 洋  
 紙  
 捲  
 煙  
 草  
 ●  
 洋  
 食  
 器  
 類  
 數  
 品  
 ●  
 泥  
 鏡  
 龜  
 屋

獵

荷 着 廣 告  
 西 元 二 日 本 村 田 式 銃  
 新 式 連 達 銃 銃 銃  
 品

銃 附 屬

和泉商會  
護漠履  
長  
西洋服各種  
帽

露披御着到荷新

● 瓶入洋菓子數種  
● 梨、桃、梅、杏、罐詰  
● 堅魚でんぶ  
● 小鳥大和煮

● 鮮魚佃煮 ● 海苔大和煮

外二

|    |    |    |    |
|----|----|----|----|
| ●松 | ●竹 | ●福 | ●柔 |
| 茸  | の  | 神  | 艸  |
| 子  | 漬  | 漬  | 漬  |
| ●椎 | ●豆 | ●伽 | ●辛 |
| 茸  | 茸  | 茸  | 子  |
| 茸  | 茸  | 茸  | 茸  |

京城泥規

龜屋

○第七會正風集

題紅葉鹿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奇張一  
十月二十日 ●撰定全月  
廿一日翌日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通稱ノ明記ナク  
句調  
●入花堂組（拾句）金六錢  
餘ハ壹組四錢詠草ニ添ユ  
正風會  
漢城新報  
社裡僑設

一字山 治城 新茶

御玉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ヨリ五圓迄  
御煎茶 一斤金拾六錢ヨリ壹圓迄  
御薄茶 極細。廣葉。上別儀。  
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次第早速  
晚上ケ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増彥倍着ノ御受取テ  
冀フ

一名肥後  
朝鮮飴

大方ノ諸産一箱試用シ玉ハンゴトヲ窮ス  
朝鮮國京城泥岬

小林菓子製造所

新開定價

|   |    |    |   |   |   |
|---|----|----|---|---|---|
| 一 | 枚  | 貳  | 錢 | 五 | 厘 |
| 一 | 個月 | 貳  | 拾 | 五 | 錢 |
| 三 | 個月 | 七  | 拾 | 錢 |   |
| 六 | 個月 | 壹  | 圓 | 叁 | 拾 |
| 五 | 號  | 活字 | 貳 | 拾 | 字 |

諸堂行登回金六  
錢但し行數及回數により關引仕  
料金は悉皆額金にて可申受病事

廣告料

河村至誠堂

茶店  
河村

贊化病院

近來流行ノ熱性病(所謂朝鮮熱ニ限リ實ニノ外ハ入院科ヲ徴收セザルニ付キ該病者ハ入院治療相成度候也

發行所  
漢城新報社

發行兼印刷人 莊林  
編輯人 島田  
朝鮮京城南區會賢坊路福安  
發行所 漢城新報社



隔日發行

● 誣告者判決  
後錄

판결선고서

한성부 중부전동

충청남도, 남포군 전사과 연사십이

연삼십의

우난, 피고에, 눈이 병과, 김홍제에  
달하스건은, 檢事의 公訴에, 由하야, 審  
理하니, 피고 눈이 병이가, 근양원년  
팔월, 나심삼일에, 홍지순과, 나중일을  
과, 나윤승과, 나종우와, 유학주와,  
정훈교와, 전봉익과, 고발호되, 우  
인두이, 在逃한, 逆黨을, 相連하야, 뒤  
스를, 同謀한 다하얏스나, 피고가, 우  
인등의, 謀議情節을, 초본聞知하고, 김  
홍제의 給函바, 錄紙로, 고발하얏다하  
나, 김홍제난, 허독지물, 임지수에  
게, 給하고, 눈이 병에 게난, 親授치아  
나홀이, 實地장에, 현노하얏고, 準

ᠣᠪᠤᠨᠭᠡᠢᠰᠦᠨ

丙下 古詩 錄紙를 渠의 고 발을 마, 아 니  
라 하 야, 百發紙 顧 하 야, 賦情을 圖 眩 하  
다가, 종년 자 복 하 앓고, 피고 김 흥 제  
난 본 시 남 포고고, 인이 돈, 명 향 에, 출  
몰 하 야, 혹 一 등 에 도, 發 出, 하 고,  
혹 하, 비 도 에 도, 입 도 하 야, 인 민 을,  
선 후 하 고, 음 역 북 년 정 월 문 에, 유 회  
장 두 로, 취 당 하 야, 남 포고 고 에, 들 입  
하 야, 관 리 를, 협 박 하 다 가, 敗 勢 하 후  
에, 芳 明 堂 景 하 야, 전 습 을, 不 發 하 고  
伏 聞 상 소 하, 모 폐 를, 주 출 하 야, 景  
望 年 민 을, 소 취 하 야, 양 외 를, 빈 처  
하 고, 니 각 에 在 하, 관 인 을, 귀 회 당 에  
다, 총 하 야, 剷 除 하 라 하 앓고, 휴 심 을

제인의 죄목을 擧揚하야, 임지슈에게 給與하야, 고발하기예 得으랴스나, 右의고흔, 홍지슈과, 니종일과, 유학주난, 本所심스, 호난장에, 實히이도무하니, 피고윤이 병과, 피고기

홍제에 구무함이, 진적하고, 니은포스  
은, 유한주에, 스관주인관, 同家貫  
혼, 因由로 混同被捉 이오, 정방임은,  
정운교에, 오전으로 被捉함의오, 니

종우와 정은피난 三月에 入京하  
 去았스나, 피고윤이 병과, 피고김  
 世에, 고발호 錄紙가, 무실호 즉, 許  
 인에, 무죄호는, 自辯辨明을 지라, 기  
 스실은, 피고등에, 陳供自服과, 設

人의 辨供及 對質에 照하야 명백한지  
라, 차를, 법에 照하니, 피고는, 제  
이, 實犯이 유할찌면, 모반을에 照하  
얏슬지라, 피고는 병은, 訴訟編纂  
條 訟告人至死罪所認之人未決者律에, 처하

만하고, 피고 김홍제 남, 비 도자關호  
죄로는 하며, 訴訟編口帶妻訴直入衙門決  
官吏者律<sup>律</sup> 처할 만하고, 違각인 원을  
則除<sup>律</sup>라든 죄로, 논하면, 人命編謀殺

餘謀而巳行未曾傷人者律에 처할 만하고  
유학 증등을 스죄로 講區호죄로 노  
하면 訴訟編區告條區호인至死罪所依之上  
未決者律에 처할 만하나 二罪以上俱發  
以重者論律에 처할 거시니라 右理由

피고윤이 병은, 장일백, 유삼천  
에, 照亨야, 증역차단, 제일조에, 하  
하야, 티일백, 증역중산에 처하고, 피  
고김홍제 난, 장일백, 유삼천리에  
조하야, 증역차단, 제일조의의

야, 퇴일회, 증연총선에 쳐야 노라  
근양원년십월 십일, 고등재판소  
에서  
금스니회구, 금스유학근, 금스

|             |     |
|-------------|-----|
| 고등적 판속, 지판장 | 한규선 |
| 판속          | 권지현 |
| 판속          | 서정근 |
| 예비판속        | 김효선 |

판결선교서

한성부 중부티스동 전경무관  
피고 니세진

5

右 피고, 니 세 진에, 野亭, 스 건은, 故事  
에, 公訴에, 由하야, 審理하니, 피고 가,  
근양 원년 팔월 니 십 삼 일에, 김춘희  
와, 유세남과, 니 조원과, 구원 회와,  
현영은에, 陰謀가 유함으로, 고발호  
니, 김춘희 난, 行止슈상하고, 인어耶  
許하다 하얏고, 유세남과, 니 조원과  
구원 회 난, 정부 機關을 企圖가, 유하  
다, 하얏고, 현영은은이니

王太后 壽命을 가축하야, 니 준용으로  
 , 저 더리 홀차로, 알본으로서, 병적  
 을, 솔니하야, 거스케, 홀다하얏스  
 나, 본지 판소에서, 右丞相에, 더하야  
 竊查 功績, 仁厚 純和에, 형지 수상, 言語 乖  
 悖 誼은, 피고가, 이 무목 건함이 업고,  
 다만 임지 슈에 게, 闕得 하얏다 하고,  
 임지 슈도, 賢明 純和은, 무하고, 忠

금  
서

서

耳

진에, 인을 藥하야, 고 발하얏스나, 하  
진은, 음녀사월간에, 구완회가, 나  
종원의, 가에서, 유제남으로, 痛飲하  
고, 귀로에, 하진을, 방하야, 待好風  
來하깃다, 하난인을, 모호히, 聽得하  
고, 정부換局을, 디함이라, 錯認하야  
스되, 허무한, 說이라하야, 置之不探하  
니, 이모의월간에, 渠兄의, 名무관

右 피고, 조  
의 공訴에  
학주의, 조  
으로, 조

명<sup>명</sup>될줄을 지하고 기정<sup>기정</sup>함을 위  
 하야 兇兒에게 예고하바을 피고가  
 認罪고 발하얏스나 구원회난 전  
 부환국 하단언은 나하진에게  
 초불의설 하얏스즉 증거가 역무  
 하고 현양은애 스건은 피고가 주  
 덕거하난 최병일에게 문득하얏다  
 하나 고발하기전에 최병일을 과  
 작으로 쉰 勳動하야 현양은을 右邊  
 죄목으로 고발하게스나 일후에  
 천문함이 유함으로 證供하랴  
 고 피고가 본소에 被訴하호예 渠의  
 무고함이 역의처 무죄판결自便하고

일에, 평  
犯情輕을,  
니심일, 다  
하고, 기  
사에도, 개  
케하니,  
과, 유학조  
빅헌지라  
謫佐之人不  
人罪二等者  
右理由로,  
니년반에  
조제의호  
一하고도라

우에、彙의 조에의 하야、티구십、중역이 년반  
自度하고、처할노라

라 대경의 아흔여덟엿진일이요,

○陰曆丙申九月 小 十六日 (戊申)

○陰曆丙申九月 小 十六日 (戊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

雜報

● 雜報 金漢政府... 駐京公使...

● 駐京公使還歸 公使還歸...

● 駐京公使還歸

아라사로부터 온 민영환씨는...

● 兵站所設置

요정정부에서 군회, 지방회를...

● 西藏叛情

청국을 위하여, 그 영토의...

● 西藏叛情

청국을 위하여, 그 영토의...

● 西藏叛情

청국을 위하여, 그 영토의...

이라, 본래, 청국속국인...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청국속국인, 유지군이 모의...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特別廣告

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

規則

第二節 組織及選舉

(承前)

第九條 居留民會議員ハ居留民ノ選舉人其被選舉權アル者ヨリ之ヲ選舉ス其定員ハ十六名トス

第十條 議員ハ無給トシ滿二年ヲ以テ任期トス但毎年其半数ヲ改選ス初回ニ於テ解任スベキ者ハ抽籤ヲ以テ之ヲ定ム

第十一條 議員ハ再選セラルコトヲ得

第十二條 議員中欠員アルトキハ定期改選ノ時ニ至リ同時ニ補選舉行フベシ若シ定員三分ノ一以上欠員アルトキハ又ハ居留民會、居留民總代若クハ領事ニ於テ臨時補充ヲ必要ト認ムルトキハ定期前ト雖モ補充選舉ヲ行フベシ

第十三條 領事ハ選舉ヲ監督ス

第十四條 居留民總代ハ定期選舉ヲ行フ毎ニ選舉期日十五日前ニ選舉人名簿ヲ調製スベシ

第十五條 選舉人名簿ハ五日間居留民總代役場ニ於テ之ヲ居留民ノ總覽ニ供スベシ若シ居留民ニ於テ訴訟モトスルコトアルトキハ同期限內ニ之ヲ居留民總代ニ申立ツベシ居留民總代ハ名簿ヲ修正スベキモノト認メタルトキハ選舉期日五日前ニ之ニ修正ヲ加ヘテ確定名簿トス

第十六條 前項ノ名簿ハ次ノ定期選舉ニ至ルマデ其効力ヲ有ス

第十七條 選舉ヲ執行スルトキハ居留民總代ハ選舉ノ場所日時及選舉スベキ議員ノ數ヲ定メ選舉前五日ヲ限リテ之ヲ公告ス

第十八條 選舉開會中ハ選舉人ノ外何人タリトモ選舉會場ニ入ルコトヲ得ズ選舉人ハ選舉會場ニ於テ協議又ハ勸誘ヲ爲スコトヲ得ズ

第十九條 居留民會議員選舉ハ無記名投票ヲ以テ之ヲ行フ

第二十條 選舉人ハ選舉掛ニテ交付シタル用紙ニ被選舉人ノ氏名ヲ記シ封緘ノ上豫定ノ日選舉掛ニ差出スベシ

第二十一條 選舉人投票ヲ差出ストキハ自己ノ氏名ヲ選舉掛ニ申立テ選舉掛ハ選舉人名簿ニ照シテ之ヲ受テ封緘ノ後投票箱ニ投入スベシ但投票箱ハ投票終了後之ヲ開クコトヲ得ズ

第二十二條 投票終了後ハ領事ノ任命シタル領事館員并ニ選舉掛有スル者二名以上ヲ立會人トシ其面前ニ於テ之ヲ開函シ投票ヲ計スベシ

第二十三條 投票ニ記載ノ人員其選舉スベキ定數ニ過キ又ハ不足アルモ投票無効トセズ其定數ヲ過クルモノハ末尾ニ記載シタル人名ヲ順次ニ棄却スベシ

第二十四條 左ノ投票ヘ之ヲ無効トス  
一 被選舉人氏名ノ外他事ヲ記入シタルモ

投票中左記ノ事項ニ該當スル部分ハ之ヲ無効トス  
一 人名ノ數ミ違キモノ  
二 被選舉人ノ何人タルヲ確認シ難キモノ  
三 被選舉權ナキモノ  
投票ノ受理并効力ニ關スル事項ハ選舉掛長之ヲ決ス

第二十五條 選舉ハ選舉人自ラ之ヲ行フベシ他人ニ托シテ投票ヲ差出スコトヲ得ズ

第二十六條 選舉ハ有効投票ノ多數ヲ得タルモノヲ以テ常選トシ投票ノ數相同アキモノハ年長者ヲ取リ同年ナルトキハ選舉掛長自ラ抽籤シテ其當選ヲ定ム

第二十七條 同得ニ補充員數名ヲ選舉スルトキハ投票數ノ最も多キモノヲ以テ發任期ノ最も長キ前任者ノ補充トナシ其數相同アキハ選舉掛長自ラ抽籤シテ其順序ヲ定ム

第二十八條 選舉掛長ハ選舉錄ヲ調製シテ選舉ノ順末ヲ記録シ選舉終了タル後之ヲ朗讀シ選舉人名簿其他關係書類ヲ合綴シ立會人ト共ニ之ニ署名スベシ

第二十九條 投票ハ之ヲ選舉掛ニ附屬シ選舉ヲ終了スルニ至ル迄之ヲ保存スベシ

第三十條 選舉終了後ハ選舉掛長ハ直ニ當選者ニ其當選ノ旨ヲ告知スベシ其當選者辭セントスル者ハ五日以内ニ之ヲ居留民總代ニ申立ツベシ

第三十一條 第二十三條 選舉人選舉ノ効力ニ關シテ訴訟モトスルハ選舉ノ日ヨリ三日以内ニ之ヲ居留民總代ニ申立ツルコトヲ得

第三十二條 選舉ノ定規ニ違背シ又ハ不正ノ所爲アリタルトキハ領事ハ其選舉ヲ取消シ更ニ選舉ヲ行ハシム

第三十三條 第二十四條 選舉掛ハ居留民總代役場書記ヲ以テ之ニ充ツ

第三十四條 (未完)

居留民一般

議員選舉

議員選舉ニ際シテ多少ノ競争ヲ爲スハ自ラ免ルベカラザルノ勢ニ有之候處競争ノ極動モスレバ種々ノ弊害ヲ醸成スルコト往々其例ニ乏シカラズ故ニ右様ノ場合ニ於テハ明治二十九年五月法律第三十九號市町村會議員選舉規則ニ適用候儀モ可有之候條心得違無之様豫メ注意セラルベシ

明治二十九年十月廿一日

社説

一等領事加藤増雄

議員選舉に際し

敢て居留民諸氏

に一言す

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愈々一昨々日と以て公布せられ該規則に依て成立すべき居留民會議員選舉之期に明日を以て開かれんとす吾人我居留地ノ爲メ之ヲ賀ミざるを得ず

是より先我居留民會ハ半數改選ニ際シテ開票せんとするの際突然選舉中止し開票入し不成立ノ不幸と陷り居留地公共事業の進捗發達を妨礙せしもの少しとせテ畢竟是に其幾分は當時に於ける分黨争鬭が附せる害毒たりとばあらす勝て道ふべけんや勝て道ふべけんや

凡そ何れの時何れの日と問はず分黨争鬭ある者は未だ嘗て多少の害毒を社會に貽せざるをわらへ然れども時としては亦た已を得ざるを吾人と雖も絶對的に之を否定するものにはからず但之ヲ居留地に用うるに至ては斷じて不可なるを信ず何と云へば區々數十萬坪の地僅々幾千人の人の以て數百萬外國人の間に介處し利害を向ふ運命を共ニ同舟の勢あるのみならず其の一蹙一伸一俯一仰は直接に影響を其の本國の上に及ぼすを以て若し之を生ずる害毒をして甚だしく蔓延せしめ之れが爲め居留地の當然主持すべき權利を改得すべき利益とを他に侵蝕奪取せらるゝ如きに至らば則ち是れ其の本國の主持すべき權利と改得すべき利益とを毀損するものにして決して已を得ざるの一語を以て解脫すべきにあらざればなり是蓋し吾人の私言にあらず苟くも常識と有する者の齊しく首肯する所なり

若し更に進んで我居留地刻下の情勢に就て一考せば争鬭の殊に忌まざるべからざるを識破するに難からず前後數回の事變等より生じたる商況の不振之爾後幾月を経たるも依然として恢復する所あらず戸口頗る増進 生業大に發達する雖も道路の開通の如き衛生法の設施の如き幾多の經營を要するもの甚だ少からず是れ皆吾居留地の急務にして一日を給ふすべからざるもの宜しく和衷協力速に之を挽回の策を講じ整備の方を圖らざるべからず是の時方にて更に黨を分ちて相反目し徒らに政争を是れ事とし焦眉の急務を捨て顧みざるのみならず從前保持せられ來りたる平和を併せて之を破壞に趨し其の結果居留地唯一の機關として其の運轉を停止するの不幸に至らざる如きことあらんは如何なる口實ありと雖も決して居留地に對して親切あるものと謂ふべからず又た其の本國を顧念するものと謂ふべからず

然れども吾人は又た争鬭を思ひの餘徒らに街且自から安んじ偏へに團滑を言ふべしと勸告し只當り居留民會の成立を希望して其の體質の如何を問はざるものならざるに情勢の至緊なるものと以て居留民會の任務の至重きを知らず又た新たに成立すべき居留民會は至りて健全として此の至重の任務を全ふするに充分なる機能と有する者あらざるべからざるを知る若し分黨争鬭をして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最も適當なる方法ならしめば吾人面より双手を舉げて之を歡迎すべし然れども分黨争鬭が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適當なる方法ならざるは事實の示す所昭々として復た疑を容るべからず分黨争鬭は縱令充分なる効果を収むるに不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過ぎず而して一たび歩武を誤ると及んで必らず豫想外の結果を生じ居留地全体の渾身の利益と打破 延びて其の本國の上に及

は 眞は 是より先我居留民會ハ半數改選ニ際シテ開票せんとするの際突然選舉中止し開票入し不成立ノ不幸と陷り居留地公共事業の進捗發達を妨礙せしもの少しとせテ畢竟是に其幾分は當時に於ける分黨争鬭が附せる害毒たりとばあらす勝て道ふべけんや勝て道ふべけんや

凡そ何れの時何れの日と問はず分黨争鬭ある者は未だ嘗て多少の害毒を社會に貽せざるをわらへ然れども時としては亦た已を得ざるを吾人と雖も絶對的に之を否定するものにはからず但之ヲ居留地に用うるに至ては斷じて不可なるを信ず何と云へば區々數十萬坪の地僅々幾千人の人の以て數百萬外國人の間に介處し利害を向ふ運命を共ニ同舟の勢あるのみならず其の一蹙一伸一俯一仰は直接に影響を其の本國の上に及ぼすを以て若し之を生ずる害毒をして甚だしく蔓延せしめ之れが爲め居留地の當然主持すべき權利を改得すべき利益とを他に侵蝕奪取せらるゝ如きに至らば則ち是れ其の本國の主持すべき權利と改得すべき利益とを毀損するものにして決して已を得ざるの一語を以て解脫すべきにあらざればなり是蓋し吾人の私言にあらず苟くも常識と有する者の齊しく首肯する所なり

若し更に進んで我居留地刻下の情勢に就て一考せば争鬭の殊に忌まざるべからざるを識破するに難からず前後數回の事變等より生じたる商況の不振之爾後幾月を経たるも依然として恢復する所あらず戸口頗る増進 生業大に發達する雖も道路の開通の如き衛生法の設施の如き幾多の經營を要するもの甚だ少からず是れ皆吾居留地の急務にして一日を給ふすべからざるもの宜しく和衷協力速に之を挽回の策を講じ整備の方を圖らざるべからず是の時方にて更に黨を分ちて相反目し徒らに政争を是れ事とし焦眉の急務を捨て顧みざるのみならず從前保持せられ來りたる平和を併せて之を破壞に趨し其の結果居留地唯一の機關として其の運轉を停止するの不幸に至らざる如きことあらんは如何なる口實ありと雖も決して居留地に對して親切あるものと謂ふべからず又た其の本國を顧念するものと謂ふべからず

然れども吾人は又た争鬭を思ひの餘徒らに街且自から安んじ偏へに團滑を言ふべしと勸告し只當り居留民會の成立を希望して其の體質の如何を問はざるものならざるに情勢の至緊なるものと以て居留民會の任務の至重きを知らず又た新たに成立すべき居留民會は至りて健全として此の至重の任務を全ふするに充分なる機能と有する者あらざるべからざるを知る若し分黨争鬭をして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最も適當なる方法ならしめば吾人面より双手を舉げて之を歡迎すべし然れども分黨争鬭が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適當なる方法ならざるは事實の示す所昭々として復た疑を容るべからず分黨争鬭は縱令充分なる効果を収むるに不健全なる居留民會を得るに過ぎず而して一たび歩武を誤ると及んで必らず豫想外の結果を生じ居留地全体の渾身の利益と打破 延びて其の本國の上に及

は 眞は 是より先我居留民會ハ半數改選ニ際シテ開票せんとするの際突然選舉中止し開票入し不成立ノ不幸と陷り居留地公共事業の進捗發達を妨礙せしもの少しとせテ畢竟是に其幾分は當時に於ける分黨争鬭が附せる害毒たりとばあらす勝て道ふべけんや勝て道ふべけんや

中止し即ち久  
公共事業の進  
るに際しては  
分党争闘ある  
の今日に在りて再び前日の現象を反覆すべし  
とて紀要を抱くことあるべし吾人は獨り  
從來の行爲に上其が多少其の形を變じて  
再び現出することあるやを故に明か復た一言  
せざるを得ず而して吾人は我が沈着にして忠  
實なる居留民諸氏が分党争闘の不可を知りて  
之を絶するに同時に目下現存せる某地派と  
日ひ其結合を日ふが如き凡て分党争闘の端  
を啓く虞あるものを併せて悉く屏棄せんこ  
とを希望するものなり

維  
報

●金議政始氏 一昨日東京小門外の三人  
黨より入城せしよし或は云ふ氏は參政院容  
參贊金明眉氏等の手を通じ辭職の運動中にし  
て若し退屈せられれば其後任は夫の水橋大臣  
趙秉世氏ならん  
●新任英國總領事の來着 ヒリア氏の後を  
繼ぎ在北京英國公使館書記官より當地在勤の  
總領事に轉任したるジョルマン氏は再昨日夫  
人と共に來任せり

閔遣露使の歸着

露國公使館開張は豫定の如く一昨日正午頃  
露國軍艦グレンマスキー號にて仁川に歸着し  
同港まで出迎の露國公使 ウーバー  
同公使館付陸軍大佐ストレルボツキ、漢城  
判尹李采淵、秘書院金錫陸、宮内府參議官梁  
宗彦の諸氏及び氏の弟弟環氏並に其他の一族  
知友等數十名に迎へられて三時半頃上陸し同  
地各國居留地順信昌の家に入り茲に一泊し昨  
朝七時過出迎の人々と共に同地を發し陸路入  
京の途に就き三時過驪州に着せし是より先き  
鐵道に各大臣、各協辦、其他の高官、宮内  
官吏及び閔氏の知友等數百名と既に同地に在  
りて之を迎へ閔氏は此等の人々と共に同地驛  
參奉某の家に入りて休憩せり當日露公使ウー  
バー氏及其他の露國人は右一行に免れ十時  
頃仁川を出發せしが四時廿分頃に至り驪州に  
着し亦露參奉の家に入り茲に一行に會し驛が  
て三十分間も經て閔氏は露公使以下數名の  
露國人、李宮内、李軍相、李外相、金鴻範氏等と  
共に同地を發し六時過西大門より入京し大  
君主陛下に謁見の爲りか直に露國公使館に入  
り他の出迎者は隨一行に先立ち三々五々歸  
り去れり此日 大君主陛下よりは特に閔公使  
を就請し出迎すべき旨各大臣も勅命を下し給  
ひしと洩れ承はる

●露國公使 昨日閔公使一行と共に入京せ  
し露國人は同公使ウーバー、陸軍大佐スト  
レルボツキの二氏と外に三名にして内二名  
は今回新に渡來せしもの、如く其一名は露に  
閔公使の一行と共に歸朝したる同公使館付書  
記官スタイン氏あるべしと云へ他的一名の

何人あるや未だ知るを得ずされど武官とも  
見へざりければ或は前に略さるりし同國外務  
省官吏ヒナン氏にはあらざるか  
●出使功徳 閔泳煥氏の歸來後宮内に相た  
らんとの噂は之を耳にするや既に入し而して  
氏の歸來と共に此辭は一層高まり此辭にし  
て果して事實とあらば現宮内大臣李鴻範  
氏は多分農商工部大臣に轉せんといふ或は閔  
氏を以て内務大臣に擬するも有り又閔氏は當  
分出でざるべしとも云へり其何れか事實とす  
るや諸君數日の後を待て  
●尹致昊氏 遺露公使の強員たる同氏は浦  
羅にて閔公使の一行に別れたりしが次便にて  
歸國すべしと云ふ  
●朝鮮官吏の奉迎 今回小松若宮殿下の御  
來京に付き朝鮮政府より明日外務部協商未  
喜氏及宮内府高等官一名を仁川に派し同地に  
奉迎せしむるよし

兵站所設置

露廷にては今回地方家の廢止（前號參看）と  
共に京畿、忠清、慶尙、江原の四道を各六區  
に分ち一區毎に一の兵站所を設け地方の状況  
により二三十名より數百名の親衛兵を絶へず  
茲に駐屯し各兵站所の間には互に連絡を通じ  
緩急相助けしめ以て匪徒の擾亂に備ふること  
なり此種李軍相より上奏し既で御裁可あり  
たり聞かば如く以上の各道に配置する  
兵數は京畿道に三百四十名（京城一除）、忠  
清道に七百五十名内外（内二百名は清州地方  
家を以て充つる）、慶尙道に二百名、江原  
固城、及大邱の兩地方家を含するものなる  
や否やは未詳、江原道は六百餘名にして現今  
出征中の親衛兵を以て直に之を充つるものな  
り今以上の總兵數を算すれば實に二千九百  
餘名にして此中清州、及固城、大邱の兩地方を  
含むものとし之を扣除するは親衛兵の數は  
二千名を下らざるべく即ち正に既設五箇大  
隊中の半數を出駐せしむるものなり

誣告判決書

金春熙、劉世南等諸氏を誣告したる、李世鎮、  
尹殷炳、金弘濟等の所判は過日の紙上に記せ  
る、今先づ李世鎮に對する宣告書を懸れば左  
の如し  
判決宣告書  
漢城府中部大寺洞 前聲務官 李世鎮  
被告 年四十  
右被告李世鎮に對する事件は檢事の公訴に  
由りて審理するに被告は建陽元年八月二十  
三日金春熙、劉世鎮、李宗遠、具完喜、玄英  
に陰謀有りと告發し金春熙は行止未定、言  
語乖謬なりと云ひ劉世鎮、李宗遠、具完喜に  
は政府機關の企圖有りといふ玄英は、三  
太後の 勅命ありと假稱し將に李鴻範を以  
て代理せしめ日本より兵丁を率ひ來りて事  
を舉げんとすといふも本裁判所にて右各案  
に對し審査するに金春熙の行止未定、言語  
乖謬なりと云ふは被告が自ら開明せしむる  
らハ林志泰より聞き得たりと云ひ又林志泰  
も親しく開明せしむるに先づ金春熙と

●李世鎮氏 法部主事たりし同氏即ち前年  
の李鴻範氏は頗る依り本官と免せらる  
●榮業園本部會出席員 法部主事、玄英、二  
十名の互選にて山口太兵衛、瀨上貞助、岩佐  
教輔の三氏當選せり而して以上三氏にして萬  
一已と傳ざるの差支へ有る場合には順次々點  
者を以て之に充つと云ふ  
●軍艦出入（仁川） 閔公使一行と連なり  
露國軍艦グレンマスキー號一昨日正午漢城より入  
港、韓國軍艦パンダノ號同日辰時（午前）

●金議政始氏 一昨日東京小門外の三人  
黨より入城せしよし或は云ふ氏は參政院容  
參贊金明眉氏等の手を通じ辭職の運動中にし  
て若し退屈せられれば其後任は夫の水橋大臣  
趙秉世氏ならん  
●新任英國總領事の來着 ヒリア氏の後を  
繼ぎ在北京英國公使館書記官より當地在勤の  
總領事に轉任したるジョルマン氏は再昨日夫  
人と共に來任せり

●閔遣露使の歸着  
露國公使館開張は豫定の如く一昨日正午頃  
露國軍艦グレンマスキー號にて仁川に歸着し  
同港まで出迎の露國公使 ウーバー  
同公使館付陸軍大佐ストレルボツキ、漢城  
判尹李采淵、秘書院金錫陸、宮内府參議官梁  
宗彦の諸氏及び氏の弟弟環氏並に其他の一族  
知友等數十名に迎へられて三時半頃上陸し同  
地各國居留地順信昌の家に入り茲に一泊し昨  
朝七時過出迎の人々と共に同地を發し陸路入  
京の途に就き三時過驪州に着せし是より先き  
鐵道に各大臣、各協辦、其他の高官、宮内  
官吏及び閔氏の知友等數百名と既に同地に在  
りて之を迎へ閔氏は此等の人々と共に同地驛  
參奉某の家に入りて休憩せり當日露公使ウー  
バー氏及其他の露國人は右一行に免れ十時  
頃仁川を出發せしが四時廿分頃に至り驪州に  
着し亦露參奉の家に入り茲に一行に會し驛が  
て三十分間も經て閔氏は露公使以下數名の  
露國人、李宮内、李軍相、李外相、金鴻範氏等と  
共に同地を發し六時過西大門より入京し大  
君主陛下に謁見の爲りか直に露國公使館に入  
り他の出迎者は隨一行に先立ち三々五々歸  
り去れり此日 大君主陛下よりは特に閔公使  
を就請し出迎すべき旨各大臣も勅命を下し給  
ひしと洩れ承はる

●露國公使 昨日閔公使一行と共に入京せ  
し露國人は同公使ウーバー、陸軍大佐スト  
レルボツキの二氏と外に三名にして内二名  
は今回新に渡來せしもの、如く其一名は露に  
閔公使の一行と共に歸朝したる同公使館付書  
記官スタイン氏あるべしと云へ他的一名の

●李世鎮氏 法部主事たりし同氏即ち前年  
の李鴻範氏は頗る依り本官と免せらる  
●榮業園本部會出席員 法部主事、玄英、二  
十名の互選にて山口太兵衛、瀨上貞助、岩佐  
教輔の三氏當選せり而して以上三氏にして萬  
一已と傳ざるの差支へ有る場合には順次々點  
者を以て之に充つと云ふ  
●軍艦出入（仁川） 閔公使一行と連なり  
露國軍艦グレンマスキー號一昨日正午漢城より入  
港、韓國軍艦パンダノ號同日辰時（午前）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玄海丸

十月廿二日出帆 同廿一日  
入港 芝罘、天津行  
八百七十四噸 船長 茂木 嗣之

仙臺丸

十一月三日出帆 二日入港  
長崎、香港行  
一千六百四十四噸 船長

長門丸

十一月五日入 即日入港  
長崎、釜山、元山、浦項行  
千四百四十九噸 船長 ウェイソ

兵庫丸

十月 日入港 日入港  
長崎、釜山、元山、浦項行  
八百八十一噸 船長 ウェイソ

豐島丸

十月 日入港 日入港  
釜山、馬關、神戶行  
六百八十九噸 船長 井上 三郎

肥後丸

十月 日入港 日入港  
釜山、馬關、神戶行  
八百七十一噸 船長 村井 保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 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筑後川丸

十月廿二日入港 同廿三日出港  
釜山、馬關、神戶 大坂行

隆盛丸

十月 日入港 同 日入港  
釜山、馬關、神戶 大坂行

明石丸

十月 日入港 同 日入港  
釜山、馬關、神戶 大坂行

信濃川丸

十月 日入港 同 日入港  
釜山、馬關、神戶 大坂行

木曾川丸

十月 日入港 同 日入港  
釜山、馬關、神戶 大坂行

仁川荷客取扱所

大坂商 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廿二日 午前七時出帆

正重丸

十月廿三日 午前六時半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京師 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京師 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川畑勇吉

京師 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御座敷見物之旨とす  
旅館 東京館  
御座敷見物之旨とす

御座敷見物之旨とす  
旅館 東京館  
御座敷見物之旨とす

スコット乳 肺病氣管支  
スコット乳 肺病氣管支

薩摩煙草卸賣 (刺捲共)  
薩摩煙草卸賣 (刺捲共)

諸非常直下廣告  
諸非常直下廣告

開業御披露  
開業御披露

一石油 大販賣  
一石油 大販賣

冬物洋新  
冬物洋新

免許  
免許

一石油 大販賣  
一石油 大販賣



方へ出張致  
一層工梁ニ  
同價從來ノ  
刻仕り候間

知文堂

御申越シ被下度候  
京都南門 大坂 井出商店 大坂 京都 通

之請一杯  
 ナカ〜に  
 山來かね  
 玉子御  
 血かかか  
 熱釜  
 蕎麥  
 販賣  
 少ニ限ラズ  
 販賣  
 古味六  
 三想門日  
 山張店  
 田組

新荷着廣告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并ニ附屬品種々

過日來冬仕人ノ爲メ日本へ罷起シ候處日  
珍柄澤山荷着致シ候間此際額々御注文ノ程奉  
希望候

廣告新貨着

冬洋服用紙并附屬具各種  
向日來로貨物을 사러 日本으로 갔더니  
同珍品佳物이 許多한 到着을 앞스오니  
購하야 주시물 甚만브 라읍

力武洋服店

免轉住廣告












鍼術灸治按  
治療所  
許

私儀は、今迄テ田原旅館ニ止留罷在候處、  
今般部合ニ據リ左ノ處へ移仕仕リ從前  
、惡リ不相變治候仕候  
泥親田原旅館向高平借宅

久田安生堂

●胃滞 ●肺癆 ●脚氣 ●ヲニクマナス  
●瘧氣 ●疝氣 ●逆上 ●淋病 ●子宮病  
●其他諸症ニ即効アリ

## 久田安生堂

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  
 アサヒビ  
 アサダビ  
 蜂印香鼠葡萄  
 佛國名產  
 海軍採用  
 夏多味  
 白砂糖數品  
 生葡萄酒  
 平野礦泉

泥  
規  
龜  
屋

廣 告 品  
 着 荷 銃  
 二 元 西  
 日 本 村 田 新  
 式 銃  
 連 銃  
 屬 附 銃  
 會 商 泉 和  
 帽 西 長 護  
 洋 服 各 種 履  
 子 履

新荷到着御披露

東京カル、ス煎餅  
船來ビスケツト  
瓶入洋菓子數種  
梨、桃、梅、杏、罐詰  
堅魚、でんぶ  
小鳥大和煮

鮮魚佃煮  
海苔大和煮

松茸 ● 椎茸 ●  
竹の子 ● 豆漬 ●  
福神漬 ● 加羅ふき漬 ●  
栗焼うどん ● 辛子漬 ●

京城泥鰌 龜屋

○第七會正風集

題紅葉鹿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寄限  
十月廿五日 ●撰定全月  
廿六日翌々日漢城新報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旬調  
●入花堂題（拾句）金六錢  
餘ハ電報四拜詠草ニ添ユ

漢城新報  
社裡僑設

正風會

一字山  
治城  
新  
茶

御玉露 一斤金壹圓五拾錢、玉露茶  
御煎茶 一斤金拾六錢、玉露茶  
御薄茶 極微。煎茶。上別儀。  
此三種御入用ノ御、御申越々大御草紙  
侍上ノ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崎普仕ノ期間大方ノ諸邸皆舊ノ御愛求テ  
莫ク

茶店  
河村至誠堂

贊化病院

小林菓子製造所

新規定價

|   |        |
|---|--------|
| 一、校   | 貳拾五圓   |
| 一、國月  | 貳拾五圓   |
| 三、國月  | 七拾圓    |
| 六、國月  | 壹圓參拾五圓 |
| 五、號活字貳拾字時壹行壹圓金六錢但し行數及回数によつて用件料金に懸差附金にて可申受候處 |        |

發行所 漢城新報社  
發行人 在 林 雲 人  
編輯人 島 田 龜 雄  
朝鮮國京城南區會安坊路彌契



조벽관니, 아모게척옵고, 다만황제  
만되시고, 의논이불일할즈음에, 호  
스람이, 출반슈알, 소신이, 나가서,  
호반막어보리다하고, 여간군스람,  
하야나가거날, 이난우의전예, 아달  
반곡이라, 황제다하여기스, 갈아  
스되그디가, 나라를위하야, 이갓치,  
죽음을, 헤아리지아니호니, 그디난  
충성을다하야, 변진을, 몰아치라,  
하거날, 반곡이슈명하고되다라충번  
을치니, 충번니말페을나, 슈홉아못  
하야, 반곡의군스, 다도망하야, 다라

나그날 반곡야, 뒤적지못하야, 또  
한도망하야, 본진으로도라오니, 충  
왕후가, 어려운지라, 황제해아리되  
니 밧그로, 에워삿거날, 나난식도, 뒤  
를잡우시고, 울으시며, 갈아스디, 러  
러빅년, 스죽이, 뒤계와셔, 보존치못  
함면, 지향에가셔, 천왕을, 무손면  
국으로, 뒤향여, 볼고, 하사머스려하  
시드라, 잇세충번니, 글월을, 전하  
나, 갈아디, 뒤국황제난, 이글을, 자  
서이보라, 뒤전일에난, 지경에드러  
과셔, 십만디병을, 몰슈이죽이고,  
다시심오만군스를, 이르키며, 황성  
에웨스니, 광원슈도, 뒤에진중에  
잇난지라, 다시누가잇셔, 뒤적하을  
오, 시운과, 천서가, 허릴옵시니  
복하야, 도란에든, 병성을건지코  
나라를보존하랴, 하엿거날, 황제,  
글을보시고, 조신을, 도라보아,  
아스디, 지금시각이, 위터하니,  
지향면, 조홀지, 의논하랴라, 하시  
날, 머피조진드리, 혹은황후하야

구차로아, 스죽을보존하리우,  
는지도, 잇셔, 서로의논이, 분등  
여 날이 늦도록, 의논을, 결단치  
스죽더라, 잇셔 황제, 아모리 해아리  
다른게척은, 읍고, 항복아니하  
만조와백관과, 역조창성이, 다  
을지경에, 이르난지라, 다시사관  
로하야금, 답서를써셔, 가져오라  
교, 하얏거날, 스관니무슨또으  
답서를, 쓰라하시나잇가하디,  
제눈을이, 비오듯하시면미완

雜報

日艦松島號將入于仁川港

日本帝國海軍松島號巡洋艦、작일에 부산으로나왔는데、모리오전에、부산을떠나서、이십칠일에、인천으로、나올터라、이병선에는華頂宮殿下가、최근少尉로 승격되고、도조井指揮官이 두었다

●親王御臨 金회나오실친왕전하를奉迎하러、일관에서는、日置寺과관이、어제、후로로나오고、도선정부에서는、외부협판고영희씨와、궁내부관원명인이、어제、슈로로、인천가터다

●親王御臨 小松宮親王殿下가、문안으로、드러오실날조는、전에、기록하얏거니와、혹、이심오일로入京하실년지알수없고、도선정부가실정관은國交上의禮節으로、도선정부에서는、맛당할집을두리자물하얏다하되、동전하는、오래前京하시던것도아니신즉、아마、일본공소관에、들으실터허리라더라

●議政府會議 지나간이십일저녁에는、의정부각장정들이、모와서、상의를하얏는데、그議事는、충동대할일이라더라

●王事監臨 의정、김공이、본월이십일에、성근본집으로、드러와서、다시、사직상소를、도송되、또불은지비를、맛와와김공이、불을이하얏다하얏다

●傳聞姑誌 혹이전하야이르되、민영환씨가、장차근무되신을、하단하나、전설을、자서이、모로기더라

●非復政體 民衆의言動으로、세인이、조연히注意하얏섯스므로、그러한지、소문중에서二를、기록하니、동씨가나올때、삼기로、마지러간客은물론하고、대소관리가、민씨를돕혀서、쇼인이라하되、民이라하니、동씨는、이러한사를더러고、티우리나라중국이、구습을폐치못함미、이라하니、사람이란거슨、맛당히自由平等치아니지못하더런데、엇지、그러케、남을위하야、제국을廢棄하단것이、우어있노、이후는、피수對話에는、부디平等한말을쓰잔

다더라、또그런데、도라와서、곳의정부로、단말하야하겟다하말을하얏다하되、이말의眞實함은、동씨가言動으로他日을보사다

●俄兵來朝 아라사유군병정심상명은、유군소관명인이、러시아에、과지하(그레미스키)號의水客하고、가치、인천에서、작일밤에、슈로로入京하얏다하、드른바에는、이병정은、민영환씨일행하고가치、희상위에셔나왔는데、그심상명의유군병정이란거슨、아마下士官이고、도선병정을訓練하단사람이라라、또그(그레미스키)號에는、아직도、유군소관이유청명인이、두었다하

●隨員還歸 민스하인김득간、김도일두씨도、금회동씨하고、함피도라왔는데、이두사람은、일간에、상당할비승을식기러하더라

●嚴觀察 남방모유관찰소、모씨가、고루하야、자리에마암되로、스녀형의가、잇난고을이면、무단나、구무하야、도조하고、또각군、부민들、동혹여당이라、알것고、또비도라하얏야、미신이착수하고、無證하야、고등저판소에、보고하니、지판소에서、需證하야、보통、허무한일이되반이나되나저라、근일에、법부로서、그정상을알고、그법이난걸노、칙하니、잔민이홀노、관찰에、학정하되되니、우지이그려、말하리오하더라

●冤部守 월전에、공주관찰소、니관하씨가、슈령監獄中에、정소군수、유관병씨、또하가온데、드러쓰되、니부로、그군수를、씨시니、유씨가、씨원중하단하야、일전에、법부로、지판하기를청하니、법부에서、씨하되、관찰소가、피고되단、적예단、음다하고、종사그청하단거설、허락하지아니하니、유씨가억울하야、폐군하고、출입도、아니하더라、혹이또전하되、정소박성드리、본디유씨가、군수로、잇설때에난안도하얏다하니、유씨간후에난、군민슈빙명이、제회하야、관찰부에서、원유하되、관찰부에서、난민이라하것고、물

이치니、그박성드리、또니부로와서、호소하되、니부에서도、드리지아니하니、일노말미야마、슈빙인민나、지금노상으로、두루하야、단인다드라

●自任之職 尼부유스、니부영씨가、작년의、니부유스、시찰관을、지되니、근일에、하부로셔、민소가、잇셔스、고등저판소로轉任하야、지판하니、씨씨가、차관하단마당에、발하

이무상하고、언어가、불공하니、일노하、감옥에서임유하얏다드라

●義人放逐 무고조、김홍채、유이병、니제진、니중신중역일너나、특지로、감등유박、한일은전보에、등저하얏거니와、이제드르니、그박소는、전니남도、돌산군、고군산으로、제사들이、함게처하기로、마련하얏다드라

●倭男子 南문안、철간동에、호그러은、남조가、잇드니、승은현니요、일후은、덕호라、이에、미전지형수일너니、수일전에、조진스아모가、잇드니、나히、이심소년나라、현덕호집에、와서、말하되、연만하신、조부모는、당에게서고、가제는、지빈하야、봉양할일이、옵서、등되할지경에 이르오니、원컨대、타인에게、은혜를、형일어、조석공제함을、으뜻가하고、타이니、의가、게시다단、말을듣고、와드라하죽、현씨가、그경상을듣고、이원금을주며、위로하야、보닌디、조씨가、비스하고、가거날、몇타잇던손님이、현씨더러、말되

조씨의게、하문、심히조흔일이니、그러하니、조씨가、만일、거짓말노조부모、지당하심을、그지침하야면、웃지하느냐하죽、현씨타답하야갈라타니가、그노인을위하야、그리한거신디、조씨가、만일노를、소기면조씨가、잘못한거시요、니게잇슨은、안나라、남에금할거슬、일어

이것은유、배를기를、조아하더라、일전에、제이니、구무한、옥스로、모든명스를、가두어시리현씨하단바와、두어사람이、또하가두는、가온데잇서、현씨가、날마다、교관을가지고、옥문밖게가서、등지하야、노이기를、바라니、교관제가、슈십전이되니、현씨조는、예전처럼바、형스조이

●崔前錄 복부삼청동、서모라하노、스람이스쓰되、아려설설보되、그부친아모가、일죽、전동스난、조흔번、니아모에、설과、혼인을청하야、崔與泰合脫、同作戀婦、인하야、우연

이、불독이、아로하、도로며、혼집이、나、아려

상관니、이、다시、이스를가

서모가、람이옴나

을구하

동에、니

쓰되、화

고、검하

서、도

니씨또

에、독

최하야

니、천

하바치

하야、실

그아자

서로

鏡說金浦

실상

●百兩

제나、니

오지리

국제되

그황태

박이외

되는왕

난공은

●은인

세세

세고、布

심복제

이래리

세되신

아국난

●은왕

신황후

국난공

●은왕

은왕비

●은왕

고、은

●은왕

고、은

●은왕

고、은

●은왕

고、은

●은왕

고、은

●은왕

고、은

●은왕



이 불복이 되야, 다도야, 잡고 송사를  
지니쓰  
가, 잊서  
지관하  
니, 발악  
나, 일  
은전보  
드르니,  
고군산  
로, 마련  
현니요,  
현수일  
가, 있  
현덕호  
조부  
지빈하  
할지경  
은혜  
은다가  
말습  
그경  
로하야  
가거날  
말되  
일이  
것말노  
학이  
답하야  
야, 그리  
소기면  
배인습  
알아서  
더라, 일  
국, 모든  
노박지,  
은된잇  
가지고  
노이기  
전아되  
습스이  
모라하  
복보라,  
난, 조  
를정하  
고, 우연

夢遊歷代帝王宴

설일세에 丁妹國王후하고, 혼인하  
스니, 사방, 각국군공이, 혼인하  
듣거슨, 다 무척하섯더라

이, 불복이 되야, 다도야, 잡고 송사를  
지니쓰  
가, 잊서  
지관하  
니, 발악  
나, 일  
은전보  
드르니,  
고군산  
로, 마련  
현니요,  
현수일  
가, 있  
현덕호  
조부  
지빈하  
할지경  
은혜  
은다가  
말습  
그경  
로하야  
가거날  
말되  
일이  
것말노  
학이  
답하야  
야, 그리  
소기면  
배인습  
알아서  
더라, 일  
국, 모든  
노박지,  
은된잇  
가지고  
노이기  
전아되  
습스이  
모라하  
복보라,  
난, 조  
를정하  
고, 우연

산동사해, 혼선비잇스니, 성은, 성이  
요, 명은 화요, 조는 조란이니, 천성  
이, 흥민한여, 박학다운물며, 괴질  
이, 초민한여, 협괴에, 임의로, 방랑  
하더니, 드되여, 뜻이, 산천에잇서,  
아, 참은, 뒤산에늘고, 저녁은, 동정  
에, 놀미, 수희팔황에, 조희, 아니  
참곳이업스니, 북명의북과, 남월의  
남이, 다는압히, 드러와, 흥중이, 할  
연하니, 이러므로, 스스로, 천디간,  
알물이랄일더라, 갑술세에, 금능  
을, 향하여, 금산으로, 들어갈식, 딱  
맞춤, 구월이라, 금종이, 소슬하고,  
옥우정영하니, 산에, 가득한슈목은  
다, 푸른연과빛출, 띄엿고, 들에, 폐  
인도량은, 못, 누른금빛치, 들녘은  
지라, 흥을타서, 산을조르며, 물줄  
조, 기히들여감을, 제다지못하니,  
은, 서산에, 떠러지고, 달은, 동남에  
, 도랑미, 나아가, 구척비업고, 물너  
가, 도라음에, 밋지못할지라, 들은  
산우회, 비회하며, 구름골가온디,  
방황하니, 서호로, 전남이를, 무법  
에, 듯고, 남으로, 기러기를, 형양에  
보아, 밤이깊혀, 삼경이되미, 만되  
구적하여, 천봉만학에, 박은파, 연하  
뽕인대, 금물결은, 구천에, 울자  
고, 못벨은, 삼청에, 버렸는지라,  
덕, 성성이, 진평이, 머물곳이, 업서,  
서할바라, 머, 돌보고, 압흔을어르  
며, 뒤돌도라보나, 몸, 다질곳줄, 아  
자못하여, 홀일업서, 바회우회안저,  
쉬일식, 정신이 맑고, 골수가 초미,  
능히, 졸을, 일우지못하고, 침을양,  
구에, 다시더들여, 수리를, 나아간  
죽, 귀화요초는, 전후에, 들녘고, 최  
죽창은, 좌우에, 버렸는지, 맑은  
시니, 푸르게, 들은, 우회, 누각이,  
의의홀지라, 울어려보니, 금조로,  
현판에, 썼스되, 금화사라, 하였고,  
불근기와와, 처적난간은, 운한조음  
에, 표모하고, 슈노은은파, 비단창  
은, 두우스이에, 조오하얏스니, 정녕,  
흔, 산석여닐, 선성이, 귀갈이심하  
여, 금하드러가, 선당에, 누우미, 곤  
하를, 이리자못하여, 잠간, 가미

다니, 혼인드르니, 결필하느소리, 만  
뒤로부쳐, 점점가오며, 문밖게,  
천병만민, 사출, 음작여오고, 금고  
소리하날에, 진동하며, 정과와, 금  
국이, 전후에, 나열하가온디, 황금  
교조, 사상이, 조례로하더라 (未完)

詞藻

秋夜讀書 米溪居士 山吉 露義  
五十人生千載名。六經四壁三更。秋來莫復  
須膏火。照案書燈有月明。

秋夜讀書 月坡 李 興植  
書燈莫復馬車喧。獨坐深宵不閉門。眼夾殘星  
殘月曉。蟾低流水碧山村。安知曉鏡千鍾有。  
只與寒窗一點存。今古文章多白髮。讀來秋氣  
半蕭魂。

米溪曰忘錄者自有錄述名者却有名即空生色  
亦理外之理

秋夜讀書 玄齋 黃 導  
蛩聲雁語兩悠悠。一穗寒燈照案頭。思亂金風  
初起夜。身寒玉露欲零秋。壯心不負君山嶺。  
微愴方深漆室憂。覽閱興亡千古事。三更無寐  
坐書樓。

米溪曰後讀我所欲說却散他道破慚愧  
秋夜讀書 丹石 李 晉木  
孤燈半壁坐焚香。夜葉秋聲頭可搔。蛩與蟬聲  
潘岳賦。秋蟬月滿照原頭。涼冰欲滴出書樓。  
極浦霜寒鴈字高。未夜商音悲不耐。投讀四顧  
氣雄豪。

社告  
本號出題舉詩本欲以扶時教之故而裨治化之  
萬一登能閱諸辭義才華之具云哉大方君子幸勿  
吝投寄

一宋玉 七言律體  
不拘體製

一秋懷 不拘體製  
右二題或賦其一或俱賦二題惟作者之所擇  
一詩章評定甲乙以次錄載于本新報  
一投稿者以十月卅一日(陰曆九月廿五日)爲  
期投稿者須及期  
一稿本必以楷字寫之  
一溫柔敦厚言之無罪謂之足戒詩人之旨也要  
目動冒恣意惡罵後世則有之矣竟非本旨凡  
語涉穢者概不採

一投稿者必須明識氏別號於箋端

漢城新報社編輯部  
新聞紙價  
一週紙一張價 一錢三分  
一週紙一先給 一兩二錢五分  
一週紙一先給 三兩五錢  
一週紙一先給 六兩七錢五分  
一週紙一先給 每月郵費稅七錢五分  
地方販賣者 每月郵費稅七錢五分  
廣告價  
一週紙一先給 一錢三分  
一週紙一先給 一兩二錢五分  
一週紙一先給 三兩五錢  
一週紙一先給 六兩七錢五分  
一週紙一先給 每月郵費稅七錢五分  
一週紙一先給 每月郵費稅七錢五分  
一週紙一先給 每月郵費稅七錢五分  
一週紙一先給 每月郵費稅七錢五分

特別廣告

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

規則

(本前)

- 第三節 居留民會ノ職務及權限  
第二十五條 居留民會ニ於テ議決スベキ事件ノ概目左ノ如シ  
一 居留民會ヲ以テ支辨スベキ事業  
二 歳出入豫算ヲ定ムル事  
三 豫算外ノ支出及豫算超過ノ支出ヲ認定スル事  
四 決算報告ヲ認定スル事  
五 居留民會ノ職務及權限ノ方法ヲ定ムル事  
六 居留民會ノ財產及營造物ヲ管理シ及之ヲ処分スルノ方法ヲ定ムル事  
第二十六條 居留民會ハ居留民總代ヲ選舉シ領事ノ認可ヲ受ケベシ  
領事ニ於テ認可セザルトキハ更ニ二名以上ヲ選舉シ其中ニ就テ認可ヲ受ケベシ  
第二十七條 居留民會ハ居留民公共ノ事務并ニ會計ニ關スル書類ヲ檢閲シ又ハ居留民總代ノ報告ヲ請求スルコトヲ得  
居留民會ハ居留民ノ公益ニ關スル事件ニ付意見書ヲ領事ニ提出スルコトヲ得  
第二十八條 居留民會ハ領事ノ諮問アルトキハ意見ヲ陳述スベシ  
第二十九條 議員ノ當選ニ關シ異議ヲ生ズルモノハ居留民會ニ於テ議決ス  
第三十條 領事又ハ其代理官及居留民總代ハ何時カリトモ會議ニ列席シ意見ヲ述ブルコトヲ得但決メテ數ニ限カルヲ得  
第三十一條 居留民會ハ毎年一回居留民總代之ヲ召集ス但領事ノ命令アルハ何時タリ召集會ヲ召集スベシ  
議員三分ノ一以上ノ請求アルトキ若クハ居留民總代ニ於テ必要ト認メタルハ領事ノ認可ヲ得臨時會ヲ召集スルコトヲ得  
第三十二條 居留民會ハ毎年通常會ニ於テ議長及副議長各一名ヲ互選スベシ但議長又ハ定員三分ノ一以上人員ノ爲メ選舉ヲナシタルトキハ初回ノ會議ニ於テ之ヲ互選スベシ  
第三十三條 居留民會ハ常設委員ヲ互選スベシ其定員及職務ハ居留民會ニ於テ領事ノ認可ヲ受ケベシ  
第三十四條 居留民會ノ議決ハ總テ居留民會ヨリ之ヲ領事ニ報告スベシ  
第三十五條 居留民會ハ議事規則ヲ議定シ領事ノ認可ヲ受ケベシ  
第三章 居留民公共ノ行政  
第一節 役員及其選任  
第三十六條 居留民總代一名ヲ置ク  
第三十七條 居留民總代ハ年令三十歳以上ノ居留民ニシテ議員タルコトヲ得ル者ニ限ル  
居留民總代ハ再選セラル、コトヲ得  
第三十八條 居留民總代ハ有給トシ滿二年ヲ以テ任期トス  
居留民總代又ハ事故ノ爲メ其職務ヲ執ルコトヲ得ザルハ領事ニ於テ適當ノ者ヲ定メ臨時代理セシム  
居留民總代及臨時代理者ノ俸給ハ居留民會ニ於テ之ヲ定メ領事ノ認可ヲ受ケベシ  
第三十九條 居留民總代役場ニ書記及使丁ヲ居留民總代ニ任ス  
第二節 居留民總代ノ職務及權限  
第四十條 居留民總代ハ行政事務ヲ擔任ス  
第四十一條 居留民總代ノ擔任スベキ事務ノ概目左ノ如シ  
一 居留民會ノ議事ヲ準備スル事  
二 居留民公共ノ財產及營造物ヲ管理シ及之ヲ処分スル事  
三 居留民會ノ歳出入豫算表及決算表ヲ編製シ居留民會ニ提出スル事  
四 居留民會費ヲ徵收シ支出シ及ビ管理スル事  
五 特別ノ規定若クハ領事ノ命令又ハ居留民會ノ議決ニ依リ其事務ヲ處理スル事  
第四十二條 居留民總代ハ居留民會ノ議決其權限ヲ超ヘ又ハ不遵ト認ムルトキハ意見書ヲ領事ノ認可ヲ請フベシ  
(未完)

第三〇號 居留民一覽  
京城衛生會規則左ノ通り相定メ本日ヨリ施行  
明治二十九年十月二十日  
在京城一等領事加藤增雄

京城衛生會規則

- 第一條 京城衛生會ハ領事ノ監督ヲ受ケ領事ノ諮問ニ應ジテ京城居留民ノ公衆衛生ヲ衛生ニ關スル事項ヲ審議ス  
第二條 京城衛生會ハ京城居留民ノ公衆衛生ヲ審議衛生ニ關スル事項ニ就テハ領事ニ建議スルコトヲ得  
第三條 京城衛生會會議事規則ハ該會ニ於テ之ヲ議定シ領事ノ認可ヲ請フベシ  
第四條 京城衛生會ニ職員ヲ設クルコトヲ左ノ如シ  
會長 領事  
委員 領事官補又ハ領事館書記生一人  
警務署長 居留民總代  
居留民會衛生委員 醫師二人  
歌醫一人 藥劑師一人  
臨時委員 書記居留民總代役場書記ヲ以テ之ニ充ツ  
第五條 會長ハ本會會議事規則ニ依リ議事ヲ整理シ其議定セシモノヲ領事ニ具申ス  
第六條 會長事故アルハ會長ノ指定シタル委員ヲシテ其事務ヲ代理セシム  
第七條 委員中領事館書記生、醫師、歌醫、藥劑師及臨時委員ハ領事ノ任命  
但歌醫及藥劑師ハ其人ヲ得ザルハ欠員トナスコトヲ得  
第八條 本會ニ關スル費用ハ居留民公共費ニシテ支拂フベシ  
第九條 書記ハ會長ノ指揮ヲ受ケ職務ヲ筆記シ及文書計算ニ從事ス

雜報

●小松若實殿下奉迎  
の爲め我が公使館より日置書記官昨日總務下仁し又朝鮮政府よりは豫定の如く外務省高木喜氏及宮内府高寺官一名昨日水路下仁せり  
●殿下の御旅館  
小松宮依仁親王殿下御着京の御日取りは既記の如く來る二十六日あるが或は二十五日中に御入京ありせらるるやも知れず又其旅館に就ては警察の禮義として朝鮮政府より適當の場所を差上げ度旨其訪で申來り居る由あるも殿下には未く御着京し給ふにあらずれば厚く其厚意を謝し多分我公使館に御宿泊あらせらるべしと承はる  
●政府會談  
去る二十日夕刻には議政府各黨政の會談あり其の議事頗分重大なるもの如く見へし  
●金始始氏六たび辭表を捧ぐ  
前號に記せし如く財政金始始氏は去る二十日東小門外の三人臺より入城して承潤翁の自邸に入りしが尋いで氏は直ちに又た辭表を上れり之れ第六回の辭表と爲す然るに其は左の優批下りて許るされり  
此旨諸君其悉知悉、前後此論、已當陳衷、而又此煩瑣於必不聽許之日、卿之不見諒、胡乃若是也、痛只知其自爲身計、而顧不念朕之依卿老成乎、今日民國之事、捨卿老成、誰與圖治、卿其三思、亟斷來章事、速報書垂賜、  
茲乃於氏は遂に、聖旨の優渥なるに感激し來出仕し居れるよし左れ傳へ氏を知る人其辭職の念は日に益々重く今日の勢ひより見れば到底其の心を翻さしむる能はざるもの、如く悉く諒許せられざるに於ては留任せざしと聞へし氏が前日の會議中には言性々時勢に對して而かも時勢に忤ふもの有るを以て其の心意を知るべきにあらざや左れ一旦は辭任すること、されども還からずして復た辭職沙汰を聞くに至らんと  
●百聞一見に如かず  
歸朝後の謁見煥氏の一言行に就ては自然世人の注意し居れること、種々の傳説多きが中に就き其の一二を記すれば曰く氏が歸朝の際歸朝に出迎せし門客は勿論大小の官吏中にも自から卑下して小人と云ひ侍生と云へるもの有りしに氏之此等に向かひ嘆じて曰へらう鴉群我國の風俗習俗を脱せざる所くの如くあるは極めて遺憾と云ふ均しく是れ人なり宜しく自由平等あるべからず何ぞ彼れを尊び此れを卑むの理あらんや今後は相互の對話には必らず平等の語を用ふべしと又曰く氏は歸朝後其の動向については斷愛の說を提出せしと其說の真偽は附ふ之れを他日の氏が言動に俟せん  
●松島艦の來航  
帝國海軍松島松島は昨日釜山港に來航せしが來る二十六日午前には同港を抜續し翌二十七日仁川港へ通航する等  
●同義には華頂宮殿下御少時の御資格と  
●以て御乘組  
●員の前  
道一の二氏  
二氏共に近  
●露國水兵  
の水兵約四  
の再夜水  
公使館前衛  
住の江丸に  
●朝鮮電報  
信するを得  
しが右は幾  
部ある海軍  
●市民又度  
部に計り掛  
代金等諸  
からざるこ  
の市民同部  
聞くは數年  
て八千二百  
一半を拂ひ  
拂ひ渡すべ  
決さるより  
致して其の  
支部にては  
て調達の上  
論せしも債  
れを得ずん  
居れり  
●右は愈々昨日  
戰爭もさく  
●原田 協成  
和田 常一  
松永達太郎  
藤井 友吉  
古坂 海溪  
岩佐 敬輔  
●洪李二氏の  
榮轉したる  
任し數日前  
李世植氏前  
宮内府參書官  
阿氏共に委任  
●對馬相の  
●程培材學堂

以て知事退任あり又井井縣裁判官長官も退任  
小居れり

●公使館上  
道一の二氏も今回閣議と共に歸着せり而して  
政府府上  
二氏共に近々相當の官職を得るからんと傳へ  
る

●露國陸兵の來着  
露國陸兵十三名は一名の陸軍士官に引率せら  
る六日ある  
ル別項に記載せるグレニヤスキ號の水兵と  
共に仁川より再昨夜水路入京せり聞かぬが如く  
其訪せで  
上流來し十三名の陸兵と云ふは多分下士にて  
朝鮮兵の訓練に任するものなるべしグレニヤ  
スキ號には砲兵六七名の陸軍士官も居る  
る

●露國水兵の交代  
露國グレニヤスキ號  
の水兵約四十名は三名の海軍士官に引率せら  
る再昨夜水路住の江九にて入京し從來の露國  
公使館前水兵の中三十餘名は一日失火  
住の江九にて下せり

●朝鮮電報  
露國電報に接續し各國と通  
信するを得るに至りしことは既本紙に記せ  
しが右は幾州にて露國電報と接續し滿洲の北  
部から海蘭泡（ハラル）に至り同地に更  
るに露國西北利亞電報と接續せるものなりと  
聞かぬ

●市民又度支部に迫る  
多數の人民が度支  
部に詰り掛けて未渡の津金、未拂上物品の  
代金等を請求すること當部にては從來珍らし  
からざることを三日前より亦た多數  
の市民同部の門の外に詰り掛けるに就て  
聞かぬ數年前に於ける宮内府買上物品に對し  
て八千二百四十圓の未拂代金のしが昨年其  
一半を拂ひ渡し他の一千四百二十圓は本年  
拂ひ渡すべき約ありしに今に至るも何等の沙  
汰なきより此れに關係する各商人右の如く一  
致して其の拂ひ渡しを督促せしめしにして度  
支部にては今二千圓だけを拂ひ渡し殘金は追  
て調達の上方分の指令を爲すべしと言を懇々  
諭せしも憤懣者は頑固に抗議し悉く一時に之  
れを得ずんば猶ほ毎日詰り掛くべしと喝あへ  
居れり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洪李二氏の榮耀  
一兩月前宮内府發賣官  
榮耀したる洪李二氏は更に華嚴院掌議に昇  
任し數日前頭より依て法部主事を免せられたる  
李世植氏（前年の李逸植氏）は洪氏の後を襲ぎ  
宮内府發賣官兼外事課長、典醫司副長に任じ  
兩氏共に要任官五等々に叙せられたる由  
●國庫相の學校觀察  
學部大臣閣下氏は  
課程材料學堂に至り各級授業を巡視したり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居留民會議員の改撰  
右は愈々昨日を以て之を施行し今回は別設の  
競争もさう左の十六氏當選せり  
原田 松茂 淵上 貞助 山口太兵衛  
和田 常一 中村 再進 森 勝次  
松本達次郎 岩下 彌輔 左近衛太郎  
藤井 友吉 平原 重雄 平岡寅次郎  
古坂 梅溪 松本 武平 中村友次郎  
岩佐 敬輔

廣告

田原旅館

尊館從來營業龍在候處各位ノ御庇蔭ヲ  
 蒙リ日ニ月ニ禁衆仕候段奉謝候處  
 今般客室其他百事改良ヲ施シ御待遇ハ  
 申スニ及バズ御料理等モ衛生上ノ注意ニ  
 注意ヲ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意ヲ  
 注意又タ宿泊料ニ至ツテハ精々低廉ナ  
 旨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モ  
 尙ホ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至ニ  
 當シ陸續御投宿ノ程奉願上候

|    |              |
|----|--------------|
| 下宿 | 金五圓<br>金拾貳圓迄 |
| 下等 | 金五拾錢         |
| 中等 | 金七拾錢         |
| 上等 | 金壹圓          |

但室内御熟覽ノ上御相談ニ應ズ

朝鮮  
并二  
右へ履賣  
可致候間  
ムキ乞  
大森市  
加  
新  
冬物洋  
并  
過日來冬仕  
診病澤山荷着  
希望候  
廣  
冬洋服用  
向日來三物貨  
回珍品佳物  
購さずし

スコツト乳菓 は次亞礫炭石灰及  
專造を配合したる  
レーフル油 にして其の好味ある事  
牛乳に勝る肺熱の時に  
も胃弱にも敵對せず消  
化を助け行くものあり  
肺病氣管支  
炎瘰癧及喉咽病に之を特別に効能あり又  
弱の小兒には滋養食物として著しき効  
あるはスコツト乳菓の右に出  
るものなし既に萬國名醫の賞賛を博したれば  
誠に用ひて其言の虚あらざるを知り給へ  
全國到處の藥舖に賣捌きあれば御最寄りに  
て御請求を乞ふ若しこれなき時は下記の特約  
商人へ御問合われ

紐育製藥舖 スコツト  
及パウシ敬白

日本特約販賣店

朝鮮國一手販賣 小西儀助

京城 洋酒 販賣 限本商行  
御店

薩摩煙草卸賣 (刻捲共)

并店ノ煙草ハ從來御地各店ニ於テ賣捌キ居リ  
鉄路御愛顧諸彦ノ御引立ニ依リ日増シニ繁昌  
ニシ難有御禮申上候強ツテ今般一層強品位  
ニ改良且ツ荷造等ハ至極丁寧ニ早速送附仕候間  
多少ニ拘ハラズ本當々々御注文奉願上候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煙草商渡邊出張店

川畑勇吉

茶碗いちawan  
小田卷こだまき  
歌哉句うたがやぐ  
一稻荷いちいなり  
善哉ぜんがい  
御調子ごてうし

此外御香いろく  
勉強べんきやう  
開業かいぎやく  
風味ふうみ  
出来でき  
御暖ごぬる  
熱釜ねつかま

けふ 南山湯の戻り道  
君が蕎麥

二石油 大販賣  
二石油 大販賣

般弊店ニ多數荷着相成リ候間多少ニ限ラズ  
向購求ノ程偏ヘニ恭頓上候也

般弊店ニ石油ガ無數ハ到着スヤム  
ニ多ク少ク間來購スヤム事ヲ請フ所ナリ

泥規  
仁川  
慶田組  
慶田出張店

免 許 鐵 轉

私議是女造  
今般都合ニ  
通り不相  
泥規田

●胃弱・肺  
●瘰癧・疳  
●其他諸症

新荷特  
到着キリ  
アサ  
アサ  
蜂印  
佛國名産  
純真藥用  
夏季唯一  
吹雪  
白砂  
外ニ  
●ブランド  
●利休酒  
●野菜罐詰  
●男女婦  
●物雜貨  
●和  
泥



下廣告

地方へ出張致  
ハ一層工業ニ  
同價從來ノ  
影刻仕テ候間  
機々安價ニテ  
引販致候也

好文堂

店商出井  
京大 門通 南大 京城  
急至ハ上借貨保ニ店當  
候度下被ル申御 門通 南大 京城

朝鮮物産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右ハ販賣ト旨トシ精々御便利ニ取扱  
可致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向アラ  
ソナタセフ  
大阪市西區北堀江通四丁目  
加 庄野嘉久藏

新荷着廣告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并ニ附屬品種々  
過日來冬物仕入ノ爲メ日本へ罷越シ候處頃日  
珍柄澤山荷着致シ候間此際續々御注文ノ程奉  
希望候

廣告新貨着

冬洋服用靴並附屬品各種  
向日來冬物貨をサレ日本へロガッダー今  
國珍品佳物イ許多到着サアトオナ  
購サヤサササササササササ

力武洋服店

免轉住廣告

許 鍼術灸治按 治療所  
私儀是レ迄ア田原旅館ニ止宿罷在候處  
今般都合ニ據リ左ノ處へ移住仕リ從前  
通り不相變治療仕候  
泥岬田原旅館向高平借宅

久田安生堂

●胃弱 ●肺弱 ●脚氣 ●リウマチス  
●瘧氣 ●疝氣 ●逆上 ●疥癬 ●子宮病  
●其他諸症ニ即効アリ

新到特別廉價販賣

-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鼠葡萄酒 ●生葡萄酒 ●平野礦泉水 ●白砂糖數品

出張店 山組 泥 觀 龜 屋

新到荷着披露  
●東京 船來ビスケット ●梨、桃、梅、杏、罐詰 ●堅魚 ●小鳥大和煮  
●西洋新式銃 ●連銃 ●日本村田式銃  
●和泉長履 ●西洋服各種  
●附屬品 ●會商

第七會正風集  
題紅葉鹿  
豐秋園瑞穂宗匠樂撰  
十月廿五日●撰定全月  
廿六日翌々日漢城新報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ヲセフ

朝鮮新茶  
御玉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  
御煎茶 一斤金拾六錢  
御薄茶 極細。廣葉。上別。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大第三速  
晚上ゲ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諸君格賞ノ御愛求ヲ  
冀フ

河村至誠堂  
茶店 京 城 泥 觀  
近來流行ノ熱性病(所謂朝鮮熱)ニ限リ實業ノ  
外ハ入院料ヲ徴收セザルニ付テ該病者ハ入院  
治療相成候也  
發行所 漢城新報社





數聖文武天皇卽

曰。不可失也。而

●大賓爰臨

[illegible]

독실대능점점  
기여지고  
공영사고

[illegible]







奉りたり  
員一同に  
朝群舞  
テ八時過  
の時の如  
殺入より  
狂舞等  
に充分珍

帝園重葎松島の愈々仁川に入港したる上は同  
義に御乗組の同殿下にも坪井司令官等と共に  
御入京おらせらる。善にて其御日取は来る廿  
八日頃あらんぞ承はる。

● 入京の海軍將校

今回殿下と共に入京したる海軍將校は左の  
諸氏なり

朝群舞  
テ八時迄  
寺の即  
帝國重疊松島の愈々仁川に入港したる上は同  
雲に御乗組の同殿下にも坪井司令官等と共に  
御入京からせらるゝ筈にて其御日取は来る廿

八日頃あらんと承はる。  
 ●入京の海軍將校  
 今回殿下と共に入京したる海軍將校は左の  
 諸氏あり  
 常備艦隊司令官 綾島少將、同參謀加藤大尉  
 同小栗大尉、同秘書官 田大主計  
 扶桑艦副長 伊地知少佐、同發乗組の石井大尉  
 福田大主計、下村少尉  
 千代田艦長 伊藤大佐、同發乗組の中山大尉、  
 齊藤大主計、河野少尉  
 殿下御附加藤少尉  
 右殿下御附の加藤少尉に除き、教島司令官以下の  
 各將校は何れも巴城館に投宿ありたり  
 ●日艦書記官 殿下奉迎に爲り下仁中より  
 し同書記官は昨日陸路歸京

露國陸軍少將  
アーチアタ氏の畫

●奉迎相談會　小松若宮、華頂宮兩殿下有志奉迎會の件につき、宮所留地の重立つたる者二十餘名は再昨夜總代役場に會し、協議を凝らむ。廿五日、昨日、小松若宮殿下以下扶桑、千代田兩藩將校奉迎會と公立小學校内に開く事同殿下に一般居留民より紀念品を獻納する事來る二十八、九日頃華頂宮殿下奉迎會を開く事等と議決し各種の準備委員を決定し其他種々協議する所ありて散會せり。

●露公使等各部と訪ふ　再昨日露國公使ウーバー氏、金鍋陸氏を從へ同國陸軍將校はと共に各部を歴訪したるよし而して右は豫め外部より各部に通牒し又外部官吏之が案内を爲せりと云ふ。

帯まで歸着し居れる趣前々號に記せし岡氏の  
消息は就いゝ更分に聞く所によれば氏は實素  
情實で歸着し居れるにあらば岡氏の一行を

國より更らば米留に渡航し其上にて歸國をせしめんとす

●學校觀察と修養 學部監督荒荻篤氏は尋常  
昨日各官立學校を巡視し其結果校舎の修繕と  
爲すこととなり先づ日語學校より始役すと云ふ

●塚主高氏 の道義監獄者と巡視せし時夫  
の巡視夏氏未決監に有り幾かに身に單衣一襲  
と著するのみにて左も漆氣と堪へ兼ねたるもの  
の如く身顧るひを爲しつゝ只管袋を握ひし  
かば氏は歸宅の後其の衣服一著と置製せりといふ

在京城帝國居留民

(承前)

第四十三條 居留民費ノ賦課ナルコトヲ得ヘ

戸數  
人頭  
營業  
第四十四條 居留於公共ノ所有物及ヒ營業物  
ノ使用又タハ特ニ數國人ノ爲メニスル事業  
ニ付キ使用料又タハ手數料ヲ徴収スルコト  
ヲ得

民費ヲ賦課スルヲ得ス

第四十六條 居留民會ノ定ムル期限ニ屬シテ  
金ヲ完納セザルモノアトキハ居留民總代  
ヘ領事ノ認可ヲ得未納者ノ朝鮮國內ニ於テ  
所有スル財産ニ對シ町村費總納處分ノ例ニ  
依リ之ヲ徵收スベシ但居留民總代ニ於テ無  
實力ナキ者ト認ムルハ其事由テ領事ニ具  
申シ會計年度内ニ限リ延期ヲ許スコト得其  
年度ヲ越ニム場合ニ於テハ居留民會ノ議決

本條ニ記載スル収買金ノ租額ハ、第四十八條  
 先收特權ニ付テハ町村費ニ關スル額ニ決シ、  
 第四十九條 居留民費ノ課課ニ關スル所願ハ  
 區課令狀ノ交附後一ヶ月已内ニ之ヲ所願  
 民總代ニ申シ立ツベシ此ノ期限ヲ超過スル  
 トキハ税額免除及ビ償還ヲ請求スルコトナ  
 得ズ  
 第四十八條 居留民費ノ課課ニ關スル所願ハ  
 居留民總代之ヲ裁決ス  
 但所願ノ爲メ其裁分ノ施行ヲ停止スルコト

十九條 領事ノ許可ヲ受クモニ拜ヤレハ

第九十條 居留民親代へ毎會計年度収入支出  
ノ豫知シ得ベキ金額ヲ見積ルノ年度前二箇月  
ヲ限リ、藏入出豫算表ヲ編製スベシ

萬曆二年三月

第五十二條 豫算表ハ會計年度中是月會  
議決テ經其要領ヲ公告スベシ

第五十三條 豫算ニハ豫算外ノ支出又ハ豫算  
ノ不足ヲ補フ爲メニ豫備費ヲ設ケベシ

豫備費ノ支出ヲ要スルトキハ常置委員ノ決

會ニ提出シテ居留民會ノ認可ヲ受タヘ

第五十三條 決算ハ會計年度ノ終ヨリ三ヶ月  
以內ニ之ヲ結了シ證憑書類ヲ添ヘ居留民會  
ニ提出シテ認定ヲ受クベシ

第五章 居留民行政ノ監督

四條 居留民ノ行政ハ領事之ヲ監督ス

爲メニ必要ナル書類ヲ數シ之ヲ檢點スルコトアルベシ

第五十六條 居留民會ニ於テ法律規則ヲ依リ  
負擔スベキ支出ヲ定額算ニ載セズ又ヘ之

決シ若クハ實行セザル時ハ當事ハ責任ヲ負フシテ其支出ヲ定額豫算ニ加ヘ又ハ臨時

支出セシムルヲアルベシ  
第五十七條 領事ハ居留民會ノ議決法律規則  
ニ背キ又ハ安軍秩序ヲ害スルモノト認ムル  
トキハ居留民會ノ評會又ハ解散ヲ命ズルヲ  
アルベシ

子命ヲ至キハ同時ニ三月以内ニ

員ヲ選舉スルコトナク又  
 停會又ハ解散ノ場合ニ於テ君臨シ経々費用  
 フルモハ居留民總代ハ領事ノ認可ヲ經之ヲ  
 支出スベシ  
 第五十八條 領事ニ於テ居留民總代職務上ノ

又ハ忠慢アリト認メタルキヘ之ヲ懲

懲戒ハ左ノ區別ニ依リ之ヲ施行ス

- 一 譴責
- 二 通告金(津給ニテ月分以内)
- 三 解職

解職ヲ命ゼラレタル者ハ二ヶ年間留職免職  
代ニ專選セラル、コヲ得ズ

(結了)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汽船仁川出帆廣告

仙臺丸 十一月三日出帆 二日入港

長門丸 十一月五日入 即日出帆

兵庫丸 十月 出帆 入港

豐島丸 十月 出帆 入港

肥後丸 十月 出帆 入港

玄海丸 十月 出帆 入港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 汽船仁川出帆廣告

筑後川丸 十月 出帆 入港

隆盛丸 十月 出帆 入港

明石丸 十月 出帆 入港

信濃川丸 十月 出帆 入港

木曾川丸 十月 出帆 入港

仁川荷客取扱所

龍仁汽船龍山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 出帆 入港

正重丸 十月 出帆 入港

京城 莊司回酒店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京城 莊司回酒店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旅館 東京 館



御旅館 朝鮮仁川各國居留地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スコット乳 肺病氣管支 炎症瘰癧及喉咽病

諸非常直下廣告 小生謹印

轉居 安田 穰 小林好文堂

雜貨 井出商店 大坂 京都

開業御披露 茶碗 小田卷 歌哉句

冬物 免 許 新到 各種貨物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隔日發刊

雜報

上諭恭錄

十月二十六日官報外恭錄如左

景昭殿新修內府大臣李載純特陞一品度支部大臣沈相薰馬一匹面給度支部顧問官相卓安特賜從二品金章別監主殿司長白殷圭陞一等監司長姜連侍從院侍從李寅站并加資內府參理官李學均陞一等會計院檢查課長安泰連陞六度支部財務官金奎熙李容九韓在鎮內府參書官申泰泰并加資主殿司主事張駿連管帶司主事柳景學金瓚宋啓昌崔元章各賜馬一匹賜給牌員役各匠色等并米布分等從厚施賞

Table with 2 columns: Rank/Title and Name. Includes 特陞從一品, 陞從二品, 陞三品, 陞敘委任官二等, 陞敘委任官四等, 行路難, 各道員等.

● 陞敘委任官二等 陞敘委任官四等 行路難 各道員等 陞三品 陞敘委任官二等 陞敘委任官四等 行路難 各道員等

●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醉觀 夢中見一仙童...

五、被控人

● 妖巫拿引

김병조라, 흥난자이, 잇쓰 되, 그부처  
가, 본디요스흔, 무당으로그가후에  
신당을, 설축하고, 기도하기로, 위  
업하야, 인민를, 천후케하야, 괴인  
취를, 흥난고로, 월전에, 경무청에  
서, 잡아다가, 여러날, 가두었다가,  
다시그리말나하고, 형제하야, 보닛  
드니, 그후에, 제집에, 도라가서, 괴  
도하고, 괴인취를하기를, 전보담,  
더흔다난소문니, 남자하야, 일전에  
도경무청에서, 그부처를, 잡아다가  
감옥서, 에, 가두었다드라

### ●叙任及辭令

▲陞叙任官五等 法部主事丁明燦十月二十  
二日▲任江原道監察府主事 三品李弘燾(判  
任六等)十月二十四日▲依頭免本官 監書院  
丞尹吉求▲任秘書院丞 宮內府侍通官李愚冕  
(奏任二等)以上十月二十五日

郭御史傳

(三)

출변이, 비스듬하며, 갈아스티, 양국  
이, 군사를, 일으키며, 승부를미결  
하고지금와서, 요린지의을두어, 이  
다지상급을만나하시니, 감스무지,  
하오, 이다하고, 길을떠나거날, 황  
제와, 만조빅관니, 십니맞게나와,  
전송을시이씩과원슈, 그화솔마진  
팔이, 점々, 나서, 여전호지라, 출변  
니, 과원슈에, 손을잡고, 갈아티, 그  
티가, 날노더부러, 스성을, 불고하  
고, 싸움을, 하다가, 뒤에화솔노, 그  
티를, 맞치야, 다함이, 상쳐가나으  
니, 아도하날리, 원슈를, 뭇게아니

호심이라 한대, 광원슈, 우어갈아디  
 니만일, 팔을상하디, 아니하얏던  
 달그디가, 도라가지못, 하얏쓸거셔  
 지금, 도로, 그디더부러, 다시의를  
 미지니, 오히려다하도다하고, 이  
 하야, 작별하고, 귀국하디라, 이찌과  
 원슈, 가향을떠난지, 십년이라, 광  
 연고향싱각이, 간절하거날, 황제께  
 이소경을, 알원디, 황제드르시고  
 갈아스디, 그디가, 나라를, 위하야  
 등분셔쥬하다가, 지금와셔, 무스시  
 를, 당하야, 고향으로, 도라가려하  
 니, 그도고이치, 아니하거니와, 나  
 난그디를보디면, 쥬야로, 보고십포  
 마암, 어디비하리오, 그러나, 소견  
 을, 막을슈읍시니, 도라가가스를보  
 고, 다시와셔또군신지의를알치말  
 나, 하시니, 광원슈, 엿자오디, 소진  
 니, 천은니, 망구하와, 여러번싸하  
 에, 명을보존하야, 지금고향으로도  
 라가니, 복원환상은, 만슈무강,  
 호소셔하디, 황제창연이, 여기스,  
 은금척단을, 마니승스하스, 갈아스  
 디, 이거시, 약소하나, 정을표하거  
 시시니, 바드라하신디, 광원슈황송하  
 야, 바다가고, 길을떠나미, 비관드  
 리, 성밖게나와, 전송하디라, 이제  
 광원슈에집이, 광원슈간후에, 십여  
 년을, 집에도라오지, 안하거날, 그  
 처자가, 날마다, 기다리더니, 흥번  
 에, 랄니평정하고, 광원슈, 도음을  
 듯고, 반기를이기지못하더니, 파  
 연광원슈, 도라오거날, 노비의, 그  
 부인과, 그아달이, 문밖오리에나와  
 마자드리미, 광원슈, 당에올나가  
 서, 그부인을보고, 갈아디, 그스이,  
 어린아이를, 다리고, 십년을, 고심  
 시키여, 썩니, 누에마암에, 옷지불안  
 치아니하리오, 하디, 그부인이, 또  
 갈아디, 나난집에서, 고심은되지, 아  
 니하얏거니와, 가군은, 여러히되고  
 하야, 소지전장에, 여러번나갔다가  
 천천을로, 귀대를, 보중하야, 도라  
 오시니, 옷지절급지, 아니하리오하  
 고, 원슈또그아달을보잡고, 어무만  
 지며, 갈아디, 나의어리와, 나가집을  
 떠나, 니제야, 도라오니, 전령들, 슈  
 성하얏난지라, 하마하더면, 다시이  
 자미를, 보지못하얏쓸거설, 하날이  
 굵어슬피스, 지금스라, 도라온쥬,  
 이엇지, 좇치아니리오, 하드라, 잇

[illegible]





등디리공사와 호佐川中佐、日置書記官、新

인도를 하야 가고, 일본 슈반  
이, 스인교회를 팔려 하야, 가

독일에 아국, 티작수도 레루빙기씨

漢城新報社編輯部

漢城新報社編輯部

問者必須明

社稷

福

雜報

昌德宮御巡覽の御模様

小松宮殿下の御着京後昌德宮(舊大廟)を御巡覽せられたるは、昌德宮に記し奉りたるが如く、御模様の永はるに殿下の公使館を出で給ひしは四時前後にして午前の如く宮内府より差遣はされたる、昌に召し外部交務局長金廷欽、宮内府参事官兼外事課長李世模の二氏及び正副朴昌模氏の率ゐる諸廷より、御使兵本邦及び朝鮮等官等御先導を爲し、昌島司令官以下の各海軍將校、加藤代理公使、新山大隊長以下の各守備隊將校、新納少佐、野津大尉、關分通譯官、高島公使館書記生其他二三の者御供を備へ、昌島公使館正門前の新道より木道敷通より出で東大門通りに至りて、東に折れ夫れより昌德宮の正門たる敦化門通りに入り、敦化門、進善門を経て仁政門に入りて御下裏あらせられ、金交務局長、李宮内参事官の御案内にて先づ同宮第一の宏壯なる殿閣として太君主陛下が御居の朝を承けさせらるる所たる仁政殿を御一覽あり夫れより光範門に入り、黒政殿を御一覽あり夫れより光範門に入り、大政殿を御一覽の後、殿下御ひいて澄光樓に登り暫く閣内の諸殿後、閣外の風光等を眺望し給ひ、閣下より右に降りて其裏手にある萬春門より、御園に入り、真合樓に登り其裏手にある運池の四周に廣く老松、楓樹等閑寂交錯する紅、緑、黄、赤、各色入り交り得る云はれぬ景色を遊へたる御園の風光と愛でさせ給ひ夫れより拱辰門に入りて、又御園より演習堂の前にて暫く其風光と御眺望の後、太一門に入り山麓なる最と廣き御園の森々たる松柏の下に幽邃閑雅の趣致を御存望あり、又飛流三百尺、遙落九天來、看是白虹起、翻成萬壑雷の句を刻せたる巨巖の下なる清泉等を御一覽ありさせられ之にて一通りの御巡覽は相済み且つ時已に五時半過ぎりしかば少しづき路を變へ協陽門、九如門、前章門等を經て前きの仁政門外に出で、表にて其に召し夫れより御性路と同じ道筋を御巡覽の途に就かせ給ひ永路敷通りを我居留地より突き當てたる角にて昌島司令官以下各海軍將校は御供を辭し我居留地を過ぎ直ちに當日の我官民有志歡迎會場なる公立小學校に向ひ、殿下には加藤代理公使、關分通譯官等と從へ一旦御座館からせられたり右御巡覽の際殿下には海軍大尉の服を召し給ひ御我居留地の模様も見受け奉らず、大廟内の模様は就ては韓女科々國分通譯官等より御説明申上げ又種々御下問もされ給ひしと雖、當日は日語學校、昌德學校等も御一覽の御内定ありしに其御暇なかりしを以て御見合せあらせられしやに洩れ承はるなり

儀衛拜觀記

一昨日は前日に引換へ朝来、天氣清朗にして藩城の風物自ら三春と云ふ處は樹上と云ふ處は樹下は花咲くんと云ふ十月の小春なりけり、天の亦た殿下を迎ふる以所乎翻つて南山の麓に雲霞下する我居留地と見れば日本の風景は

高く戸々の軒頭に朝へり若幼男女伏せ居たりたるは更に前日と異ならず昨冬來の慈雨霽一雨にして開けたるの景有り、而に殿下の賜をかし此の日内部大臣朴定陽、法部大臣趙世高、學部大臣趙世昌、度支部總辦金在夏の諸氏は早朝より、殿下と我が公使館に同候し法部總辦趙世昌、學部總辦趙世昌の二氏亦た尋いで來り

殿下には海軍大尉の大禮服を召し

謁見の爲り

大君主陛下に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謁見の爲り

昌德宮に於ては二時前に至り宮廷より御招待に依り更に景福宮に向はせ宮内大臣李載弼氏の御接待にて朝鮮料理の享應を受け給ひ御供の海陸軍將校等御陪食を爲せり(其模様は紙面の都合により大略に譲る)斯くて殿下には四時過ぎ景福宮に出で夫より英語學校に御立寄り有りて同校生徒の体操を御一覽の後五時頃無事御歸館され給ひたり此日英語學校へ御立寄りの事は始め學部より懇請ありし一日御歸還あらせられしが強ひての懇請により御道筋にとも有り旁々斯く御歸還され給ひし次第でしやに洩れ承はる殿下の同校に入らせらるる際には開學節、教師生徒何れも門内に奉迎し御出校の時奉送亦之れに同じ而して此際同校生徒の演奏し体操は我國の亞鈴体操に類するも代り行進ありしが何れも我國にて各學校生徒に課する体操科とは其方針全然相反するが如くあるも其動作の整然華美なるには亦諸親者驚異し合へり

御答禮

小松若宮殿下は御答禮の爲り一昨日新納少佐及御付の加藤少尉と一

同殿下を同候し奉りたる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昨日も亦、昌德宮に御留まり給ひしは、昌德宮に記し奉りたるが如く、御模様の永はるに殿下の公使館を出で給ひしは四時前後にして午前の如く宮内府より差遣はされたる、昌に召し外部交務局長金廷欽、宮内府参事官兼外事課長李世模の二氏及び正副朴昌模氏の率ゐる諸廷より、御使兵本邦及び朝鮮等官等御先導を爲し、昌島司令官以下の各海軍將校、加藤代理公使、新山大隊長以下の各守備隊將校、新納少佐、野津大尉、關分通譯官、高島公使館書記生其他二三の者御供を備へ、昌島公使館正門前の新道より木道敷通より出で東大門通りに至りて、東に折れ夫れより昌德宮の正門たる敦化門通りに入り、敦化門、進善門を経て仁政門に入りて御下裏あらせられ、金交務局長、李宮内参事官の御案内にて先づ同宮第一の宏壯なる殿閣として太君主陛下が御居の朝を承けさせらるる所たる仁政殿を御一覽あり夫れより光範門に入り、黒政殿を御一覽あり夫れより光範門に入り、大政殿を御一覽の後、殿下御ひいて澄光樓に登り暫く閣内の諸殿後、閣外の風光等を眺望し給ひ、閣下より右に降りて其裏手にある萬春門より、御園に入り、真合樓に登り其裏手にある運池の四周に廣く老松、楓樹等閑寂交錯する紅、緑、黄、赤、各色入り交り得る云はれぬ景色を遊へたる御園の風光と愛でさせ給ひ夫れより拱辰門に入りて、又御園より演習堂の前にて暫く其風光と御眺望の後、太一門に入り山麓なる最と廣き御園の森々たる松柏の下に幽邃閑雅の趣致を御存望あり、又飛流三百尺、遙落九天來、看是白虹起、翻成萬壑雷の句を刻せたる巨巖の下なる清泉等を御一覽ありさせられ之にて一通りの御巡覽は相済み且つ時已に五時半過ぎりしかば少しづき路を變へ協陽門、九如門、前章門等を經て前きの仁政門外に出で、表にて其に召し夫れより御性路と同じ道筋を御巡覽の途に就かせ給ひ永路敷通りを我居留地より突き當てたる角にて昌島司令官以下各海軍將校は御供を辭し我居留地を過ぎ直ちに當日の我官民有志歡迎會場なる公立小學校に向ひ、殿下には加藤代理公使、關分通譯官等と從へ一旦御座館からせられたり右御巡覽の際殿下には海軍大尉の服を召し給ひ御我居留地の模様も見受け奉らず、大廟内の模様は就ては韓女科々國分通譯官等より御説明申上げ又種々御下問もされ給ひしと雖、當日は日語學校、昌德學校等も御一覽の御内定ありしに其御暇なかりしを以て御見合せあらせられしやに洩れ承はるなり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昌廷の大臣以下と一

々訪問せし給ひしやに承はる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likely a schedule or list of items. Headers include '月別' (Monthly) and '日' (Day).

殿下の御出發

昨日も亦近來に無き天気ありしが日暮の  
國旗は朝來居留地兩側の軒頭に翻々として列  
なり居留人民は早朝より端裝して戸外に行  
ふと見るは小松宮殿下と幸甚せんが爲り  
るに殿下は此日幸外郎、幸軍部、幸宮内參  
事官等の伺候を受けさせられ十時頃數島司令  
官以下の各軍將校と共に御駕の途に就き  
給へる儀は御着京の際と同じく朝鮮政府より  
出せる儀仗兵の儀を爲し我守備隊より  
代御公使、幸佐川中佐、日露書記官、新山大隊  
長以下二三の軍部將校、國分通譯官、若林領  
事官補、其他の公、領事館員、居留民の重立た  
る者等數十名幸甚の爲り龍山まで御供し奉  
り公立小學校四年生も亦龍山に幸送し守備隊  
の各將校兵士、小學校職員生徒其他朝鮮政府  
の我顧問官、補佐官、並に居留民數百名は殿下  
を南大門外に幸送し殿下御通行の際は守備隊  
將校兵士と小學校生徒其他の者は路の兩側に  
整列して何れも最敬禮を爲せり斯くて殿下の  
龍山に御安着を了給ひしに十一時頃幸ししが  
直に數島司令官以下の各將校と共に豫て用意  
の安來丸に召し御出發せられ加藤代理公  
使を始め其他の人々は帽等を打振つて幸送の  
意を表し小學校生徒は海軍萬歳、大日本萬歳  
と連唱せり此日秋月書記官、新納少佐、野津大  
尉は殿下と仁川に幸送し當邦宮廷より亦宮  
内府協辦尹定求、韓廷よりは外部協辦高永喜  
同部交渉局長金珪鉉、朴基駿の諸氏をして殿  
下と仁川に幸送せしめたり

朝鮮

（面）の都  
（四）時過  
（幸）有  
（立）寄の  
（辭）退の  
（訪）代と  
（次）第を  
（幸）迎  
（此）際同  
（各）學校  
（反）する  
（亦）臨  
（納）したるが殿下にては御嘉納あり珍らし  
品ありて直に御居間に御飾り付け御賞觀有  
らせられしやに承りぬ又殿下よりは昨朝臨時  
總代事務取扱筆尾三郎、款納品掛り森原次、  
岩佐數郎の三氏を召され親く見事する品物を  
贈られ満足すとの令旨を賜はり

廷

（面）の都  
（四）時過  
（幸）有  
（立）寄の  
（辭）退の  
（訪）代と  
（次）第を  
（幸）迎  
（此）際同  
（各）學校  
（反）する  
（亦）臨  
（納）したるが殿下にては御嘉納あり珍らし  
品ありて直に御居間に御飾り付け御賞觀有  
らせられしやに承りぬ又殿下よりは昨朝臨時  
總代事務取扱筆尾三郎、款納品掛り森原次、  
岩佐數郎の三氏を召され親く見事する品物を  
贈られ満足すとの令旨を賜はり

居留民甲冑を献す

當地に我居留民一同より是小松  
若宮殿下御來遊に御紀念物として一昨日朝  
鮮古代の甲冑一組を献  
納したるが殿下にては御嘉納あり珍らし  
品ありて直に御居間に御飾り付け御賞觀有  
らせられしやに承りぬ又殿下よりは昨朝臨時  
總代事務取扱筆尾三郎、款納品掛り森原次、  
岩佐數郎の三氏を召され親く見事する品物を  
贈られ満足すとの令旨を賜はり

誣告判決書

忠清南道舒川郡 平民  
被告 趙淵夏  
右被告趙淵夏に對する事件は檢事の公訴に  
よりて審理するに被告は金鎭柱告發者金弘  
濟事件の看證人として捕はれ趙淵元年八月  
十五日警廳廳給書の場合於て金弘濟の罪犯  
を照然納供したるに同月二十日對質の場合  
は供辭を翻改し其後本所より屢次審問せし  
場合に於て事と實供を事とし欺情を眩蔽せり  
其事實は被告の陳供自服と金鎭柱の對質證  
供に照して明白なりとす此れを法に照らし  
に斷獄編「證佐之人不言實情故行誣證致罪  
有出入者減罪人罪二等者律」に處すべしと  
す  
右の理由により被告趙淵夏を杖九十徒二年  
半に照し懲役處斷新例第一條より依り答九十  
役二年半に處す  
趙淵元年十月十日  
（判決事姓名通日既記）  
李世貞判決書同新

●收税官吏の憂慮と逃避 地方各郡中には  
既に租税の徵收と丁へ居る向少からざる由  
なるも兩郡の郡合付からざる爲り度支部へ送納  
するの途なく去りて都府に貯蔵し置けば暴  
徒の掠奪に遇ふの恐れあり各收税官吏は何れ  
も非常な憂慮し居る趣あり然るに慶尚道宜寧  
郡にては幸にして郡合付と該郡收税吏紙幣四  
百餘圓を懐中して上京の途に登りしが忠清道  
鎮川を經過せる暴徒然強盜に遇ひ悉く強奪せ  
られたりと云ふ  
●九月中營業額別并増減比較表  
月別 八月中 九月中 營業 差引 増減  
總行 二 二 一 一  
支店 三 四 一 一  
支店 一 一 六 一〇  
支店 一 一 六 一〇

特別廣告

在京城帝國居留民規則  
第五十九條 第十四條選舉人名簿開張期日  
今回ノ選舉ニ限リ之ヲ適用セズ  
今回ニ限リ同條第二項首選選舉人名簿開張  
期日ハ之ヲ三日間ニ短縮シ選舉人名簿開  
張期日ニ選舉執行公告期日（四日）ニ短縮  
スルヲ得  
第六十條 明治廿七年七月連第四號京城居留  
民規則其他本規則ニ規定ニ基テル規則命令  
ハ本規則施行ノ日ヨリ施行スルニ依リテ  
第六十一條 本規則（發布ノ日ヨリ施行ス  
ル）ニ基テテハ未定ノ規則  
（施行スル）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汽船仁川廣告

豐島丸

十月三十日出帆(廿九日入港) 釜山 馬關 神戶 行 六十八日九噸 船長 井上 三郎

玄海丸

十一月三日日出帆(一日入港) 釜山 長崎 馬關 神戶 行 八十七日四噸 船長 茂木 鋼之

仙臺丸

十一月三日日出帆(二日入港) 長崎 香港 行 一千六百四噸 船長

長門丸

十一月五日入 即日日出帆 釜山 元山 浦鹽 行 千四百九噸 船長 ウルイソ

兵庫丸

十月 日出帆 釜山 元山 浦鹽 行 八百八十一噸 船長 ウチノタ

肥後丸

十月 日出帆 釜山 對州 長崎 馬關 神戶 行 八百七十一噸 船長 村井 保

顯益號

十月二十八日(陰曆九月廿二日)午前十一時出港 水運、上落行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支店

大坂商社 汽船仁川廣告

筑後川丸

十月 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隆盛丸

十月 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明石丸

十月 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信濃川丸

十月 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木曾川丸

十月 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坂行

仁川荷客取扱所

大坂商社 船會社 龍仁汽船龍山出帆廣告

住ノ江丸

十月廿八日 午前十時出帆

正重丸

十月廿九日 午前十一時出帆

京城 莊司回漕店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角  
一下等 五十錢  
外二 三十五錢

田原旅館

京漢視三十八號

薩摩煙草卸賣

(刻捲共) 弊店ノ煙草ハ從來御地各店ニ於テ發賣居リ...

川畑勇吉

仁川港日本居留地海岸裏手通 煙草商渡邊出張店

御取扱は親知と旨とす  
旅館 東京館  
御地は東京と旨とす  
●利便要位●

御旅神戶屋  
朝鮮仁川各國居留地  
第貳拾六號地  
弊館從來營業罷在候處各位ノ御庇蔭テ  
變リ日ヨリ繁榮仕候段給テ謝儀  
今般客室其他百事改良シ御待遇ハ  
申スニ及、ベ御料理等モ衛生上注意ニ  
注意ヲ加ヘ就中浴場ノ如キハ一層意ヲ  
注ギ又タ宿泊科ニ至ツテハ精々低廉ヲ  
旨トシ概テ左ノ三等ニ區分スト云ヘモ  
尙ホ如何様トモ御相談仕候間何卒當ニ  
倍シ榮耀御役宿ノ程幸願上候  
上等 金壹圓  
中等 金七拾錢  
下等 金五拾錢  
下宿 金五圓  
但室内御熟覽ノ上御相談ニ應ズ

スコット乳葉  
ハ次亞亞酸石灰及  
曹達ニ配合シタル  
レーフル油  
ハ其ノ好味ある事  
化ト助ケ行クものあり肺病氣管支  
炎瘰癧及喉咽病ノ格別ニ効  
弱の小兒には發養食物として著し効  
るものあり既に萬國名醫の賞賛を得たれば  
誠ニ用ひて其言の虚を知らざるを知ら給ヘ  
全國到處の藥舖に賣捌きあれば御最寄りに  
て御請求を乞ふ若しこれなき時は下記の特約  
別入へ御問合あれ  
紐育製藥舖 スコット  
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限本商行

諸非常直下廣告  
小生續印刻後御覽ノ爲ノ手邊地方へ出張致  
言リ候處今般客室仕候ニ就テハ一層工業ニ  
也強致シ向テ非常ノ直下日本ト御價從來ノ  
凡ソ半格ニ御用ニ應テ上等ノ影刻仕候間  
諸々御注文アランコト云ヘ  
追テ印材等モ同業者御覽全機極々安價ニテ  
賣捌キ且ツ雜貨ハ前價ヨリ割引販賣致候也  
東京 小林海文堂  
印刷師  
明洞第十一番地六號戸  
轉居 安田 穰

雜貨并 買貨并 賣販托依并  
業次買貨并 賣販托依并  
シト旨ニ速計相利便御主貨御  
付ニ候申可意厚御立引御主貨御  
候上願至ハ上借候下下申御  
京大店商出井 門南大城

開業御披露  
一茶碗  
一小田卷  
一歌哉句  
一稻荷う  
一うさん  
一善哉  
一御調子  
此外御香いろく  
右之此間より開業仕升たは就之之精一杯  
勉強 致志升併し風味ハナカクに  
御客儀の御譽に頂る程には出來かね  
升るがハンの熱ひが取得にまで御  
風呂の返へり道に一寸一盃かきかの  
内よりも御暖りあれと熱湯の熱釜  
二くも希ふものは  
南山湯の戻り道  
けふ 君が蕎麥  
一石油 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敷荷當相成候間多少ニ限ラズ  
御請求ノ程備ヘニ奉願上候也

一石油 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敷荷當相成候間多少ニ限ラズ  
御請求ノ程備ヘニ奉願上候也

一石油 大販賣  
今般弊店ニ多敷荷當相成候間多少ニ限ラズ  
御請求ノ程備ヘニ奉願上候也

朝鮮 并ニ  
右ハ萬寶  
可運候間  
一ノチ云  
大坂市  
加

冬物洋新  
過日來多物仕  
珍酒華山荷着  
希望候  
廣  
多洋服用  
向日來三物皆  
回珍品佳物イ  
購キヤ子

免 許  
私儀はシ  
今般都合  
通り不  
泥規中

新到  
到着  
キ  
ア  
ア  
蜂印  
佛國名  
純良藥  
夏季推  
飲  
外ニ  
ア  
ト  
野榮諸  
油  
物雜貨



廣告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右ハ萬寶チ旨トシ精々御便利ニ販發  
可致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向アラ  
シテ乞フ  
大阪市西區北堀江通四丁目

朝鮮物產依託販賣  
并ニ諸雜貨買次業  
右ハ萬寶チ旨トシ精々御便利ニ販發  
可致候間多少ニ拘ハラズ御用向アラ  
シテ乞フ  
大阪市西區北堀江通四丁目

文堂

穰

京城 南大 井出商店 大町 通

新荷着廣告

冬物洋服地絨珍柄各種  
并ニ附屬品種々  
過日來冬物仕入ノ爲メ日本へ飛越シ候處頃日  
珍柄澤山荷着致シ候間此際額々御注文ノ程奉  
希望候

廣告新貨着

冬洋服用絨花附屬具各種  
向日來冬物貨物サレ日本へ飛越シ候處頃日  
回珍品佳物イ許多シ到着サヤトオニ來  
轉サヤトオニ來轉サヤトオニ來

力武洋服店

免轉住廣告

鍼術灸治按廠  
治療所  
私儀是レ迄ア田原旅館ニ止宿罷在候處  
今般都合ニ據リ左ノ處へ移住仕リ從前  
通り不相變治療仕候  
泥岬田原旅館向高平借宅

久田安生堂

●胃弱 ●肺病 ●脚氣 ●リウマチス  
●瘧疾 ●疝氣 ●逆上 ●淋病 ●子宮病  
●其他諸症ニ即効アリ

新荷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鼠葡萄酒 ●生葡萄酒 ●平野葡萄酒 ●白砂糖數品 ●白砂糖數品 ●白砂糖數品

張店 組

着荷銃 廣 告 品 屬 附 銃 和 護 漢 履 會 商 泉 長 西 洋 服 各 種 子 帽

露披御着到荷新 東京 カル、ス煎餅 風月 舶來ビスケット 瓶入洋菓子數種 梨、桃、梅、杏、罐詰 堅魚、小鳥大和煮

第八會正風集 題夜永新米 豐秋園瑞穂宗匠樂撰 寄限 十一月五日 撰定全月 六日翌日ノ漢城新報ニ 掲載詠草ニハ居處雅號 及ビ通稱ノ明記ヲ乞フ

一字治新茶 御玉露製 一斤金壹圓五拾錢ニリ五圓迄 御煎茶 一斤金拾六錢ニリ壹圓迄 御薄茶 極端。廣遠。上別儀。 此三種御入用ノ節ハ御申越シ次第早速 晚上ケ御注文ニ應テ申候 右新荷着仕リ候間大方ノ諸君皆舊ノ御受求テ 莫ク 京城 泥 觀 河村至誠堂 近來流行ノ熱性病(所謂朝鮮熱)ニ限リ實費ノ 外ハ入院料ヲ徴收セザルニ付テ該病者ハ入院 治療相成度候也 贊化病院 發行所 漢城新報社



나향일 니, 지금니와, 갖치간죽, 니의부친  
박이, 을, 띄우게, 나향일, 그아히, 대답  
리, 물, 하녀, 글아티, 기필은, 못하겟스니,  
자, 금방의, 보지못, 하더리도, 서벽은,  
셔이, 분명이, 상면하리라하니, 도적놈  
자, 는, 들이, 이예니지술을, 좇쳐서, 슈동  
의, 일은죽, 니지술이, 그도적을,  
일, 실의, 안치고, 인하여, 가마니, 등  
전, 사, 빈실의, 모아서, 맞참되, 그도적,  
니, 사, 를을, 모아서, 맞참되, 그도적,  
두, 명을, 잡어서, 린나전설의니지술  
타, 니, 의, 지을을, 칭찬하더라

장, 의, ▲兼任高等裁判所豫備判事 法部參書官金基  
고, 을, 監十月二十三日▲命休職 全州鎮衛大隊附參  
을, 尉朴周英, 北青地方大隊參領申林, 江界  
一, 二, 地方大隊附參領金基, 任參領 正二品李泰鈺  
을, 從二品徐廷圭, 全申泰熙, 全李容觀, 任副尉  
을, 六品金然弘, 補親衛第四大隊大隊長, 參領  
을, 徐廷圭, 補北青地方大隊大隊長, 參領申泰熙, 參  
을, 補清州地方大隊大隊長, 參領李容觀, 補大邱地  
을, 方大隊大隊長, 參領李泰鈺, 免本職補全州鎮衛  
을, 大隊附, 全州鎮衛大隊副官副尉金宗燮, 補全  
을, 州鎮衛大隊副官, 副尉金然弘, 命停職 親衛  
을, 第四大隊附尉朴浩善, 本人이 該小隊兵卒副  
을, 額을 厭然施賞하고 昌元私人이 다 至於現  
을, 發하야 莫掩其迹이 옴기 停職懲戒하야 하  
을, 이다 (以上十月二十四日▲監叙判任官三等  
을, 處所로 擬離하야 奏事時에 趁不待命하야 處  
을, 職務上의 審慎치못하야 미라는도 以하야 罷  
을, 責하야 (十月二十四日宮內府)

●李小姐傳 (一)

경상도, 김순군에, 니씨에집, 하나  
다, 잇쓰되, 본디그고을, 양반인티, 가  
거, 하, 세난, 오부하나, 다만, 자식하나히,  
을, 음난고로, 미양, 스러하더니, 늦게야  
을, 그부인이, 띠고잇서, 비가점하, 부  
을, 루거날, 그니씨난, 디할말을시, 기  
을, 우리, 거하거니와, 그일향사름들도, 다하  
을, 하고, 하니, 외고여, 아달났지를, 기다리  
을, 상히, 드니, 십삭이차미, 회복하거날, 본  
을, 명이, 즉, 일리여아라, 비록, 설하하나, 이  
을, 의, 자지정이, 웃지, 남녀가, 잇쓰리오,  
을, 여, 이아히, 점하하라미, 이물이, 가위  
을, 저, 물, 일성이라, 그부모가, 남에, 열아달  
을, 건, 이, 보담, 더귀이길니, 나하, 니팔이되미  
을, 음, 노, 그부덕과, 그승품이, 전젼, 요도속  
을, 비, 이, 녀라, 그부모가, 그와같은, 비필을,  
을, 동, 의, 으더서, 혼인, 하라고, 벌니구하드  
을, 우리, 니, 그근처에, 김씨에집이, 잇쓰되,  
을, 기, 원, 이김씨난, 또다만, 아달하나하, 두  
을, 하, 노, 엇난지라, 이아달이, 지조와, 문필이

남에게, 뛰어나니, 그부모와, 그사  
을, 골, 사름드리, 모다, 귀이여기드니,  
을, 그아히, 나이, 열칠팔세되미, 혼인치  
을, 날, 곳절, 유하되, 맛당하, 곳지읍서,  
을, 근심하더니, 드르니, 김순군, 니씨  
을, 녀자가, 미오잘, 자란단단, 소문을  
을, 듯고, 중의를, 보나와, 흥혼하죽, 그  
을, 니씨가, 또하, 그김씨남자, 잘두었  
을, 하야, 혼일을, 갈하여, 두집이, 혼인  
을, 하, 도라오기를, 기다리드니, 김씨  
을, 남자가, 우연이, 병이들미, 그부모  
을, 가, 유야로, 구완하야, 의약을, 만니  
을, 드려도, 차도읍서, 혼일이, 점점박두  
을, 하거날, 그부모, 해오되, 병세가, 그  
을, 정호, 날노단, 지닐슈, 음난지라, 니  
을, 씨가게, 병세이, 갖들을, 등기하야,  
을, 혼일을, 물니여, 병세, 나혼후, 다시  
을, 락일하야, 혼인지지자, 하얏거날, 규  
을, 가에서, 이과별을, 듯고, 날마다, 남  
을, 자에집, 소문을, 람지하야도, 그남  
을, 자에, 병세가, 차도읍고, 점점침중  
을, 하야, 백야이, 무호하지라, 이렇케  
을, 병중으로, 지니간지, 슈년이되야, 니  
을, 씨, 규가에서, 필경, 김씨남자가, 회  
을, 성치, 못하, 기를, 짐작하고, 유단을,  
을, 환송하고, 다른곳되, 혼인을, 정하야  
을, 지되, 라하죽, 그규양이, 이준치를  
을, 보고, 일하은, 그규양이, 그모친게  
을, 엇자오되, 미가규녀가, 이런말, 숨,  
을, 엇잠던거시, 도리상에, 어고여지나  
을, 그렇치, 아니하, 국절이, 잇기의,  
을, 북소리음을, 무릅쓰고, 말슴하압나  
을, 니, 세상에, 사름이, 녀자로나서, 천  
을, 정연분을, 김씨남자로, 정하야, 유  
을, 단, 거리져지, 하얏쓰니, 그남자, 가  
을, 성사간, 부부어날, 드르니, 부모게  
을, 서, 다른곳으로, 다시, 혼인을, 지되  
을, 라하시니, 그러하도리, 어디잇게하  
을, 압, 그남자가, 비록죽단되도, 나난,  
을, 다른뜻지, 읍스오니, 부모난, 부지  
을, 립서, 다른혼처, 구하지, 마서압쇼서  
을, 하되, 그모친니, 갈아티, 우리부부,  
을, 늦게야, 니하나하두어, 남에, 열자  
을, 식보담, 낮게여기여, 길넛다가, 지  
을, 금와서, 혼인, 지되기전에, 남자가,  
을, 병이드려, 우금슈연에, 회상할도리  
을, 시, 들듯하고, 또네나하, 니십이, 갖가  
을, 왔난지라, 웃지그랄, 기다리고, 홀  
을, 노하그리오, 네아죽, 어린, 제집아

하가, 무어설일고, 이가, 말하  
을, 나하고, 그아히, 부친하리, 이말하  
을, 나하치하니, 그부친니, 이말하듯고  
을, 그여아에, 마암이, 전젼, 읍스나, 마암  
을, 으로아나, 그여아를, 불너갈아티, 네  
을, 에, 말이, 당연하나, 늙은부모가, 녀  
을, 하느출, 바라고, 노라, 자미를, 보자  
을, 하얏드니, 자금와서, 남자가, 저러  
을, 듯, 병이들고, 네가, 파년하야, 부모  
을, 에, 마암에, 심어, 민망하거히, 탁쳐  
을, 에, 혼인, 지되라, 하거날, 웃지, 네  
을, 마암되, 로, 하리오, 다사두말하코,  
을, 잇거라하니, 그규양이, 다시, 말하  
을, 되, 부모가, 자식에, 정상을, 생각하  
을, 와, 이렇케, 말슴하오니, 되에, 마암  
을, 은, 곳치지, 못하겟시니, 원컨디, 부  
을, 모난다른곳, 혼인정할, 생각마시읍  
을, 소서, 그부모, 허릴읍서, 근심이, 적  
을, 지아니, 하더니, 일하은, 그여아가,  
을, 혼계교를, 띠여, 밤이면, 그부모, 모  
을, 로게, 남북호별을, 지어입고, 밤중  
을, 에, 되다라, 그김씨, 남자에, 집을무  
을, 러, 슈일만에, 남자에, 집에가서, 그  
을, 주인보고, 절하코, 꾸러안거날, 그  
을, 주인하죽, 남자에, 부친나라그아히  
을, 를보고, 말하되, 네어되서, 오난하  
을, 치며, 승명은, 무어시냐하니, 그아히  
을, 엇자오되, 소등은, 아모씨하스난,  
을, 승명은, 아모지읍더니, 년전에, 그자  
을, 제아히, 아모지로, 더부러, 아모고  
을, 을, 백일장, 장중에서, 서로맛나, 여  
을, 러날, 의약형제하게, 지되와서, 서로상  
을, 약하기를, 아모씨라도, 서로차차서  
을, 조이맛나자, 하온고로, 맛찰, 아모  
을, 곳, 아모에집이, 나에, 미가인고로,  
을, 그집에, 가다가, 지나난, 길에, 그아  
을, 히집이, 이집이라, 하올기하, 만나  
을, 보라고, 차자왔산죽, 자제아히가,  
을, 어디가서, 씌난잇가하니, 그유인니,  
을, 말하되, 니자식이, 지금, 병이든지,  
을, 슈년이로되, 낮지못하코, 거의죽을,  
을, 지경에, 이르러, 정신도, 모로고, 잇  
을, 쓰니, 네에, 말을드르니, 반가오나,  
을, 서로본들, 웃지알이오하되, 그아히  
을, 다시엇자오되, 그년그러하듯하나  
을, 이왕여기거지, 왔스오니, 혼반보  
을, 기를, 바라나이다하되, 그유인이,  
을, 그아히를, 다리고되당으로, 드러갈  
을, 식미완







維 報

景福宮御巡覽  
と饗宴

小松若宮殿下が去る二十六日朝、元探偵一覽後景福宮と御巡覽より同宮にて朝鮮料理の饗宴を受けさせられしことは前報に記し奉るが、今其御饗宴と承はるる殿下の殿司司令官以下の各海軍將校、加藤代理公使、宇佐川中佐、新山大隊長以下の各守備隊將校、野津大尉、國分通譯官等と共に同宮の正門たる光化門を入らせられしは午後一時頃にして此時殿下御通行の爲め其大門を開けり（御出門の時刻亦然）新宮にて殿下は先づ興禮、勤政の二門を経て前庭に即せり昌德宮の仁政殿に相會する勤政殿と御一覽あり夫より思政門と入る思政殿と西に視、備門と經、康寧殿と通る、又け兩儀門と入る交泰殿と御一覽の後西に折れ御の内閣と通池を隔て、相對せる慶會樓に登り四方の風光を眺めさせ給ひ夫より辰居門と經、殿内裏手の大門より神武門を出でさせらるる時、宮内大臣李熙親王直に殿下と當日の御休所所にて充てたる同門外の大軒に参迎せり時已に二時十分頃ありし殿下は暫時同軒に御休養の後李宮内の御案内にて廊下階ひに當日の宴席を充てたる觀禮樓に入り給ひ御供の加藤代理公使、海軍將校、國分通譯官等諸將校は夫關の議政方、神武門外、仁王山の麓に在りて飲の田園を隔て、門と相對せり此田園は則ち殿試試驗場にして檢校、殿下が慶事の實狀を觀覽せし給ふ最も可なり所、樓、廊下階より大軒は即ち宮内大臣の待する所あるやに承はれり當日殿下の御席は樓の東端に仕つらへ其西方に長く海軍將校の坐を設け卓上には趣向を凝らせる種々の朝鮮料理と並べ各種の洋酒と酌み御應申上げ御供の諸氏御陪食を爲し、大君主殿下には御獎中あるを以て御御さし給はる李宮内令、奉じて殿下の御接待と勤り海陸軍將校の席には宮内府の官吏通間に周旋せり宴半にして「トスト」あり加藤代理公使は、大君主殿下の萬歳を三唱し賓客一同之に和ひ次に李宮内は殿下下萬歳を三唱し奉り終つて復た獻酬の時に移し始終終禮殿正を保ち會を畢へたるは三時半頃にして夫より殿下には復た李宮内の御案内にて大軒に入り給ひ同軒に暫時御休息の後歸途に就かせられ兩儀門内にて宮内府の典に召し四時過ぎ光化門と出でさせられ夫より前報に記し奉る如く英語學校に御立寄り有り光化門通り東へ東大門通りに折れ鐘路に、南へ南大門通り、鐘路九里街に入り、明洞、我居留地を經五時過ぎ無事御歸宮さし給ひたり

隣交禮有り

今頃小松若宮殿下の御來遊に就き宮内府及朝鮮政府の殿下に對する敬意懇摯に至るる無き事なきは、無きは日米の本紙に其事實を詳記せし所の如し右に就き殿下よりの御意あり、旁々加藤代理公使は一日李宮内大臣及李外務大臣を訪問し厚く其の厚意を謝せられたり

我二艦の出港

為政來仁川に入港し居たる扶桑、千代田の二艦は遂に昨日午前十時を以て同港を發し佐世保に向へり小松若宮殿下に之を再昨日午後五時頃無事御歸宮、昨朝千代田に御歸來ありしや承はる

松島艦の入港

帝國常備艦隊松島は遂に一日午前十時を以て仁川に入港せり同艦に御乗組みあらせらるる、

華頂宮殿下

今頃仁川に入港したる松島艦に乗り組みみへる華頂宮殿下の御略歴と承はるるに殿下は伏見宮親愛王殿下の第一子、明治八年十月十六日の御誕生にして御母は都子と申し從四位下入興ありたる方より始め御名は愛賢王と稱し給ひしが明治十六年四月二十三日特旨を以て博厚親王の御稱御付けられ同年六月十一日博恭王と改名せし給へり

松島艦將校入京

帝國軍艦松島の副長武富少佐外七名將校は昨日水路入京巴里館に入らるる氏名左の如し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我二艦の出港

此旨官軍具悉野恩、朕則一直不計、卿則欲必遂乃己乎、朕非謂卿無濟也、雖卿而欲爲民強之也、今民困之勢、迫迫乎此、初不欲一着手而若是使々、誠非所料、大夫國人其必曰非所料於平日、以卿忠愛、豈忍爲是、朕志雖定、待卿歸國、卿其諒之、卿其諒之、事道務書云傳

松島艦の入港

固より例の風説子の捏造説するやも知れされ松島、扶桑、千代田の三艦は遂に昨日午前十時を以て同港を發し佐世保に向へり小松若宮殿下に之を再昨日午後五時頃無事御歸宮、昨朝千代田に御歸來ありしや承はる

華頂宮殿下

今頃仁川に入港したる松島艦に乗り組みみへる華頂宮殿下の御略歴と承はるるに殿下は伏見宮親愛王殿下の第一子、明治八年十月十六日の御誕生にして御母は都子と申し從四位下入興ありたる方より始め御名は愛賢王と稱し給ひしが明治十六年四月二十三日特旨を以て博厚親王の御稱御付けられ同年六月十一日博恭王と改名せし給へり

松島艦將校入京

帝國軍艦松島の副長武富少佐外七名將校は昨日水路入京巴里館に入らるる氏名左の如し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我二艦の出港

此旨官軍具悉野恩、朕則一直不計、卿則欲必遂乃己乎、朕非謂卿無濟也、雖卿而欲爲民強之也、今民困之勢、迫迫乎此、初不欲一着手而若是使々、誠非所料、大夫國人其必曰非所料於平日、以卿忠愛、豈忍爲是、朕志雖定、待卿歸國、卿其諒之、卿其諒之、事道務書云傳

松島艦の入港

固より例の風説子の捏造説するやも知れされ松島、扶桑、千代田の三艦は遂に昨日午前十時を以て同港を發し佐世保に向へり小松若宮殿下に之を再昨日午後五時頃無事御歸宮、昨朝千代田に御歸來ありしや承はる

華頂宮殿下

今頃仁川に入港したる松島艦に乗り組みみへる華頂宮殿下の御略歴と承はるるに殿下は伏見宮親愛王殿下の第一子、明治八年十月十六日の御誕生にして御母は都子と申し從四位下入興ありたる方より始め御名は愛賢王と稱し給ひしが明治十六年四月二十三日特旨を以て博厚親王の御稱御付けられ同年六月十一日博恭王と改名せし給へり

松島艦將校入京

帝國軍艦松島の副長武富少佐外七名將校は昨日水路入京巴里館に入らるる氏名左の如し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松島艦將校入京

武富少佐 先年我公使館付武官として當地に在勤し居たる人なりと聞く  
仁川の歓迎會 仁川の我居留官民は一昨午午後六時より松島、扶桑、千代田三艦の將校を同地仁川座に招待し盛大なる歡迎の宴を張りたり







壹錢八厘  
壹錢六厘

君々  
岩

源